

# 농산물의 대안유통모델 연구

## 사회관계론적 접근

김철규 · 김홍주 · 한도현 · 김기섭

(주)명진씨앤피



## 머리말

세계화는 한국의 농식품 부문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표준화된 세계시장을 보편적 규범으로 강요하는 세계화는 한편으로는 농업 생산자들의 존재 기반을 위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건강과 선택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인간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조차 고도로 상품화(commodification)되어, 시장원리의 지배 속으로 편입되면서 인간과 '사회'가 식민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급증, 조류독감, 광우병 등 식품과 관련된 위험은 일회적 '사고'가 아니라, 과도한 상품화와 거대기업들이 지배하는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 식품시스템이 지닌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먹거리를 둘러싼 농민과 소비자들에 대한 위협에 대해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의 '무기력증'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이행과 이에 조응하는 한국의 축적체제의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더 이상 정부는 국민국가의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WTO, IMF 등 세계적 조절기구들과 큰 시장 장악력을 지닌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은 탈규제와 시장원리를 강조하며 무차별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농민들과 소비자들은 어떠한 자기 보호 방법도 확보할 수 없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국민국가 단위의 농업·농민 보호정책과 국가의 소비자(건강, 안전)에 대한 보호가 세계화의 힘 앞에 무력하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해답은 세계화가 아닌 '다른 게임의 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이다. 세계화는 거대한 농식품 기업들의 시장 독점력을 전제로 하여, 농식품의 공간적 이동, 낮은 가격을 통한 지역 농업의 파괴, 그리고 산업적 가공농산물의 시장 점유율 확장 등을 구체적인 전략으로 채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농민들의 경제는 황폐해지고, 소비자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에 빠지는 것이다. 이러한 게임의 규칙 하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한국 농업의 낮은 경쟁력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렵다. 아니 불공정하며,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른 게임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기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국가의 정책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의 지원이 더욱 중요하다. 최근 건강과 식품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국의 대안 농업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익명적 시장논리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대안적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실험의 공간은 기존의 포드주의적 유통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진지를 구축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장형' 유통 모델의 한계를 비판하고, 이를 넘어설 수 있는 '사회관계형' 유통모델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향후 우리의 농산물 유통의 중심과제는 식품의 '신뢰·안전'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얼마나 좁혀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모아질 것이다. 생산농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적정한 기준 아래 농산물을 생산하고, 정확한 생산공정·생산경로 및 농산물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유통업자는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정보를 경제·시장논리가 아닌 공생의 논리와 사회적 가치의 지지 측면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소비자는 개인과 가족의 일차적인 건강·안전욕구를 넘어 사회적 건강, 사회적 안전의 지지 차원에서 소비자 운

동을 통해 유통과 생산과정을 바꾸어 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농업의 미래가 있다. 경쟁력이 있다.

이 연구가 모색하고 있는 대안적 유통모델은 바로 이러한 ‘생산-유통-소비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 묶어주는 작업이다. 이러한 연구는 생산자의 소득보전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 충족이라는 일차 목적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의 공생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 (social solidarity)의 형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관계형 유통모델의 하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과 농산물 직거래운동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기존의 관행농업의 유통모델인 포드주의 유통체계의 문제와 대안적 유통체계의 특징과 조건을 찾아보았다(김철규). 제2장에서는 친환경농업의 현황을 진단하면서 대안 생산체계의 가능성과 과제를 생협 생산농가와 생산조직을 분석하면서 진단하였다(김홍주). 제3장에서는 직거래운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주민들의 지역 만들기를 분석함으로써 도농, 그리고 도시 내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한도현).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생협의 특징과 생협 소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대안적 유통망으로서의 유용성과 한계, 그리고 가능성을 탐구하였다(김기섭).

한국의 농업·농민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이 연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그마한 희망의 빛이 되어주길 모든 연구자는 간절히 기원한다.



## 1장 – 포드주의 유통체계의 한계와 대안적 유통체계

1. 한국 농업의 위기와 포드주의적 접근의 문제	11
2. 농산물 유통구조의 일반적 특징과 변화	18
3.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역사와 구조	27
4. 사회관계형 유통: 생활협동조합의 현실과 가능성	33
5. 결론	46

## 2장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대안 생산체계의 모색

1. 머리말	51
2. 대안 생산체계의 특징	54
3.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61
4. 친환경농업의 생산농가와 생산조직	69
5. 대안 생산체계로서 친환경농업의 과제	83
6. 맺는 말	88

## 3장 – 도시 주민들의 지역 만들기 운동과 농산물 직거래 운동


1. 머리말	93
2. 지역공동체운동으로서 농산물 직거래운동의 사례	99
3. 비교분석과 결론	125

## 4장 – 대안적 유통운동으로서의 생활협동조합

1. 머리말	135
2. 생활운동이 발흥하게 된 배경과 조건	136
3. 한국적 생활운동의 특징	138
4. 생활운동의 대안 유통운동적 기능	160
5. 생활운동의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의 모색	189
6. 결론	197

## 부 록

1. 생활생산자 대상 질문지
2. 생활조합원 대상 질문지
3. 생활실무자 대상 질문지

# 1

## 포드주의 유통체계의 한계와 대안적 유통체계



# 포드주의 유통체계의 한계와 대안적 유통체계

김철규(고려대학교 사회학과)

## 1. 한국 농업의 위기와 포드주의적 접근의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농가의 파탄과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값싼 농산물의 수입 급증과 이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폭락, 농가부채 급증, 30%에도 이르지 못하는 낮은 식량자급률, 쌀 시장 개방과 농민의 위기감, 잇따른 농산물 통상압력, 농산물의 안전문제 등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 이어 최근의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방안’은 농산물가격의 보장으로 농민의 생산의욕

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통체계 개선방안은 5~6단계에 이르는 복잡다단한 유통구조로 인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산지와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값이 3~4배 이상 차이가 남으로써 농민은 싼 값에, 소비자는 비싼 값에 농산물을 팔고 사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단계를 단순화하고 마진을 축소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은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싼 값으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물류 혁신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농민의 소득보장과 소비자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60년대 근대화 농정이 시작된 이후 학계와 현장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실패로 귀결되었으며, 몇몇 산지 직거래나 조합 및 공동체 형식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현재에도 여전히 농산물 도매시장을 통한 대량공급과 경쟁, 경매의 수급시스템 아래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유통단계별 이익집단의 이기적 반발 내지는 농산물 유통의 특수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해결방안으로 단계축소와 물류혁신, 그리고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대량생산·대량소비를 연결하는 ‘포드주의 유통체계’를 전제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중심 과제로 제시된다. 산지직거래의 경우에도 대부분 ‘유통경로 단축’과 ‘차별화된 상품의 대량교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강조하기 때문에 포드주의 유통체계의 연장선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포드주의 유통모델에는 다음 세 가지의 핵심 문제가 있다.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는 오로지 교환관계로만 연결되며, 중간단계로 유통구조가 개입되기 때문에 생산자는 먹거리에 대한 책임의식이 실종되고, 소비자는 농산물의 진정한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안전성도 위협받을 수 있다. 이른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소외 및 불신’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수입농산물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식품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찾으려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대해 기존의 유통시스템은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소비의 고급화 추세에 맞춰 자연농법 또는 환경농업을 적극 도입하여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려는 생산농가에 제도 기존의 유통체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기존의 포드주의 유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넘어서는 대안적 유통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크다. 이러한 대안모델은 한 마디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주체로서 소통하는 유통체계’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생산자는 안전식품 및 고급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는 먹거리가 지니는 문화와 생태적 가치를 인식하여 생산자의 생산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형태이다. 이처럼 가치(value)와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적(interactive)’ 혹은 ‘사회관계적(social relational)’ 유통체계야말로 상품화와 이윤추구를 위한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이 제공하는 위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안 모델의 단초는 외국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그들만의 농업모델로 역내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이 모델은 유럽농업의 3대 장점인 농산물의 안전성(safety), 우수한 품질(quality), 다양성(diversity)을 강조해 비가격 경

쟁력을 높이고 일정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와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역내 모든 농산물에 대한 완벽한 추적시스템을 구비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신뢰'를 주고, 소비자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유통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농업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위 '식(食)과 농(農)의 재생플랜'이라는 농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 플랜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하여 생산·유통·가공 등의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자국의 농산물 소비를 늘려나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 가격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나아가 도시와 농촌을 공생·교류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 도시와 농촌의 쌍방향에서 교류하는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만들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전원환경을 창조하는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로 승화시키는 거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농업·농촌의 회생은 단순히 농업의 생산성 논리, 유통과 소비의 경제성 논리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 신뢰, 도시와 농촌의 유기적 연대, 새로운 공동체 운동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 연구가 모색하고 있는 대안적 유통모델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안적 유통의 출발점 혹은 준거로 상정하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운동, 즉 생활협동조합운동(생협)과 농산물 직거래운동이다. 이들은 시장적 특징을 지니면서도, 사회적 관계가 배태된 시장이다. 일반적인 포드주의적인 시장에서 발견되는 비익명성과 탈역사성을

넘어선다. 또한 생협과 직거래운동을 통한 먹거리의 소비는 단순한 거래행위를 넘어서 다양한 사회관계를 지향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소통(communication), 생협 조합원들간의 연대(solidarity), 그리고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념(new ideology)은 세계화가 추동하는 시장의 폭력으로부터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방어막의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폴라니식으로 표현하자면, “과연 참여적 대안 유통체제가 사회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Polanyi, 1957).

20세기의 지배적인 식량 수급 모델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포드주의적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포드주의적 식량 체제는 대량의 농업 원자재를 투입하여 동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량 운송 시스템을 통해 도시로 이동시킨다. 도시에서는 이렇게 생산되고, 운반된 농식품을 소비하는 대규모의 시장이 존재한다. 균질적인 대량 소비시장은 무엇보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해 만들어진 임금노동자를 겨냥한다. 이들 임노동자들은 대중시장(mass market)의 소비자로 자리잡았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미국 사회를 이러한 포드주의 농식품 체계의 이념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Kim and Curry, 1993).

역사적으로 볼 때, 포드주의 농식품 체계의 유통의 축에는 농산물의 대량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 및 철도망의 완비, 대량 구입을 통해 낮은 가격을 보장하는 슈퍼마켓이나 할인매장의 등장, 1주일 단위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생활 양식으로의 전환, 냉장고의 대중화 등을 꼽을 수 있다(Kenny, Labao, and Goe, 1989).

이러한 포드주의 농업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 ① 도시 임노동자의 증가와 이들의 대중 소비자화
- ② 대형 마켓의 등장
- ③ 표준화된 농산물 관리 시스템
- ④ 농식품 구입 주기의 장기화
- ⑤ 도시적 생활양식

한국에서도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포드주의 농업체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다(윤근섭·김철규, 2001). 도시 임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대중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소규모 점포나 재래시장은 위기를 맞았다. 대신 대형 슈퍼마켓과 할인점들이 저가로 물량공세를 펴 시장 장악력을 높여나갔다. 이들은 최종 판매 유형에 맞는 표준화된 농산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형마켓들은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어떤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대형 마켓에서 판매되고, 진열되는 형태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도시적 생활양식의 확산과 농식품 구입의 주기가 길어지게 된 것과도 깊이 관련된다.

그러나 현대 대중사회가 보다 탈중심적이고, 탈근대적인 다양성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동질화된 생산과 소비에 대한 비판이 늘어졌다. 농식품과 관련하여서는 보다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즉, 기존의 농식품 체계를 지탱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직성과 유통 구조의 획일화가 초래하는 '위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효율성과 낮은 가격을 근거로 한 마케팅의 강조가 간과한 건강(health)과 농식품의 안전(safety)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이다. 특히 서구사회에서 중산층,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 그리고 식품 안전에 관심이 높은 여성들에 의해 포드주의 유통체계는 큰 도전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소

규모의 유기농산물 전문 점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농업(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유기농 소비자협동조합, 유기농 장터(farmers' market) 등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안전하고, 건강에 좋은 고품질 식품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형 마켓 이외에 대안적인 유통 경로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예컨대 유기농가에 의한 인터넷 거래, 떡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운동, 종교 단체의 직거래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주민단체 주도의 직거래 운동, 테마농장의 교류운동, 주말농장운동 등이 실험되고 있으며 비교적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유통은 단순히 경영학적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큰 관심은 과연 자신들이 소비하는 농식품이 정말로 기존의 농산물과는 다른 생산과정을 거친 것이냐에 있기 때문이다. 즉, “정말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안적인 농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이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포드주의적 유통체제를 중심에 놓고, ‘건강’이나 ‘유기농’을 또 하나의 브랜드로 제시하고, 그것들의 판매 증진을 모색하려 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안적 유통 체계에 의존하려는 소비자들의 사회적 관심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대안적 소비자들은 대안 유통 경로에 대한 ‘신뢰(trust)’와 더 나아가 ‘참여(participation)’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유통 운동도 단순한 농산물의 판매가 아닌 신뢰와 참여를 증진하고, 더 나아가 도시와 농촌, 생산과 소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2. 농산물 유통구조의 일반적 특징과 변화

이 장의 일부와 앞으로 다른 장들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대안적인 유통에 관한 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의 현황과 특징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자. 현대사회의 모든 상품은 생산, 유통, 소비를 통해 생애주기를 마친다. 그중에서도 농산물은 생산과 유통 모두에서 다른 상품에 비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원론적인 수준에서 농산물 유통이란, 농산물이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최종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 1) 농산물 유통의 특성

농산물은 공산품과는 생산과정에서부터 다르다.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자연의 일부로서의 성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근대 산업사회 이후 농업 생산과 유통으로부터 자연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일종의 탈자연화(de-naturalization) 과정이 농식품 자본에 의해 끊임없이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한계를 지니는 것이다(Goodman and Redclift, 1991; Goodman, Sorj and Wilkinson, 1987). 특히 냉장보관 및 운송 등의 방식이 발달하였지만, 농산물의 근본적인 속성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의 독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산물 생애주기의 장기성을 고려하면, 농산물의 유통은 품종

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비자들이 원하는 품종을 육종하는 과정이 농산물 유통과 깊이 관련되는 것이다.

둘째, 농산물 유통은 산지의 다양성과 지역적 편재성 때문에 상인의 역할이 복잡하고 크다. 광범위하게 분산된 다수의 농가에서 소규모로 생산된 농산물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수집, 분산단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은 경로가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으며 유통비용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농산물 유통은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이익과 손실의 폭이 크며,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어떻게 안정적인 유통 체계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넷째,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그의 상품적 가치에 비하여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며, 계절성이 크고, 부패·변질되기 쉽다. 따라서 농산물의 유통은 공산품에 비해 감모손실이 크고 저장·수송 등의 유통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포장개선, 표준규격화 등 상품성을 제고시키는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다섯째, 농산물은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다. 농산물은 계절적이고 기상조건 등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인위적인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산물은 보관상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수확시기에 일시량으로 출하되는 것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소비를 위한 수요는 연중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 및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서 수요에 즉각 부응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수급 불안정 및 가격 변동을 초래하기가 쉽다.

여섯째, 유통시설의 현대화가 미흡하고 생산자 단체의 결속력이 약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수산물 도매 시장은 그 기능이 미흡하고, 시설이 부족하여 유통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도매 시

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정착되지 못하여 산지 시장과 소매 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http://www.kamis.co.kr>).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구조의 한 예를 들어보면 [그림 1]과 같다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그림 1]은 청과물의 유통경로를 보여준 것인데,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복잡성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의 상당 정도가 생산자인 농민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 유통상인들에게 과도하게 지출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단순화에 따른 위험을 무릅쓰고, 품목별 유통경로를 유형화해보면 아래와 같다 (농수산물유통공사, 2003).

#### (A형)

상추, 오이, 토마토, 딸기, 풋고추 등

- 저장이 곤란하고 매일 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확이 계속되는 이들 품목은 작목반 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산지수집상의 접근이 비교적 쉽다.

- 생산자(조합)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생산자(조합) → 산지공판장 → 도 · 소매상 → 소비자

#### (B형)

사과, 배, 감귤, 단감, 마늘, 양파 등

- 저장 가능하고 수확후 정전거래가 되는 품목은 생산자(조직)와 산지유통인 활동이 병행되고 있다.

- 생산자 → 산지유통인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생산자(조합) → 저장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마늘, 양파의 경우 도매상과 소매상 사이에 중간도매상의 개입이 많다.

<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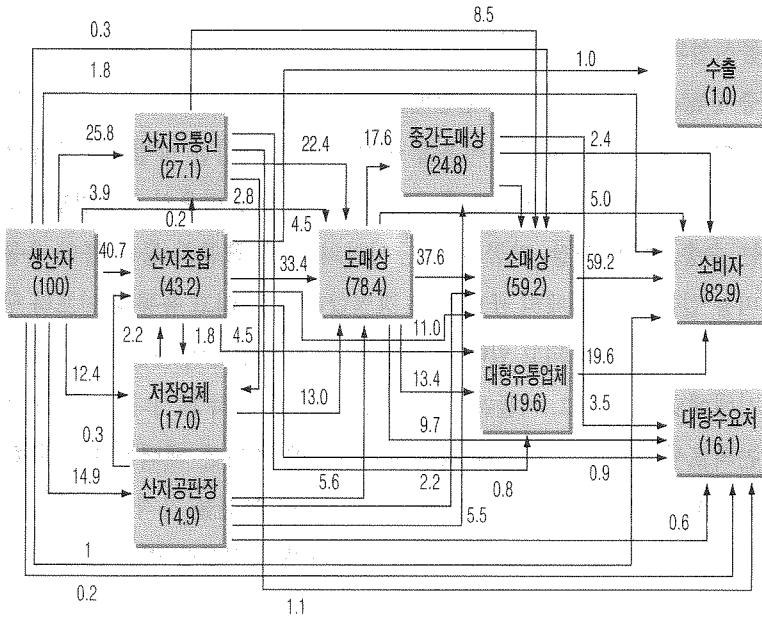
배추, 무, 대파, 당근 등

- 일시에 수확·출하되는 품목은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가 비교적 활발하며, 당근의 경우 산지조합을 통한 대형유통업체 출하량이 많다.

• 생산자 → 산지유통인 → 도매상 → (중간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비자

[그림-1] 청과물 유통경로(2003)

(단위 : %)



- 생산자 → 산지조합 → 대형유통업체 → 소비자

이러한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복잡성과 비효율성 때문에 오랫동안 개혁의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유통부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왔다. 1994년 7월에는 대통령 직속 「농어촌발전위원회」가 유통개혁대책을 제시하였다. 농림부는 1994년 5월 이른바 「농안법파동」을 계기로 산하에 「농수산물유통개혁기획단」과 「농수산물유통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1994년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을, 1996년에는 이를 보완한 제2차 유통개혁대책, 1998년에는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에서 대책 등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총 57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중 9조원에 이르는 재원을 투입하여, 산지유통센터·산지집하장 등 산지유통시설과 20개의 소비지 공영도매시장을 설립하는 등 유통시설의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김완배, 1999).

이들 투자는 대개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염두에 둔 것들이었다. 일반적으로 추구되는 농산물 유통비용의 절감방법으로는 수송, 보관, 저장, 가공 등 유통시설의 개선, 표준화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유통업체의 규모화 및 경영합리화, 그리고 유통의 인프라 구축 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몇 가지 방법들의 제안과 부분적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근본적으로 포드주의적 패러다임 안에서의 논의로서 생산자인 농민과 최종 소비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농민들은 재생산마저 어려운 농산물 가격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농산물을 먹고 있으며, 안전성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실정인 것이다.

## 2) 농산물 유통 구조의 변화와 대형매장의 부상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해서 1990년대 이후 눈에 띄만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할인점은 연간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위 4개 기업의 시장점유 비중이 2002년에 72.7%에 달했다(반지명, 2003). 또한 대형 소매점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산지와 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예컨대 대형유통업체가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는 비율은 2002년의 경우 과채류가 41.4%, 채소류가 32.0%에 달했다. 이들은 규격화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특정 산지를 선정하고,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2~3개의 품질등급만을 취급하고, 원료농산물 구입처도 1~2개로 단순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황의식, 2003: 50).

〈표-1〉 세대별 식품의 주 구매장소, 단위 %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계
대형할인매장	71.6	68.3	63.1	52.8	66.8
동네슈퍼	18.7	16.1	13.8	8.3	15.6
재래시장	7.5	8.3	16.2	27.8	11.4
백화점	2.2	4.1	5.4	11.1	4.4
직거래장터	-	1.4	1.5	-	1.0
인터넷	-	1.8	-	-	0.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수도권 518가구 소비형태 조사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비자들은 식품 구입에 있어 점점 더 대형 할인 매장을 찾고 있으며, 그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 1>은 이와 같은 추측의 근거를 제공한다. 세대에 따라 식품을 구입하는 장소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젊은 층일수록 대형 할인매장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20대의 경우 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할인매장을 찾는 비율이 71.6%였는데 비해 50대 이상은 52.8%에 불과했다. 한편 재래시장 사용은 이와 정반대의 경향을 보여서, 20대는 7.5%가 재래시장을 활용한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은 무려 27.8%가 재래시장을 식품 구매의 장소라고 답했다. 따라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식품 구매활동에서 대형 할인매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질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형 할인매장의 중요성 증가는 농민과 소비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유통과정으로 모든 가치가 집중되기 때문이다.

### 3) 세계화와 농산물 유통의 위기

세계화는 한국의 농업 부문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농민 보호적 정책들에 대한 외부적 공격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 궁핍과 재생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민들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추동하는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광풍이다. 신자유주의는 세계시장을 표준으로 삼아 하나의 단일한 시장을 추구하고, 정부의 개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공격하고 있다. 둘째는 한국의 공업 우선주의적 발전 전략

의 심화이다. 남한의 경제발전 모델은 1960년대 이후 줄곧 수출 지향적·공업 중심적이었지만,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특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은 본격적인 국제분업 구조 속에서 한국의 탈농업화(de-agriculture)를 본격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러한 위기가 도시 소비자들을 겨냥하여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해온 시장지향적 농업인들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미작 부문의 침체 속에 그나마 기업가적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 경영을 해온 국내 생산자들의 근거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외국 농산물의 위협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농산물 수입의 개방과 유통시장의 개방은 농산물 유통부문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완배(1999)는 세계화가 주는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농산물 유통에 있어 종래의 국내산 농산물을 위주로 한 한줄기 흐름에 수입농산물을 더하여 크게 두 줄기 흐름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격, 규격화 및 등급화 면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점하는 수입농산물에 대응한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상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된다.

둘째, 값싼 외국농산물 수입의 확대는 국내농산물 소비의 대체를 촉진시켜 해당 국내농산물의 생산위축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의 작목선택의 폭이 수입개방의 영향이 적은 작목으로 집중하게 되고 수입대체작목의 개발, 지역간·작목간 생산조정정책이 미흡할 경우,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국내 농산물가격의 폭락·폭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셋째,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및 앞서 언급한 소비자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제고 현상은 그 동안 농산물 유통부문에서 비교적 소홀히 취급되어 왔던 농산물 검사분야, 특히 수입농산물의 검역분야에 대한 고려가 보다 큰 비중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넷째,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외국의 대규모 유통업체 및 청과메이저들의 국내 진출은 국내 농산물 유통산업의 외국자본에 의한 잠식을 뜻한다. 국내유통업체에 비해 자본력, 판매기법 등에서 월등한 이들 조직에 의해 외국농산물의 수입 및 대량유통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미흡할 경우, 국내농산물 생산 및 유통부문의 축소가 더욱 더 촉진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출범은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의 문호도 보다 더 확대됨을 의미한다. 이는 곧 지금까지 국내에 머물던 유통의 시각을 해외까지 넓혀야 됨을 뜻한다. 외국인의 관점에서 기존 수출품목에 대한 새로운 점검은 물론 해외 틈새시장(Niche Market)을 겨냥한 신규 수출전략 품목의 개발 등이 요구된다. 수출대상국 소비자의 기호에 걸맞은 농산물의 생산은 말할 것도 없고, 선별 및 포장, 신선도 유지 및 수송방법, 해외시장에서 판매방법 및 홍보수단 등에 대한 세밀한 연구 및 선택이 요청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국내의 농업 생산자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통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유통 기제의 모색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한국 농업을 지배해왔던 대량생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 식량 증산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농업 정책은 세계화의 파고 속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량생산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화학적 투입재의 대량투여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의 건강

을 치명적인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의 산물을 양적 개념으로서의 ‘식량’이 아니라 질적 개념을 강조한 ‘먹거리’로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소비자의 건강과 농민의 경제적 지속성을 보장하면서, 세계화 물결로 밀려드는 초국적 자본에 의해 조직된 외국 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지역적 인접성(proximity)을 갖춘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식단 전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익명적인 시장기제의 침식에 서부터 보호하여 보다 평등하며 참여적인 대안적 시장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3.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역사와 구조

한국에서도 소득이 증가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웰빙’(well-being)이 언론에 의해 ‘과잉’이 이슈화되면서 유기농과 같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생산자와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일이지만, 그 역사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와 관련하여 박현태·강창용·정은미(2000)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표 2>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표 2>에 따르면, 이들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1980년대 중반 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이 시

〈표-2〉 친환경농산물 유통 형태의 전개과정

	시 기	유통주체의 성격	유통 형태	주요 단체
태동 단계	1980년대 중반 이전	경제적 측면   사회운동적 측면	- 조직화·규모화되지 못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	정농회, 유기농업협회, 산안회 등의 직거래
확대 단계	80년대 후반 ~ 90년대 전반	경제적 측면 = 사회운동적 측면	- 생산자·소비자 조직간의 직거래 - 전문취급점 등장	한살림, 여성민우회, 지역/직장생협, 유기농업협회 유통본부, 풀무원 등
다양화 단계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적 측면 > 사회운동적 측면	- 다양한 유통경로 (직거래, 납품, 직영, 전문매장 등)	생협연대, 농협유기농산물 판매장, 새농유통, 학사농장, 한사랑작목반, 녹미촌, 환경농업협회 등

출처 : 박현태 · 강창용 · 정은미(2000)

기를 '태동기'로 볼 수 있다. 이때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경제적 이익보다는 사회운동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특히 정농회의 역할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먹거리를 매개로 한 대안 사회의 모색 노력이 경주되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녹색혁명과 소위 '관행농법'의 강요는 농촌의 환경적 황폐화를 초래하였고, 농민들은 농약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76년 한국 최초의 유기농업자 단체인 정농회가 결성되었다. 정농회는 일본의 유기농 단체인 애농회의 창립자 고다니 준이치의 강의를 듣고, 생명가치를 중심으로 시작된 유기농 단체이다(원경선, 1998). 정농회는 기독교적 소명의식, 공동체 의식, 생명가치를 중시하는 바른 농업을 강령으로 하는 일종의 '문명비판운동'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억압적인 정치구조 속에서 정농회 등의 활동은 단

일 공동체 중심의 운동이었고, 농촌지역의 운동을 지역이나 주체의 면에서 한계를 지녔다(김윤필, 1999).

1980년의 농약 콩나물 사건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시민들은 ‘안전한 식품’, ‘무공해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구조 속에서 정농회는 나름대로 새로운 씨앗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정농회의 주역이었던 원경선씨의 아들인 원혜영씨가 1984년 풀무원식품(주)를 설립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자본과 경영에 있어 전혀 무관한 풀무원과 정농회이지만, 풀무원의 출현에 있어 정농회의 정신과 인적 요소의 역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확대기’로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전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전성기로 할 수 있는데, 특히 중산층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이 팽창되었으며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사회의 공간이 확대되었다(김철규, 2003). 이에 따라 중산층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통량 및 생산주체도 증가하였다(박현태·강창용·정은미, 2000: 17). 유통주체들은 초기의 사회운동적 성격을 유지하되, 적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의 주요 주체로는 앞에서 언급된 풀무원, 한살림, 여성민우회, 지역생협 등이다.

한살림은 70년대 재야운동가, 농민운동가, 지식인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조직으로 평등주의, 생명사상, 비폭력 실천 등의 이념을 명료화시킨 장일순의 역할이 컸다. 장일순의 이념은 박재일에 의해 생협이라는 구체적인 조직으로 가시화되었다. 박재일은 자본주의 시장관계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기체이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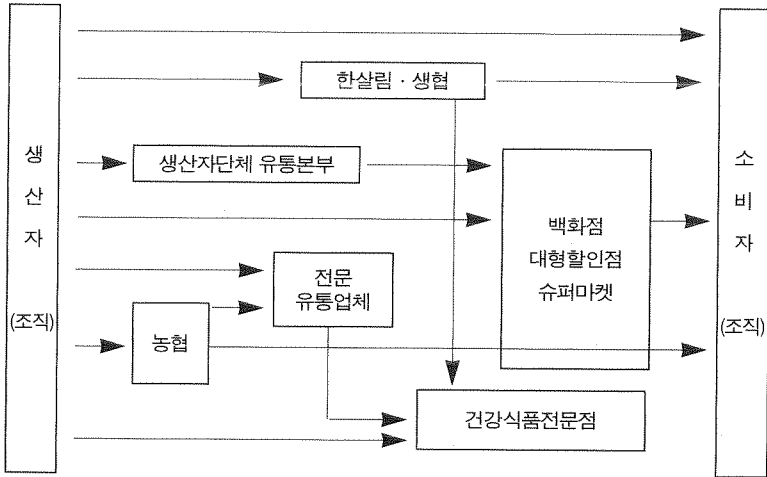
는 기제라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생명가치를 지닌 유기농산물의 계획 생산과 계획적인 공동구입이라는 도농직거래를 통한 공동체운동을 제시하게 되었다. 즉,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책임지고,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한살림의 모토가 탄생하였던 것이다. 1985년 원주소비자생협으로 출발해서 1986년 한살림농산을 거쳐 드디어 1988년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이 출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김윤필, 1999).

세 번째 시기는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다양화’ 단계이다. 이때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에 있어 사회운동의 의미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이 급증하고, 다양한 유통주체가 형성되었다.

친환경농업 생산자와 생산단지의 확대에 따라 이들이 적극적으로 판로확보에 나서면서 직접 유통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서울시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내 유기농 육성 지원에 힘입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고자 설립된 유통업체 (주)새농유통이 대표적이다. 새농유통은 대량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여 안정적으로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경로에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생협, 농협, 건강식품전문점 등이 참여하고 있고, 이들의 개입을 통해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그림2〉 참조). 1980년대에 비해 유통경로가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친환경농산물의 시장이 커지고 참여주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건강, 이용의 편이성, 사회운동에 대한 참여 등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다.

〈그림-2〉 친환경 농산물 유통경로



출처: 박현대 · 강창용 · 정은미, 2000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입처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1996년과 1999년에 각기 다른 연구자들이 조사한 친환경농산물 구입처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보자. 〈표3〉은 각각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된 조사결과를 비교한 것이기에, 완벽한 비교성(comparability)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산물 구입처에 관한 일반적인 경향을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몇 가지 점들이 눈에 띈다. 첫째, 농협 판매장, 백화점, 슈퍼마켓 등이 지배적인 구입처라고 하는 사실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생산자·소비자단체를 통한 구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평이성이 구매처 선택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보여준다.

〈표 3〉이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구입처들을 크게 두 가지로 ‘시장

〈표-3〉 친환경농산물 구입처 (단위: %)

구분	1996	1999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8,8	8,3
생산자·소비자단체를 통해서	12,5	11,2
환경농산물 전문 매장	8,1	7,6
농협 판매장	-	30,2
백화점 식품 매장	45,9	23,6
수퍼마켓 등	24,7	19,1
합계	100	100

자료: 서종혁의 (1996); 강창용·정은미(1999)

형' 과 '사회관계형' 으로 구별할 수 있다. 시장형이라 함은 유통주체가 친환경농산물을 단순히 '건강' 이나 '안전' 이라는 상징을 포함한 농산품을 생산자로부터 구입하고 소비자에게 이윤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이다. 시장형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들 간의 관계는 사상되며, 친환경농산물의 건강 가치는 유통주체의 브랜드 평판에 의해 보장된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은 모두 이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사회관계형' 은 생산자와 소비자들간의 비익명적 관계를 가능하면 극복하려 하고, 도시와 농촌, 농민과 도시인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신뢰를 유통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다. 따라서 친환경 먹거리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농민들의 생명 양육의 결과이며, 도시 소비자들에게는 생명과 건강을 위한 선물이다. 직거래와 생협을 비롯한 생산자·소비자 단체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구입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들 두 유형은 분석을 위

한 극단적인 이념형(ideal type)들로 실제의 여러 유통조직들은 이 유형의 스펙트럼상의 어느 곳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형’의 대표적인 유통 주체인 대형매장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유통은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거래효율성’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병서·위태석(2003)의 조사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친환경농산물의 구입비율은 전체 농산물 매출액기준으로 채소의 경우 15.1%, 과일은 7.4%정도라고 한다. 그리고 채소는 유기 및 무농약재배품이 중점적으로, 과일은 저농약 재배품이 중점적으로 취급된다.

생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관계형’ 유통 모델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상호 교류와 신뢰가 강조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농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는 약 1,500억 원 정도, 그리고 이 가운데 직거래가 약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 4. 사회관계형 유통: 생활협동조합의 현실과 가능성

### 1) 생협의 정신과 특징

생활협동조합은 안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관계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그리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저가격 오염 농산물에 대한 자기 방어 운동으로서 1980년대 중반에 태동했다. 생활협동운동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밑에서부터 뒤흔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명적인

운동이었다. 기존의 사회운동이 남성인 직장인(=노동자) 중심이었던 데 반해(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많은 정치운동, 노동운동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협운동은 생활자 - 결과적으로는 전업주부인 여성 - 를 운동의 주체로 전면에 내세웠다.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의 피동적 소비자로밖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들을, 의식 있는 개인으로서의 고유명사로 전면에 부각시켰던 것이다.

또한 생협운동은, 산업화 과정이 한 인간에 대해 행해왔던 끊임없는 개인화·개별화 과정을, 공동체속의 개인으로 재결합시키려 시도하였다.

생협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생활운동이었다. 먹거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씩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사업'은 다른 아닌 공동구입이라는 형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산업화와 시장의 세계화 과정은 생산물의 본래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만 몰두하였다. 인체나 환경에 어떠한 유해성이 가해지더라도, 전혀 생존이나 삶의 질과는 관계없더라도, 그것이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조작하여 왔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제적 가치(=교환가치)에 대해, 생협운동은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기하였다. 경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단지 생산이나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교환가치만이 아닌, 아니 오히려 하나의 생산물은 그 소비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는, 나아가 소비 과정을 통해 생산과 생산물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용가치의 중대성을 생협운동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생협이 그 취급 물품을 상품이라 하지 않고 생활재라 하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교

환가치 중심의 자기운동에 현혹됨이 없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가는 생활 소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협운동은, 생협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생협과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업화 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계론을 만들어 나갔다.

산업화 사회에서 개개인의 관계는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손' 인 시장안에서, 개인과 개인은 경쟁적이고 대립적일 수밖에 없으며, 생산과 소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장안에서 한 개인은 생산자이거나 소비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데, 어느 경우에서든 생산자는 생산자끼리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생협운동에서의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대립적 경쟁적이지 않다. 타자 안에 숨겨진 나와와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그 조직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조직화된 나와 타자와의 공통성, 즉 결집된 구매력을 통해 생산과 상품을 변화시켜간다. 나와 타자는 시장 안에서의 경쟁적·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정직과 공개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아가 사회적 책임으로 묶여진 관계이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아닌,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 내에서 생산과 소비는 익명성에 기초한 경쟁적 대립적 관계인데 반해, 생협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회복된 대면 관계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생협운동은 상품에 대해 생활계를 발견한, 산업화 사회에 대해 농업의 가치와 회생을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경제에 대해 생산과 소비의 대면 관계를 통해 협의(協議)의 경제를 회복해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에 의한, 새로운 사

회적(⇒동체적) 생태적 관계를 모색하는, 구체적 생활영역에서의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한마디로 생활자(⇒운동의 주체), 일상 생활(⇒운동의 영역), 생활재(⇒운동의 소재)로 구체화되는 ‘생활’의 재발견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협운동은, 서구의 소비협동조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특질을 지닌다. 서구 소비협동조합에서의 취급 물품은 구매력 결집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둔 또 하나의 상품인 반면, 우리나라의 생협에서 그것은 상품 자체의 변화에 좀 더 큰 중심이 가 있다. 서구 소비협동조합에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여전히 경쟁적·대립적인 관계인 데 반해, 우리나라 생협에서의 그것은 대면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합의의 시스템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서구 소비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과 조합원의 관계가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무명의 관계이고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에서의 조합원 참여가 공식적 의결 과정에서만 그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 우리나라 생협에서의 그것은 직접적 대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며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는 특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새롭게 태동한 일본의 생협운동이 지니는 특질을 더욱 철저히 구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주장’의 운동이, ‘대안적 시장의 마련’ 운동으로 발전한 경우인 것이다.

생활협동조합의 보다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고, 이들이 지닌 대안적 유통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생협을 이용하는 소비자들과 생협을 위해 생산하는 농민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sup>1)</sup> 여기에서는 생협 소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탐색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자.

---

1) 조사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사는 2004년 5월과 6월에 걸쳐 서울, 구로, 관악, 분당, 인천등 4곳의 생협을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는 생협을 이용하는 고객이었으며, 조사요원의 안내에 따른 자기기입 방식으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총 유효 응답자수는 206명이다.

## 2) 대안적 유통망으로서의 한국 생협 : 쟁점

### (가) 주체로서의 생협 이용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협의 주체는 기존의 구사회운동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생협은 노동자/남성 중심성과 노동/직장의 중심성을 벗어나 여성/생활인과 일상생활/건강이라는 이슈를 강력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생협의 이러한 패러다임적 전환은 오늘날 생협의 주요 이용자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다. 즉, 전체 응답자 206명 중 여성의 비율이 94.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여성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4〉 응답자 연령 분포

	빈도	퍼센트
20대	8	3.9
30대	103	50.0
40대	76	36.9
50대	15	7.3
60대 이상	4	1.9
합계	206	100.0

한편 연령 면에서는 30대의 비율이 50%를 차지했다(〈표 4〉 참조). 이들은 주로 가족들의 식단과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주부층이라

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아토피 등의 환경 질환은 친환경 식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30대 여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첫째는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의 생협 가입과 참여가 높은 점, 둘째로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 높아진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높아지면서 생협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있는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응답자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교육 자원 면에서 보면 전체 응답자의 74.3%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계층이 친환경농산물과 생협의 이념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생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이러한 평가는 부분적으로는 적절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다. <표 5>에 따르면 스스로 부유층에 속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8%였고, 대다수인 81.1%는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이는 생

<표-5> 생활 정도: 주관적 평가와 실제 소득분포

계층	빈도	비율	월소득	빈도	비율
부유층	14	6.8	500만원 이상	29	14.1
중산층	167	81.1	300~500만원	80	38.8
서민층	23	11.2	100~300만원	90	43.7
하층	2	1.0	100만원 미만	6	2.9
무응답	0	0	무응답	1	0.5
합계	206	100.0	합계	206	100.0

협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꼭 상층에 제한된 것이 아니며, 생협이 제시하는 이념에 대한 동조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같은 같은 표의 우측에는 실제 소득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 중 월소득이 100~300만원 정도인 사람들의 비율이 43.7%나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생협 이용이 꼭 소득이나 경제적 지위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현재 생협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은 전문 대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중산층의 30대 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하겠다는 개인적 욕구 때문에, 그리고 생협의 이념에 대한 지지를 위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일반 매장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편이성이나 접근성에서 더 유리한 시장이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생협에 일정한 헌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더 깊이 논의하겠다.

#### (나) 생협 이용자들의 의미 부여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협은 사용가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연대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협의 정신이 이용자들에게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들의 생협에 대한 의미 부여에 대해 검토해보자. 이와 관련해서 연구자들은 생협에 가입한 동기와 생협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했다.

〈표 6〉이 보여주듯,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인 107명이 생협 가입 이유를 ‘안전한 먹을거리 구입’으로 꼽았다. 또한 22.3%가 ‘품질좋은 먹을거리’라고 답함으로써 오늘날 식품과 관련된 심각한 위험에 대한 생

〈표-6〉 생협 가입이유

	빈도	퍼센트
품질좋은 먹을거리 구입	46	22.3
값싼 먹을거리 구입	1	.5
안전한 먹을거리 구입	107	51.9
먹거리 운동·환경운동 관심	33	16.0
생협운동 이념 공감	9	4.4
기타	5	2.4
무응답	5	2.4
합계	206	100.0

협 이용자들의 우려를 반영한다.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올바른 먹을거리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전체 응답자의 16%가 먹거리·환경운동에 대한 관심, 4.4%가 생협운동에 대한 이념적 공감이라고 답한 것은 생협 이용자의 ‘운동적 관심’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생협이 먹거리를 중심으로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와 연대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먹거리에 대한 생협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은 근본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는 장거리 운송을 거쳐 수입되고,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수입농산물이나 국내의 대량생산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 농산물을 넘어서실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운동적 관심은 시장을 넘어서는 대안적 유통망의 재구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표-7〉 생협에서 농산물 구입하는 이유

	빈도	퍼센트
본인, 가족 건강	191	92.7
생협 발전	2	1.0
삶의 질 향상	7	3.4
기타	6	2.9
합계	206	100.0

〈표 7〉은 응답자들이 생협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질문한 것이다. 역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인과 가족의 건강으로, 90% 이상이 이를 꼽았다. 생협이 제공하는 농산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큰 기대 및 신뢰, 그리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생협에 대한 신뢰는 ‘식품 위험’이 높아지는 오늘날 대안 유통체계의 모색에 중요한 자원이다. 대형매장이나 슈퍼마켓들이 주로 각 매장명이 지닌 인지도를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비해, 생협은 자신들이 지닌 긴 역사와 운동의 일부로 갖추게 된 도덕성과 책임성을 적극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생협의 안전성과 편리성: 그 딜레마

앞에서 살펴보았듯 일반적으로 생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한 농산물의 구입을 통한 건강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제

생협이 농산물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생협은 다른 대형매장에 비해 편리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도 함께 조사한 것이 다음의 <표 8>이다. 생협 이용자들은 생협에서 구입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총 응답자의 60% 정도가 매우 안전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단지 1% 정도만이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한편 편리성에 대해서는 3.9%가 매우 낮다고 응답하고, 28.2%가 약간 낮다고 답해, 생협 농산물 구입에 있어서 불편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60% 이상이 편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질문 항목이 농산물로 제한되었다는 점과 응답자들의 생협 충성도가 높다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8> 생협 농산물의 안전성과 편리성

	안전성		편리성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매우 낮음	1	0.5	8	3.9
약간 낮음	1	0.5	58	28.2
약간 높음	78	37.9	82	39.8
매우 높음	123	59.7	47	22.8
무응답	3	1.5	11	5.3
합계	206	100.0	206	100.0

**(라) 조합원들의 '비시장적' 활동: 사회적 연대의 자원**

생협은 단순한 시장과는 다르다. 생협의 이념과 그 활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생협을 그저 '웰빙'(well-being)을 팔고 사는 일반 친환경농산물 매장과 구별짓는 요인이다. 생협 이용자들은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더불어 그것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비교적 높은 의식을 갖고 있으며, 시장적 활동 이외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시장적 활동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가 생협을 포드주의적 유통을 넘어 대안 유통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생협 소비자들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약 30% 정도가 단순한 구매활동 이외의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총회 참석율은 31.4%, 강연회 등 교육활동에는 32.1%, 그리고 생산자들과의 교류에는 29.3%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비시장적 활동에의 참여 정도는 생협에 대한 헌신도를 반영한다. 30%에 머무르는 이 헌신도는 낮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바쁘고 익명적인 도시 생활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가

〈표-9〉 조합원들의 생협 행사 참여율 (%)

	조합원 총회		교육 활동		생산자와 교류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있다	58	31.4	61	32.1	58	29.3
없다	127	68.6	129	67.9	140	70.7
합계	185	100.0	190	100.0	198	100.0

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생산자와의 교류에 참여한 58인 가운데 과반수인 32명은 생산자인 농민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농산물 생산과정이나 농촌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고 답했다. 도시 소비자들은 생협을 통한 생산자와의 교류를 통해 농민과 농촌을 학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일반적인 유통 경로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구입에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어떻게 극대화하고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생협의 과제이다.

#### (마) 생협의 성격과 방향: 이용자들의 시각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생협은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가는 운동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생협의 이용자들이 생협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며, 어떤 미래를 꿈꾸는가 하는 것일 것이다. 회원들의 참여와 비전이야말로 풀뿌리적인 대안 유통에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협 이용자들이 생협을 어떤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표 10>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대다수인 65.5%가 생협을 ‘건강을 지키기 위한 먹거리운동’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역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포드주의적 유통체계가 공급하는 위험한 식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은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업운동’으로, 18.4%가 선택했다. 비록 생협 이용자들은 도시의 거주인들이지만 농산물의 생산자인 농민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제대로 된 조직화와 동원화전략을 활용한다면 생협이 도시인들과 농민들의 새로운 연대의 교차점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협의 방향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생협의 현재에 대한 평가와 유사했다. 다만 응답자가 전혀 없던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지역운동’이 3.4%, 그리고 ‘잘못된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활운동’이 5.8% 등장한 것은 관심거리이다. 이에 대해서는 좀더 엄밀한 분석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빈도수가 적어서 다소 위험한 추론이긴 하지만, 이 두 변화를 근거로 대량생산·대량소비, 대량폐기적이고 익명적인 도시생활양식을 넘어서고, 도시에서 새로운 형태의 지역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응답자들의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10〉 이용자들의 생협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운동방향

	현재 생협 평가		미래 생협 방향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업운동	38	18.4	41	19.9
건강을 지키기 위한 먹거리운동	135	65.5	127	61.7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	14	6.8	7	3.4
공동체적 협동 운동	19	7.3	11	5.3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 지역운동	0	0	7	3.4
잘못된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활운동	0	0	12	5.8
무응답	0	0	1	0.5
합계	206	100	206	100

## 5. 결론

이상에서 포드주의적 유통체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대안적 유통망의 단초로서 생협의 역사, 특징,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수도권 지역 생협 회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생협이 대안 유통으로 발전하기 위해 검토되고, 고민해야 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비록 그 정신과 회원들의 헌신 및 참여에도 불구하고, 생협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첫째, 생협의 영세성이다. 백화점이나 여타 대형매장에 비해 자본력이 약한 까닭으로 생협은 대개 매장이 협소하고,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다른 대형매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생협의 접근성과 편리성 문제이다. 생협은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접근성이 낮다. 따라서 특별한 관심과 시간을 할당하지 않으면 생협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매장 내의 물건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다른 대형매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편리성에 있어서의 불리한 점이 이용자의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생협의 계층성이다.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생협 이용자들은 일반적으로 고등교육 및 중산층 이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떻게 생협을 보다 보편적인 소비와 참여의 장으로 발전시킬 것인가가 큰 과제이다. 생협의 이상적인 이념과 비전의 확산을 위해서는 일단 이용자들을 생협의 문턱 안으로 끌어들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가격의 문제이다. 일반 농식품에 비해 유기농식품이 가격이 높고, 이것이 특정 계층을 포함시키거나 배제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또

웰빙 붐을 탄 일종의 ‘건강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대형업체들의 적극적 시장 공략이 예상된다. 앞으로 도시·농촌 연대가 과연 더욱 확장되고, 이를 통해 농민의 경제를 살리고, 도시인들의 건강을 살리고, 사회전반의 ‘상업화’ 경향의 심화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더욱 절실하다.

포드주의적 식품 체계는 대량의 농업 원자재를 투입하여 동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를 대량 운송 시스템을 통해 이동시킨다. 도시에는 이렇게 생산된 농식품을 소비하는 대규모의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도시인들은 시장이 제공하는 익명적 상품을 구입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농민은 농민들대로, 도시인들은 도시인들대로 거대 자본과 비익명적 시장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은 황폐해진 환경과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 속에서 신음하게 되었으며, 도시 소비자들은 ‘화학적’ 식품과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의 농산물로 심각한 건강 상의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도시인과 농민 모두 생존과 재생산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역설적으로 기존의 농식품 체계를 지탱하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직성과 유통 구조의 획일화에 대한 문제 제기를 낳고 있다. 건강(health)과 농식품의 안전(safety)에 대한 관심이 그 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는 새로운 기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산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 마켓들도 적극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시장에 진출하고,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적 접근과 개인적 웰빙의 강조는 포드주의적 유통이 지닌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도시인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소비자로 남아, 거대자본과 기업의 횡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적인 유통 경로의 적극적인 개발이 시급하다.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운동, 종교 단체의 직거래운동, 생활협동조합운동, 주민단체 주도의 직거래 운동 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통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유통은 경영학적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대안 유통은 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인과 농민의 이분법을 넘어서고, 서로 소통하며 상호적 ‘신뢰’(trust)와 ‘참여’(participation)를 포함해야 한다. 한편으로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당연한 개인적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친환경 농산물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 유통 운동도 농산물을 통한 먹거리 운동이며 동시에 연대적 농촌운동이며, 생활운동이며, 지역운동인 것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생산자, 도시주민, 그리고 생협의 역할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한다.



# 2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대안 생산체계의 모색



# 친환경농업의 활성화와 대안 생산체계의 모색

김흥주 (재단법인 한국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 1. 머리말

개방화·국제화 바람이 거세지고, WTO 체제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면서 한국 농업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도 결과적으로 농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외부 환경도 문제지만 내부의 생산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농가부채의 급증과 농산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농민의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토지이용의 제한이 풀리면서 도시 자본의 급속한 농촌 잠식으로 농업 생산기반이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구조개선정책을 추진하고,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논리 중심의 생산과 유통시스



템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동안 우리 농정에 대한 비판은 여러 각도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을 보면 지나치게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지상주의에 매달리고 있다. 농정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질 수는 없다. 효율성 없는 형평성도 없고, 형평성 없는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정은 그 동안 '투자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위적 '선택'에 의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농가들 중에서도 영세소농이나 고령농 등은 경영포기를 종용하고, 이들의 농지를 전업농에게 모아주어 규모화를 이루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가에게 자본집약적 시설 농업을 유인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른바 20%의 '경쟁력 있는' 농가를 위해 80%의 농가를 포기한 것이며, 이러한 구조조정의 이면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외면하는 자본과 정치의 평면적 농업 인식이 숨겨져 있었다<sup>1)</sup>.

이런 점에서 최근 새로운 농정의 틀을 짜면서 '형평의 논리'에 의한 가족농 육성과 '비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점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농 정책은 '소수의 농가'에서 '다수의 농가'를 정책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친환경농업정책은 경쟁력 지상주의에서 농업의 환경적 함의와 비교역적 기능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농 정책이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고 있듯이(김홍주, 2000), 친환경농업 또한 대안 생산체계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첫째, 집약적이고 환경 약탈적인 농업 생산 방식

1) 농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극히 '자명한' 논리이다. "논 20만평에 절단 공장을 세워 상품을 수출하면 쌀을 충분히 사먹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축소되어야 한다"(한겨레신문, 1993년 12월)는 당시 전경련 회장의 언급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

과 작목의 확산으로 인한 물질 순환 체계의 불균형과 구조적 환경오염 문제에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농지가 무분별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도시용으로 전용됨에 따라 농촌경관의 파괴, 환경오염과 홍수 등의 재해 유발과 도시 과밀화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고 산촌과 같은 인구 과소 지역 농지의 폐경화와 농촌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이 없다. 셋째, 환경 규제지역에 대한 친환경 직접지불제의 경우는 지역의 기후와 토양과 경사도 등의 자연조건과 품목별 조건의 차이를 두지 않고 단일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유인 효과가 미비하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넷째, 환경농업정책을 전체 농업정책과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비전이 없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기존의 관행농업과 연관되는 사회체계나 생활양식(소비포함)이 유지되는 한 친환경농업은 주변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상품화 과정을 통해 관행농업의 시장논리에 포섭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친환경농업에서 벌써 발견되고 있다. 최근 풀무원의 유기농 녹즙이 농약과 화학비료를 써서 재배한 일반 채소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보도(KBS, 2004. 10. 25)가 이를 잘 말해준다.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관행농업을 대신한 대안농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생산체계의 근본적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는 유통체계의 모색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뢰와 공동체성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생산과 소비의 분리를 통한 시장효율성 강화라는 근대성의 논리로는 새로운 생산체계의 구축이 불가능하다. 최근 소비자는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더 많은 생산정보와 신뢰할만한 유통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먹거리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도 건강을 위해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소비자 욕구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며, 더 많은 돈을 내는 멘탈리티”(expect more pay more mentality)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이제 농민은 생산만 하고 유통을 다른 수단에 맡긴다면 소비자는 신뢰하지 않는다. 생산과 유통을 하나의 시스템 속에 묶으면서, 이 과정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며, 소비자도 생산과 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과 유통모델의 정립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적 생산체계의 특징과 구축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친환경농업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진단해보고, 생산자 조직의 특성과 생산자의 의식과 가치를 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면서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대안 생산체계의 특징

소비자 중심의 생산체제의 구축은 기존의 관행농업 패러다임에서 대안농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서 시작될 수 있다. 대안농업(alternative agriculture)은 기존의 거대 농기업,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포드주의 생산, 거대 유통자본 등의 욕구에 맞추기보다는 식품안전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비·생산의 사회적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의 상생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생산의 목적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생산자는 식품 생산에 대해 ‘생산공정 관리·기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며, 소비자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며, 나아가 생산 과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욕구에 맞는 농산물을 만들어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대안 생산체계’이다.

〈표-1〉 관행농업과 대안농업의 측정지표

관행농업 측정지표	대안농업 측정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적 생산성이 위협받는다 하더라도 연 간이 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농경지를 활용한다</li> <li>- 이윤이 생기는 한 에너지 투입은 많이 하 여야 한다</li> <li>- 농학자나 정책담당자들은 식품공급을 늘 이기 위해 생명공학과 같은 기술혁신에 노 력한다</li> <li>- 충분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비료 와 살충제를 써야 한다</li> <li>- 현대농업은 생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문제가 있더라도 환경기술로 보완할 수 있 다</li> <li>-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자연의 한계를 극복 하고,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li> <li>-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는 전국 및 국제무 역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li> <li>- 가능하면 더 효율적인 기계와 기술을 많이 사용하여 농업노동을 줄여가야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성과 이윤이 낮아지더라도 장기적 생 산능력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농경지를 활 용한다</li> <li>- 에너지를 많이 쓰는 농업은 위험하므로 피 해야 한다</li> <li>- 농학자나 정책담당자들은 자연의 능력에 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순환력에 순응해 야 한다</li> <li>- 천연에서 나온 비료와 퇴비, 윤작, 생물학 적 방제와 같은 생산방식을 써야 한다</li> <li>- 현대농업은 생태파괴적으므로 생산체계 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생태계와 하나가 되 어야 한다</li> <li>-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자연생태계를 배우고 자연과 조화롭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li> <li>-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는 지역이나 지방 단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li> <li>- 기술은 노동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지만 노동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li> </ul>

자료 : Beus and Dunlap(1991)

시장경제와 개발이 핵심인 시대에서 공동체와 생태 중심의 시대로 변화하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듯이 관행농업 중심에서 환경농업/유기농업의 확산은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의 등장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에른스트 올리히 폰 바이츠제커, 1999). 때문에 대안적 생산 체계는 이전의 관행농업의 시스템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 체계는

농업의 구조라고 하는 산업적 측면뿐만 아니라 농촌에서의 생활양식과 문화, 농촌공동체 등까지 포괄하는 거시적 흐름의 변화를 포함한다. 아울러 지역에서 소규모로 자립적이고 자연친화적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준화·획일화·대량화를 추구하는 세계화된 농업과 분명히 대립된다.

이러한 대안 생산방식은 외국 사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그들만의 농업모델로 생산농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있다. 이 모델은 유럽농업의 3대 장점인 농산물의 안전성(safety), 우수한 품질(quality), 다양성(diversity)을 강조해 비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일정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와 다양한 형태의 직거래를 통해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특히 역내 모든 농산물에 대한 완벽한 추적시스템(traceability)을 구비하여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유통 경로에 대한 '신뢰'를 주고, 소비자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산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농업 붕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위 '식(食)과 농(農)의 재생플랜'이라는 농정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 플랜의 핵심은 '소비자 중심의 농정으로의 전환', 즉 소비를 출발점으로 보고 생산·유통·가공 등의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자국의 농산물 소비를 늘려나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 가격시장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소비자의 신뢰가 없는 농산물 생산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안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한 일본 농민의 노력은 대단하다. 일례로 유기농산물 생산자 조직인 '유기농회'는 생산자가 직접 농산물을 분류하고 직접 회원 가정에 배달하는 직거래 방식을 철저하게 고집한다. 유통과정에서의 신뢰 상실을 우려한 것이

며, 생산체계의 주체가 농민이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안 생산체계의 지속성과 신뢰성 확보는 유기농산물의 철저한 관리와 인증시스템의 제도화·표준화와 철저한 관리에 달려있다. 때문에 대안을 만들어가려는 국제적 흐름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유럽을 배경으로 한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 IFOAM)과 같은 민간 유기농업단체는 그 동안 자신의 기준에 따라 회원이 생산한 신선농산물, 가공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환경농업, 유기농업의 자체 표준화를 이루어 왔다. OECD는 1980년대 후반부터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농업환경지표(agricultural environment indicators, AEIs)를 개발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농업생산의 체계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농산물의 규격화를 위한 노력들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조직으로 출범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가 2001년 유기농축산물 가이드라인을 통과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규범이 만들어지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소비자와의 신뢰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인 것이며, 대안 생산체계가 관행농업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IFOAM, 2002).

이런 사례를 검토해볼 때, 우리에게 적합한 대안 생산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의 내용이 충족될 필요가 있다.

첫째, 생산의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식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산물이 어디

에서 어떻게 재배됐는지 포장지에 공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발원지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산정보 공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수단이자 생산자에게도 상품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생산과 유통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농업재생 플랜'의 핵심으로 생산공정 관리·기록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식품의 생산·가공·유통 경로와 공정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유통 라인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도 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후대책까지 마련하는 한편, 역외로부터 위험 농산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면 위험하다”는 철저한 예방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국제적인 규범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안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생산의 사회적 신뢰가 필요하다는 전제아래 생산정보 공개 시스템이 먼저 구비되어야 한다.

둘째, 농산물의 수익성 모색과 안정한 유통관로를 확보하기 위해 '고품질·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생산의 중심에는 유기농업 또는 환경농업이 있으며, 이는 여러 가지 농업여건을 고려할 때 개별 농가 차원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농업의 육성을 통해 소비자 욕구에 맞는 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생산, 나아가 공동체 생산의 모색이 필요하다.

물론 기존의 생산자 조직(작목반, 영농법인)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많은 연구는 지나친 경제논리와 경쟁구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되어 '쉽게 조직되고 쉽게 와해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김종숙, 1998). 이런 점에서 환경농업에 적합한 생산 조직, 즉 지역의 유기농업 체계(공동생산체계)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대안 생산체계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나아가 생산과 소비가 연결되는 생태공동체운동의 특성과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태공동체란 생활공동체 혹은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생태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고, 지역행정과 지역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도시와 농촌을 하나로 묶어 상호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생활 운동, 생명 운동, 풀뿌리 운동이다. 바로 인간의 삶과 자연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 그리고 인간이 참다운 삶을 찾고 실천하는 운동이다.

셋째, 대안 생산체계의 핵심은 소비자와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이며,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지속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산물의 안전성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국제적 유기농산물 인증기관인 IFORM이나 CODEX의 취지와 활동상황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때문에 생산과정 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친환경 농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인증제도의 정착은 대안 생산체계의 구축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안 생산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쿠바의 유기농업으로의 대전환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대량생산 중심의 포드주의 농업을 새로운 유기농업으로 전환시켜 글로벌 푸드시스템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의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쿠바는 80년대 말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연간 100만톤의 화학비료와 200만톤의 사료작물, 2만톤의 농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석유가 없어 농기계 사용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기

존의 포드주의 농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가 선택한 대안은 같은 사회주의 북한과는 달리 유기농업으로의 대전환이었다. 쿠바의 유기농업은 기존의 관행농업에 무농약·무비료 생산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소유구조에서 지역순환농업까지 생산과 소비의 틀을 완전히 바꾼 것이었다. 이를테면 사적 경영을 허용한 가족 농 중심의 토지개혁, 직거래 유통중심의 시장개혁, 지령이 퇴비 등을 이용한 흙 살리기 운동, 윤작·간작·휴경작 등 순환농업의 정착, 전통농업과 과학기술의 결합, 농민 중심의 공동체 복원과 지역농업 정착 등이 어우러져 대안 생산체계를 만들어 간 것이다. 이러한 쿠바의 노력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90년대 초 43%에 불과하던 식량자급률이 2002년 현재 100%를 넘어서고 있으며, 생산성도 초기 2년간은 일반 농업에 비해 뒤떨어졌으나 4년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해 현재는 일반 농업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수출도 호조를 이루어 전체 생산량의 30% 이상이 고가로 수출되고 있다.

이외의 국가들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최근 확정된 '2002 농업법'에서 환경보전보장 프로그램(conservation security program)을 신설하고 습지보전, 농지보전, 환경개선장려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172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1999년 제정된 '신농업기본법'에 의해 토지관리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농가와 국가가 계약을 맺어 환경친화적 농업경영을 준수하는 것에 대한 정부지원을 약속하는 상호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김창길·오세익, 2003).

### 3. 친환경농업의 현황과 전망

#### 1) 세계의 친환경농업

최근 세계적으로 소비자들의 식품안정성, 유전자변형식품(GMOs) 및 환경호르몬에 대한 불안 및 환경보건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화학비료·농약 등 합성물질의 사용을 금하고 있는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의 유기농업은 생산성 위주의 근대 농법에 따른 토양악화 문제에 대한 지력유지책으로 1940년대 태동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관심은 미국의 경우 식품의 농약잔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1960~70년대로 볼 수 있고, 유럽의 경우는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에 따른 환경과피 문제와 과잉농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1970~80년대로 볼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잔류농약문제에 따른 식품의 안전성 문제와 화학적 투입재에 의존하는 농업생산의 환경악화 문제가 제기된 1980~90년대에 접어들면서 유기농업에 대해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가장 많은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미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유럽연합 나라들에서는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1986~1996년 사이에 해마다 30%씩 증가하여 왔으며, 미국은 1990년대 동안 공인된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이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Stehli, 2001)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강렬한 욕구’라는 사회적인 이슈에 대응하여 농업부문의 새로운 돌파구로 부각된 유기농산물의 세계적인 주요생산국은 유럽과 미국 등으로 지난 10년간 매년 2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생산증가 추세에 따라 세계 유기농산물 시장에서의 무역거래액은 140~170억달러(2000년 기준)에 달하며, 전체 식품 거래액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기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47%, 유럽이 42%, 일본이 11% 정도를 차

〈표-2〉 세계 각국의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2002년)

	면적 (ha)	총재배면적중 비율(%)
오스트레일리아	10,500,000	2.31
아르헨티나	3,192,000	1.89
영국	679,631	3.96
독일	632,165	3.70
이탈리아	1,230,000	7.94
프랑스	419,750	1.40
네델란드	38,000	1.94
벨기에	22,410	1.61
오스트리아	285,500	11.30
스위스	102,999	9.70
덴마크	174,600	6.51
스웨덴	193,611	6.30
미국	950,000	0.23
일본	5,083	0.10

자료 : Yussefi and Willer(2003); 허장(2003)에서 재인용

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OECD, 2002).

친환경농업의 성장 배경에는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강렬한 욕구 이외에도 농업의 세계화 경향에서 소외된 자국 농업을 특화시켜

유지·발전시키려는 정책적 지원도 큰 몫을 한다. 개별 나라에서는 독특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덴마크는 '유기농업 행동계획'에 따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약과 비료사용량에 따라 1998년부터 농약세와 질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제정된 '신농업기본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 농업경영에 대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약속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일본은 1994년 '환경보전형농업추진본부'에서 UR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보전형 농업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였다. 제1단계(~1993)에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 사례가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형성되고, 제2단계(1994~1998)에는 실천 사례가 각지에서 증가하고 사업이 확대되어, 제3단계(1999~)부터는 환경보전형 농업의 실천사례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 힘입어 가령 미국의 경우 유기농산물 판매액은 현재의 1% 정도에서 2010년경에는 1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독일은 전체 농가에서 유기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2.6% 수준에서 2010년에는 20% 정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유기농산물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어 1996년 1500억엔에서 2000년 3500억엔으로 확대되었으며, 수년내에 1조억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김창길·김정호, 2002: 35)

## 2) 한국의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은 보통 농업과 환경의 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유도해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도 동

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지향이나 농법, 생산자의 의식차원에서 정부 규정의 친환경농업과 민간 규정의 '유기농업' 과는 차이가 있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을 크게 유기농업(Organic Agriculture)과 저투입농업(Low Input Sustainable Agriculture)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유기농업은 화학비료·유기합성농약, 사료첨가제 등 합성화학물질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투입농업은 화학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는 농법으로 농약사용을 최소화하는 병해충종합관리와 토양과 작물의 양분 상태에 따라 적정시비를 하는 작물양분종합관리 등으로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전하는 농업 형태이다.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나 유기농업 운동단체들은 이를 기술로만 취급하지 않고 자연에 대한 관념, 자연·인간 관계에 대한 이념을 기술에 반영시키고자 한다. 나아가 농업 생산체계의 전환을 통해 사회체계나 생활양식의 전환을 꾀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단순히 농업기술의 전환이 아니라 대안농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운동단체의 '유기농업' 보다 제도적이고, 생산현황 자료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친환경농업' 을 중심으로 생산현황과 특징, 그리고 한계를 살펴본다.

친환경농업이 생산자조직 단위로 실천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다. 1960년대부터 공업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값싼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에 이루어 이러한 다투입·약탈적 농업 때문에 인체피해는 물론 먹거리의 안전성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대안농업으로 선각자를 중심으로 유기농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1976년 결성된 정농회는 일본 애농회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신앙인 30여명으로 출범하였다. 1978년에는 한국유기자연농연구회(현 한국유기농협회)가 창립되었다. 초기의 환경농업 참여자는 정부의 증산정책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냉대를 받음과 동시에 오늘날의 인증제도와 같은 가격 프리미엄 보장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상업화보다는 소비자 회원에 대한 직접 공급과 같은 유통형태로 근간을 유지하였고, 이념지향에 따라 유기농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 마디로 시장경제와는 분리된 일부분의 자급자족형 ‘이념농업’으로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이러던 유기농업은 80년대의 사회운동, 특히 환경운동과 결합되면서 민간 차원에서 새로운 확산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정치적 억압이 상대적으로 완화되면서 환경운동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삶의 질이나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유기농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전국 규모의 한살림(1986), 광주의 광록회(1987) 등이 유기농업과 직접 관련된 단체들이고 그밖에 생협이나 한국가톨릭농민회, 여성민우회 등 기존의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벌인다.

당시의 유기농업 실태에 대한 조사 자료가 많지 않아 전국적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추측된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의 1991년 조사에 의하면 전국에서 1,146호가 유기농업을 실시하고 있었고 면적은 510ha였다. 이중 화학비료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가가 25.5%, 화학비료만 쓰는 농가가 52.9%, 농약만 살포한 농가가 21.5%였다. 이는 재배상의 난점 때문에 농민들의 적응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농촌진흥청, 1993:1).

친환경농업이 한국농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한 것은 90



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 시기에 친환경농업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 것은 무엇보다 WTO 이후 가중되는 농산물 교역질서의 세계화 때문이다. 농업의 세계화로 물밑 듯이 물려오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안전하고 질이 높은 친환경농산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김성훈, 1995:38). 이외에도 점차 성숙해져 가는 시민들의 환경의식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런 사회적 관심이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이어지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90년대 후반부터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친환경농업육성정책을 추진해온 것이다. 1994년 12월 농림부에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고,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1997년에 「친환경농업육성법」을 마련하여 친환경농업육성의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1999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비료·농약의 적정사용 등 논의 친환경영농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논농업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다. 2001년 1월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01~’05)」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02년에는 농약·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한국 농업의 현실에서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농가와 생산량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정부에서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친환경정책을 농정의 목표로 삼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농가수와 생산량에 있어 매년 두 배에 가까운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3〉 품질인증 친환경 농산물의 재배 영역별 농가수 추이

구분	유기 재배		전환유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		합 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1994	21	65.6	-	-	11	34.4	-	-	32	100
1995	99	61.1	-	-	63	38.9	-	-	162	100
1996	164	20.5	-	-	239	30	395	49.5	798	100
1997	231	22.7	-	-	340	23.3	449	44.0	1,020	100
1998	270	28.0	-	-	377	39.1	318	32.9	965	100
1999	326	25.8	-	-	435	34.4	502	39.8	1,263	100
2000	256	14.5	-	-	1,060	43.3	1,035	42.2	2,451	100
2001	439	9.4	3		1,645	35.2	2,591	55.4	4,678	100
2002	877	7.4	628	5.3	4,084	34.3	6,303	53.0	11,892	100
2003.6	1,121	6.2	747	4.1	6,202	34.2	10,056	55.5	18,121	100
수입	5	100							5	100

자료 : 국립농산물 관리원 2003. 6

〈표-4〉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의 재배영역별 생산량 추이

구분	유기 재배		전환유기		무농약 재배		저농약 재배		합 계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호수	비율
1994	681	74.9	-	-	228	25.1	-	-	909	100
1995	1,682	82.2	-	-	365	17.8	-	-	2,047	100
1996	1,972	36.1	-	-	2,302	43.1	1,193	21.8	5,467	100
1997	3,006	27.2	-	-	4,893	44.2	3,159	28.6	11,058	100
1998	5,844	24.1	-	-	13,872	57.2	4,549	18.7	24,265	100
1999	7,619	28.5	-	-	12,130	45.3	7,005	26.2	26,574	100
2000	7,409	19.7	-	-	16,980	45.2	13,190	35.1	37,579	100
2001	10,625	12.2	45	-	32,274	37.0	44,334	50.8	87,279	100
2002	16,249	8.1	4,865	2.4	76,828	38.3	102,42	51.2	200,324	100
2003.6	10,992	8.8	2,704	2.1	41,667	33.3	69,913	55.8	125,276	100

자료 : 국립농산물 관리원 2003. 6

2003년 6월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 수는 18,121농가로 전체 농가의 1.6%에 해당한다. 이는 2000년 0.18%에 비하면 9배가 넘는 성장을 이룩한 셈이다. 친환경농업의 확대는 단지 쌀과 같은 곡류에 국한되지 않고 농업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준을 1999년으로 하고 2002년에 생산된 농산물들을 단순 비교하면 곡류의 경우 15배, 과실류의 경우 19배, 채소류의 경우 4.8배, 서류의 경우 6.3배, 특작류의 경우는 48배의 성장을 이루었다.

환경농업의 성장목표와 관련하여 정부는 2005년까지 99년 대비 농약·화학비료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5%대로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한 「유기농업육성 증장기 종합대책」에 따르면 전체농산물 대비 유기농산물 비중을 2001년 0.2%에서 2005년 0.5%, 201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소비자의 안전·건강 욕구, 사회적 웰빙 분위기, 농민의 가치지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은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정도는 재배면적, 참여농가, 판매액 등의 면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계속하여 농업부문의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친환경 농업이 곧 대안 생산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4. 친환경농업의 생산능가와 생산조직

### 1)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특징 - 생협 생산농가 조사분석<sup>2)</sup>

#### (가) 일반적 특성

새로운 사회운동 혹은 탈물질주의에 관하여 언급하는 학자들 가운데에는 높은 학력수준, 낮은 연령, 사무직 종사 등과 같은 사회적 특성이 보다 환경친화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가능성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Mertig and Dunlap, 2001).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일반 농가에 비해 비교적 젊은 층에 많고, 학력도 고졸 등 높은 편이라고 한다(이종성 외, 2002; 양원모·이철규, 2000; 박현태 외, 1999).

이러한 특징은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생협과 직거래하는 생산농가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다. 다음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학력의 경우 고졸 이상의 고학력이 83.6%에 이르며 이중에서 대졸 이상도 23.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고학력이 환경의식이나 환경농업 기술의 수용, 급격한 변화 등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의 경우도 주로 30대와 40대에 몰려 있어(평균 연령 44.8세) 젊은 층이 새로운 대안 농업에 주도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규모도 평균 4.12명으로 급격하게 해체되고 있는 일반 농가에 비해 비교적 양질의 재생산 기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조사 자료이기는 하지만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2) 이번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생협수도권연합회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200부를 발송한 가운데 수거된 질문지는 92개로 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는 2004년 5월에 이루어졌다.

〈표-5〉 응답자의 일반적 특징

	빈도(%)	비율(%)
〈학력〉		
국졸	8	8.8
중졸	7	7.7
고졸	43	47.3
전문대졸	12	13.2
대졸 이상	21	23.1
〈연령〉		
30-40세	36	39.1
40-50세	35	38.0
50-60세	16	17.4
60세 이상	5	5.4
〈가족규모〉		
1-2명	10	10.8
3-4명	53	57.6
5명 이상	29	20.7

농가는 비교적 젊고, 양질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학력이 높아 새로운 생산체계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식이 높은 생산능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들의 친환경농업 경작규모를 보면 평균 5,568평으로 비교적 대규모로 환경농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경작규모보다도 높은 것으로 환경농업을 위한 농지 임차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농업을 실시한 기간도 평균 6.91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환경농업에 종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생협과 직거래 하는 생산농가만을 조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6〉 경작규모와 경작기간 통계량

	규모(평)	기간(년)
평균	5568.65	6.91
중위수	4800.00	6.00
표준편차	4748.98	3.88
최소값	60	1
최대값	35000	18

이들의 생활수준도 일반 농가에 비해 높게 조사되었다. 농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을 조사한 결과 3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39.5%로 극심한 빈곤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일반 소농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대부분 친환경농업의 높은 기술수준과 고가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협 등 정부기관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이다. 〈표7〉에 나타난 바와 같이 4000만원 이상 부채를 지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63.3%였으며 부채가 없는 경우는 8.9%에 불과하였다. 부채 원인으로는 시설자금이 4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농자금 30.1%, 농기계구입자금 14.5% 순이었다. 이는 대부분 친환경농업을 위한 투입재로 사용된 것

〈표-7〉 농업수익과 농가부채

	빈도(명)	비율(%)
〈농업수익〉		
1500만원 미만	17	19.8
1500-3000만원	35	40.7
3000만원 이상	34	39.5
〈부채액수〉		
1000만원 미만	12	13.3
1000-4000만원	21	23.4
4000만원 이상	57	63.3

로 생활자금으로 인한 부채는 아닌 점이 특징이었다.

#### (나) 신념과 가치체계 : 인식과 실천

환경농업은 생태적 질서와 체계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농작물 생산과 가공방식을 바꿈으로써 기존의 관행농업과 맞서는, 나아가 현대문명과 기술로 인간과 자연사이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을 비판하는 하나의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Michelsen, 2001). 때문에 신념이나 가치지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진정한 대안체계로서 환경농업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생협이 생산농가 경우 환경농업에 대한 신념은 무엇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에 나타나듯이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인 소신 혹은 신념' 때문이라는 응답이 31.8%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신념을 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유기농업 운동단체의

접촉' 때문이라는 응답도 29.5%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발적 선택이 중요한 계기이지 정부의 권유나 경제적 수익성 때문에 선택하는 강제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은 이전의 관행농업에서 보여주는 기존의 강제 농정으로부터

〈표-8〉 친환경농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

	빈도(명)	비율(%)
주변 농민의 권유로	20	22.7
친환경농업 관련단체와 접촉 통해	26	29.5
경제적으로 수익성 높을 것 같아서	6	6.8
농약중독 등 관행농업의 피해 때문에	8	9.1
개인적인 소신 혹은 신념으로	28	31.8
합계	88	100.0

터 벗어나 어느 정도 자율적 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산농가의 신념이나 가치체계는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사회적·생태적 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다. 여기서 직거래의 의미는 경제학적 의미의 교환관계(교환가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계(사용가치 포함)의 형성과정이다. 사실 직거래를 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유통단계의 축소에 의한 가격안정 및 이윤확대 정도로만 이해된다, 하지만 사회관계론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구축의 과정, 나아가 도농 공동체 형성의 과정이 된다.

〈표-9〉 소비자와의 교류정도와 직거래의 필요성 인식

	빈도(명)	비율(%)
〈교류행사 참여여부〉		
참여한 적이 있다	64	71.9
참여한 적이 없다	25	28.1
〈직거래의 필요성〉		
필요하다	87	96.7
필요하지 않다	3	3.3

〈표-10〉 친환경농업 생산농가의 단체활동 여부

	적극 참여	참여하는 편	참여하지 않는 편	전혀 참여안함
농업인 단체	37.6	50.6	9.4	2.4
농민운동단체	26.3	37.5	23.8	12.5

때문에 대부분의 생산농가도 직거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전체의 96.7%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들어 직거래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교류 및 강도는 친환경농업이 대안적 패러다임의 농업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소비자와의 교류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표9〉에 나와 있듯이 소비자 단체가 주관하는 “소비자들과의 교류(간담회, 견학, 대보름 및 가을걷이 행사 등)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71.9%였으며, 그 횟수는 평균 2.63회였다. 교류행사에 대한 소감도 비교적 긍정적이어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욕

구'를 읽을 수 있었다는 응답과 서로의 신뢰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4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들 생산농가의 환경관련 의식도 아주 높은 편이었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보통 가격보다 20% 더 비싼 가격으로도 물건을 사겠다”는 항목에 전체 응답자의 96.6%에 찬성한다고 한 점이 이를 잘 증명해 준다. 또한 신념의 실천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표10>에 나타나듯이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업의 발전을 위한 운동단체의 활동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 (다) 친환경농산물의 미래 : 기대와 현실의 격차

친환경농업이 기존의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 농업이 되려면 최소한 관행농업 수준의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가치는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한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와 자연환경의 보전으로부터 발생되는 비시장적 가치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산과정의 어려움과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일반 농산물과 가격 차이는 필수적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유기농산물은 30% 이상의 가격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sup>3)</sup>. 이러한 가격 차별화는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의 실시,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등이 유지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생산농가의 조사에서도 자신의 농산물의 판매가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11>에 나와 있듯이 ‘만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3.0%에 이르고 있다.

3) 미국의 경우 한 매장의 사례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갖는 프리미엄이 평균 47.9%였고, 범위는 0-121%였다(FAO/ITC/CTA, 2001)

〈표-11〉 친환경농산물 판매가격에 대한 만족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	4	4.5
대체로 만족	61	68.5
불만족	23	25.8
매우 불만족	1	1.1
합계	89	100.0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친환경농업에 대한 신념과 가격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매우 비관적이라는 사실이다. 농업의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자녀나 주위 청년에 대한 이농의 권장여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62.8%가 “권장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는 응답자의 50% 이상이 “농업에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이러한 수치는 지난 2000년 기업형 시설농가에 대한 조사(김홍주, 2001: 101)에서 나타난 77.2%보다 줄어든 것이지만 신념에 따라 새로운 대안농업을 추구하는 이들에게서 절반 이상이 이농을 권유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대안농업으로서 친환경농업을 선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농업을 둘러싼 정치경제학적 조건에 대한 두려움이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진 듯 하다.

이러한 비관적 전망에 덧붙여 이들의 대안농업을 이어갈 재생산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지 못하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자신의 친환경농업을 이어 받을 후계자가 정해져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89.8%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 새로운 신념과 가치체계로 대안농업을 추구하고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 비교적 안정된 판매처와 판매

가격을 확보하고 있는 이들 농가의 후계구도가 확립되지 못한다는 사실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점이 우리 농업의 한계이자 친환경농업의 지속성에도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다.

〈표-12〉 우리 농업의 미래 인식

	일반농민(1994)	기업형 시설농(2001)	친환경농가(2004)
〈이농권장여부〉			
대체로 권장한다	80.4	77.2	62.8
될 수있으면 말린다	19.6	22.8	37.2
〈후계자 여부〉			
있다	5.6	8.2	10.2
없다	94.4	91.8	89.8

주 : 1994년과 2001년 자료는 김흥주(2001)를 참고할 것

## 2) 생산조직의 실태와 문제

### 가) 생산조직의 실태

친환경농업에서 생산자가 개별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조직화 되어 있느냐는 존재 형태는 대안 생산체계로서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조건이 된다. 친환경농산물의 개별적인 생산과 유통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지역순환농업으로서 조직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생산자의 조직화에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사회의 친환경농업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생산자가 개별화·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행농



업의 틈새시장 혹은 기껏해야 이중시장(dual market)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또한 생산과정의 상호감시와 협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기농산물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신뢰관계 구축에도 어려움이 있다. 대안 생산체계로서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산자의 조직화 정도를 파악하면 친환경농업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우리의 생산자 존재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생산공동체로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다. 이들 조직은 공동체 이념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강한 응집력과 조직력을 보여주며, 시장과는 완전히 별개인 자급형의 유기농업을 지향하고 있다. 생태이념으로 무장하고 있는 변산공동체가 대표적인 경우이며, 전국적 규모의 정농회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둘째, 영농법인이나 생협의 생산자회처럼 느슨한 형태의 조직화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팔당생명살림(유기농생산법인)이나 풀무생협의 유기농업 생산자회가 대표적이다. 셋째, 개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경우이다. 최근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농가나 생협의 개별 생산자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대표 조직의 특성을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정농회〉

정농회의 출발은 풀무원공동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1955년부터 원경선 씨를 중심으로 부천시 1만여평의 땅에서 풀무원 공동체는 시작됐다. 한마디로 전쟁 후 갈 곳 없는 이들이 굶어죽지 않기 위해 들어와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사는 그런 공동체였다. 못쓰는 쇠를 녹여 낫이나 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풀무’의 의미로서 다만 세상에 버려진 이들도 풀무의 도움만 있다면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

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서 풀무원은 출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참고로 풀무원공동체, 풀무원 등에 쓰고 있는 ‘풀무’라는 명칭은 당시 충남 홍성의 풀무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배울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 설립된 풀무학원에서 따온 것이다.

이런 공동체 생활을 기반으로 75년 일본의 ‘애농회’라는 단체에 영향을 받아 유기농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었고, 당시 고다니 준이치라는 사람의 강연회에 전국에서 많은 참석자들이 왔고, 강연회 후 즉석으로 유기농업을 지향하는 단체인 정농회를 만들게 되었다. 그 뒤 정농회는 전국에 9개 지회가 조직 되어 600여명의 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유기농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며, 회원들 간의 유기농에 대한 정보교류를 하면서, 눈에 떨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 유기농법을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부안지회와 한울생협, 장성지회와 한마음공동체, 팔당지회와 팔당생명살림연대, 홍성지회와 마을운동, 그리고 풀무학교와의 연대 등 각 지회마다 지역공동체적 모습으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정농회 외 많은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농회는 그 역사에 비해서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회원수 600명의 작은 단체이다. 그러한 이유로는 정농회라는 조직의 특성이 풀뿌리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데에 있다. 정농회의 주요 활동으로 일년에 한번 정기연수회 및 총회, 그리고 일년에 한번 신입회원 연수회가 있다. 또한 1년에 한번 회보와 생명역동농법 농사력을 발행하고 1년에 총 6차례 내 부소식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정농회는 환경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환경농산물 유통 쪽에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환경농업, 유기농업에 대한 내부연구, 내부 정보교환, 교육사업 위주의 활동이 주가 되고 있다. 즉, 환경농업, 유기농업에 관심 있는 생산자의 순수한 모임이

정농회라고 볼 수 있다.

### 〈팔당생명살림〉

양평군 양서면 양수5리에 위치한 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에는 유기농민 86명이 생산자회원으로 있다. 이들은 양평, 남양주, 하남, 구리, 서울 동북지역의 소비자회원 900여명에게 유기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생산자 회원들은 4만평의 논에 오리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것을 비롯해 총 16만평의 농지에 상추·깻잎·파·시금치·고추·오이·딸기·감자 등 40여 가지 농산물을 키우고 있다. 팔당생명살림은 이들 유기농산물을 소비자회원들의 집으로 택배로 보내주고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5곳과 한살림, 여성민우회 등 유기농 단체들에 공급한다. 회원들이 생산하지 않는 육류나 생선·가공품 같은 품목의 경우 협력업체들의 유기농 제품을 구입해 가정으로 배달해 준다. 덕분에 팔당생명살림 회원들이 생산하는 유기농산물은 지명도가 높은 편이다. 농사를 짓는 양수리 일대가 이른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하는 청정(淸淨)지역인 점이 판매에 크게 도움이 됐다.

팔당생명살림은 지난 95년 12월 팔당호 일대에서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짓던 농가 12가구가 한데 모여 ‘팔당상수원유기농업운동본부’를 설립한 것이 모태가 됐다. 2001년 3월에는 소비자회원들의 모임인 팔당상수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지난해 3월 이 두 단체가 통합된 팔당생명살림연대가 발족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사단법인 팔당생명살림으로 바뀌었다.

팔당생명살림은 회원들이 생산한 유기농산물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양수리에 냉장시설을 갖춘 대지 270평, 건평 80평 규모의 현대식 농산물 집하장을 만들었다. 회원들이 유기농산물에 대해 갖

고 있는 믿음은 신앙에 가까울 정도다. 그래서 회원들의 식단을 100% 유기농산물로 차린다. 나이가 안전하고 품질좋은 유기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회원 교육에서 소비자와의 교류행사까지 모든 일을 조직에서 주관한다. 만약 유기농업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회원이 있다면 즉시 제명한다. 하지만 조직의 핵심역할은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는 ‘유통’이다.

#### 〈풀무생협 생산자회〉

풀무생협은 ‘생산자 중심의 생협’으로 홍성 YMCA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1986년부터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서울, 성남, 대전, 홍성 등 관련 소비자 생협과 종교기관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다. 풀무생협 총조합원은 1984년 처음 설립되었을때 77명이었으나 2002년 현재 450명이고, 유기농업 생산자는 80여명에 이른다.

풀무생협의 생산자회는 1992년 조직되었으며, 생산자간에 품목별 생산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수요 과잉이나 생산 과잉 문제를 극복하고 공동 수송에 의한 수송비 절감, 인건비 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다. 또한 유기농산물의 품질보증을 위해 인증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소비자와의 신뢰구축을 통한 공동체성 향상을 위한 이념교육과 체험교류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느슨한 형태의 조직화로 인해 개인의 경제적 이해와 공공성이 충돌할 때 조정기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친환경농업의 조직화는 기존의 생태지향 공동체 외에는 느슨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나 유통망 확보에 중심이 놓여 있기 때문에 생산과정에 깊이 관여하거나 감시나 규율기제로

활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생산형태에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조직화에서 배제된 개별화된 생산자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최근 친환경농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비자의 건강 욕구 때문에 높은 경제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경우가 태반이다. 친환경농업의 확산과정에서 그 목적과 동기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환경에 대한 고려와 대안적 생산체계 구축이라는 거대 이념에서 벗어나 농가의 틈새시장 공략, 이윤추구라고 하는 경제적 관심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선택한 경우이다.

우리의 조사자료는 대부분 생협등에 소속된 조직화된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개인 이해관계보다 공공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별 생산자는 환경농업의 선택을 마치 투기 작물을 선택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이종성 등(2002)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동기는 이윤추구가 가장 높았고(36.7%), 환경에 대한 고려는 10.4%에 불과했다. 친환경농업을 하더라도 위험분산을 위하여 자신의 농지 일부에서만 실천하는 농가가 많다는 점 역시 환경농업이 확산되면서 경제적 관심이 오히려 높아져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개별 생산자의 조직화가 더욱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태적 가치의 실현이나 소비에서 새로운 유기적 사회관계의 형성을 통해 유기농업 생산의 지속 근거를 찾고 나아가 생활양식이나 가치체계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대안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 5. 대안 생산체계로서 친환경농업의 과제

친환경농업이 생산과 유통, 소비의 모든 측면에서 확산되고 대안농업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주류 관행농업을 대체(replacement)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관행농업과 이중시장을 형성하여 공존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허장(2003)은 친환경농업의 경제성, 패러다임의 전환 측면, 친환경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요인들을 고려하면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경제구조 아래에서 계속 성장해야(viable) 함과 아울러 이를 넘어 대안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정만(1997)은 유기농업단체 ‘한마음공동체’를 분석하면서 “유기농업의 이상은 활동 역량과 조건에 따라 현실화되기도 하고 가치와 규범에 머무르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만큼 현실과 이상의 격차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친환경농업은 대안 생산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이상’이 현실화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 중에서 생산 측면의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업 자체가 아직은 모색 단계에 있으며, 때문에 관행농업에 대한 대안 체계로서 농업의 세계화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우리의 친환경농업은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전체 농경지의 1.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시장규모 또한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우리 농업의 여건상 수익성이나 기술적 측면에서 위험성이 큰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물론 시장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신념이나 가치에 의해 유기농업을 선택하는 것은 상관 없지만 대다수 농가는 새로운 기회로서 친환경농업을 선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생산과정에서는 병충해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 외관 등 농산물 품질의 저하, 추가노동력 확보의 어려움, 환경농업 경험의 부족, 유통에서는 시장 가격 시그널의 부재, 판로확보의 어려움, 낮은 소비자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험성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선뜻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을 하지 못하며, 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기술이 안정되고 재배하기 쉬운 쌀농사에 집중되고, 채소와 과일 같은 강도가 약한 저농약 농산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농림부, 2003). 또한 자신의 경작지를 분할하여 일부만 환경농업에 할애하는 부분적 실천형태가 대부분이다(심운정, 2001: 26).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유기농산물 생산이 어렵고, 지역 단위의 유기농업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체계로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생산자는 생산만 전담할 뿐 유통이나 가공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른 경제주체들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행농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산자는 여전히 유통과 소비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생산자 조직인 ‘유기농회’가 생산과정의 통제 뿐만 아니라 직접 농산물을 분류하고 직접 회원 가정에 배달하는 직거래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방식 자체가 생산자가 유통까지 담당하는 대안적 유통모델의 구축인 동시에 소비자와 직접 만나 신뢰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구조이기도 하다(조경만, 1998: 146). 이러한 생산자의 조직화와 소비자와의 연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생산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대표적인 모델이 미국의 지역농업(CSA)이다. 그러나 우리의 친환경농산물 유통구조를 보면 생협 등 중간매개체가 기존 농산물 유통체계인 소위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역할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순환형 농업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회적으로 교류

하고, 연계되는 공동체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생산의 지속성이 담보되기 어렵다.

셋째, 친환경농업 자체에 상품화 논리가 너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 속에 유기농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친환경농산물의 개별구매 패턴, 사회성이나 공공성보다는 개인 건강을 위해 구매하는 행위 등이 생산자의 신념이나 가치를 희석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환경농업이 대안 생산체제로 나아가기 보다는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통제되는 또 다른 관행농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대안 생산체계가 우리 농업에 자리 잡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 농민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그들 역할의 중요성을 구호 외침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농업종사자(5년 이상) 병역특례 혜택, 35세 미만 농업 선택자에 대한 '국토 관리원' 자격 부여 및 정착비 지원 등, 환경관리자로 인정하면서 사회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 주어야한다. 즉, 환경과 먹거리의 담당자인 농민에 대해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 등 실질적 보상은 물론이고, 학생들의 봉사나 체험학습을 농촌체험으로 하게 하는 등의 농업의 가치를 보다 널리 퍼뜨리는 세세한 노력도 수반되어야한다.

둘째, 지방자치와 분권,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친환경 유기농업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이 한국 농촌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조했듯이, '지역농업' 이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역 농업을 이루기 위하여, 지역대학·지역

산업·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관계 확립, 지역사회의 농업지원활동(Community Support Agriculture) 활성화, 지역의 유기적 물질 순환 체계의 형성과 강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유통구조의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지산지소(地產地消)운동이나 유기농산물 시장(famer's market)을 국내에도 도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셋째, 친환경 농업은 기계나 농약, 화학 비료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농업인 만큼, 노동력이 현재보다 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이 아직 1~2%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도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므로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손이 농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뿐 아니라 떠나간 일손을 다시 모으는 노력도 필요하다. 귀농자 기술교육 철저 실시(민간기관 활용, 인증제 실시), 귀농에 따른 장기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알선, 귀농자에 대한 군복부대체 인정, 귀농자의 정착을 위한 귀농 보조금 지급, 농산물 가공 및 유통지원 대책 사전 강구(농협, 생협 등의 지원활동에 연계),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종자보존관련 직접지불제, 생태적 환경조성 관련 직접지불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관련 직접지불제, 귀농관련 직접지불제 등 농민이 농업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다양한 소득보존 방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촌에 각종 의료, 보건, 교육, 문화시설 확충으로 귀농인프라 구축 등도 필요하다.

넷째,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는 노력이다. 이는 위의 지역 농업과 비슷한 맥락일 수 있다. 그동안 공업위주의 성장정책으로 말미암아 도농의 격차는 점차 커져 현재에 이르러서는 거의 분리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친환경농업은 기본적으로 다른 생명을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공생하는, 불교의 연기와 같은 맥락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농협, 소비

자단체, 가톨릭농민회, 천주교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한살림, 생활협동협동조합 등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도농교류형 생산 및 유통구조의 구축 및 활성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체계를 혁신해야 한다. 친환경 농업관련 생협등 민간 소비유통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방법과 규모를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쿠바의 경우 유기농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탄탄한 기술진과 농촌의 연계가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친환경적인 농업을 연구하는 기술진 양성이 매우 부진할 뿐 아니라, 그런 연구가 농촌의 실제 상황과 연계되어 연구되는 경우(연구진이 농촌에 시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관심도 없는)는 드물다. 무엇보다 국내에 오랜 기간 동안 유기농업을 이끌어온 단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최근 친환경 농업을 통해 대안모델을 만들어 가는 사례를 집중연구하여야 한다. 나아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협,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등의 관행농업 위주 현행체제를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체제로 대폭적인 개편해야 한다. 농림부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선진 유기농국가(예, 캐나다, 미국, 독일, 스위스, 쿠바, 일본 등) 연수 실시, 농촌진흥청 친환경농업 담당자 쿠바연수로 전통적인 민간 농업기술 및 첨단농법의 접목과 현장지도기법 개발 등도 필요하다.

## 6. 맺는 말

최근 우리 사회에서 농가의 파탄과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값싼 농산물의 수입 급증과 이로 인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폭락, 농가부채 급증, 30%에도 이르지 못하는 낮은 식량자급률, 쌀 시장 개방과 농민의 위기감, 잇따른 농산물 통상압력, 농산물의 안전문제 등 우리 농업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의 정부’에 이어 최근의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특히 ‘유통체계의 획기적 개선방안’은 농산물가격의 보장으로 농민의 생산의욕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며,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의 포드주의적 유통모델로는 식생활의 변화와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최근의 경향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대안적 생산체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안모델은 한 마디로 ‘소비자 중심의 생산과 유통체제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사회환경 변화와 물질적 풍요에 따라 소비자가 안전식품 및 고급식품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생산자는 소비패턴에 부응하는 새로운 생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신뢰를 주고, 이러한 사회관계를 바탕으로 대면적 유통체제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소득구조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유통에 통용될 친환경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의 문제이다. 다행히 최근 우리 농업의 작은 변화는 친환경농산물에 대

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공동체형 생산체계가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화를 사례를 통해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앞으로의 실천과제를 점검해 보았다.

향후 우리의 농산물 유통의 중심과제는 식품의 ‘안전·안심’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얼마나 좁혀 서로 동반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모아질 것이다. 생산농가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기준 아래 농산물을 생산, 정확한 생산공정·경로 및 농산물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통업자(경제/시장논리가 아닌 공생의 논리, 사회적 가치의 지지)는 농산물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생산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소비자는 농산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 농업을 지킨다는 신뢰와 지지의 관계를 만들지 않고는 농업의 미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친환경농업의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대안 생산체계의 가능성과 과제를 모색하여 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한 식품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며,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정된 판로와 고품질 유기농산물 생산의 가능성,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 3

**도시 주민들의 지역 만들기  
운동과 농산물 직거래 운동**



# 도시 주민들의 지역 만들기 운동과 농산물 직거래 운동

한도현(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 머리말

### 1) 문제의 제기

농산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와 더불어 농산물 유통에서도 대형화, 상업화, 전문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다단계 유통과정을 단순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몫을 늘린다는 경제주의적 목소리가 점차 호응을 얻는 듯이 보인다. 그렇지만 유통과정이 전문화되고 대형화될수록 생산자나 소비자는 유통과정에서 소외를 겪는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 얼굴도 모른 채 화폐교환관계로만 연결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화와 전문화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안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화, 상업화, 전문화는 현대 위험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벡(Beck, 1986)이 말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그 시스템 안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안전한 식생활을 즐기기 위해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집단에서 생산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유통되는 식품을 찾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자연과 인간의 공동체 운동에 대한 관심이다. 안전한 식품을 개인적 논리라고 한다면 자연과 인간, 또 이웃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 운동 내지 상생운동의 관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거대화되고 도시화되어 농촌생산자와 멀어질 뿐 아니라 도시 소비자들 간에도 멀어지게 되고 익명의 사회에 살게 된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 운동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이나 친구 등 공동체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공동체 사회라는 이념은 유통문제의 개선 또는 대형 유통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려는 소극적 운동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다운 정이 흐르고 인간관계가 살아 움직이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다(천규석, 2002; 양정우, 2001).

생산자 중심의 유통개선 운동이나 생활협동운동을 통한 유통 개선 운동은 그것 자체만의 운동으로 성공을 거두기는 어렵다. 특히 회원들만의 참여로는 사회적 파급효과도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생산자 단체 또는 생활협동조합의 이념에 동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농산물 직거래에 동참은 하되 생산자 단체나 생활협동조합에 직접 참가할 수 없거나 참가하지 않는 일반 도시 소비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역 자치단체나 사이버 거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 등은 생산자 단체나 생활협동조합

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대안적 유통 체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도농교류 공동체 운동, 생산자 공동체 운동 등 제한된 범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다. 소비자 전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유통문제의 제한된 대상을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안적 유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활협동조합 운동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운데 일부를 포함할 뿐이다. 더욱이 생활협동조합은 참가자들의 성원 의식, 참여자로서의 의무와 권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닫혀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민들의 지역만들기(community organizing) 운동은 여러 측면에서 전개될 수 있다. 아파트 관리 운동, 좋은 학교 만들기 운동, 범죄없는 도시 만들기 운동, 불우이웃돕기 운동, 독거노인 돕기 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좋은 지역 만들기 운동 즉 지역사회운동과 새로운 삶의 공동체 운동(organizing community)이 포함되어있다(Susan and Stoecker, 1998; Kempton et al, 2001).

지역사회운동과 공동체운동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운동에는 주체 면에서도 종교기관, 학교, 아파트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등 여러 가지 기구들이 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폐쇄적인 회원제도의 틀을 벗어나 지역 주민전체를 포섭대상(constituency)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훨씬 개방적인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방적 운동은 생활협동조합이나 생산자 중심의 유통 개선 운동에 광범한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엄밀한 경제학 또는 경영학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그렇지만 지방자치체, 종교단체, 부녀회 등이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유통문제

개선의 일환으로 적극 연구될 필요가 있다.

## 2) 연구범위 및 내용

이 연구의 범위는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대응, 나아가 대응으로 전개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지역사회 조직 즉 지자체나 주민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운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직거래란 중간 상인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경영학적 개념이지만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극히 사회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것은 사회자본 형성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은 무형의 자본이지만 사회발전에 대단히 필수적이다(Putnam, 2000). 특히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뿐 아니라 익명의 아파트 사회 또는 도시 사회의 주민들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점에서 지역만들기 운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주민단체나 지자체 중심의 유통 개선 운동은 중간 상인의 이윤이나 횡포를 배제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도시의 지역 만들기 또는 공동체 운동이라는 적극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조직들이 어떻게 농산물 직거래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즉 생활협동조합, 시민단체, 지방자치 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가하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살펴본다. 예컨대 학교운영 위원회가 농산물 직거래, 유기농산물 유통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파트 공동체운동, 지역의 환경운동 단체 등이 농산물유통 개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농산물 유통 문제의 개선을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조한 권광식(2001)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로를 제시한 바 있다. 권광식이 제시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농산물 유통 경로가 존재한다. 경로1형이나 경로4형은 경영학의 유통이론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사회운동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로 1 형. 생산자 ⇒ 직판장, 농민시장, 택배, 전자상거래 ⇒ 소비자

경로 2 형. 생산자 ⇒ 농협(축협, 수협 등) ⇒ 소비자

경로 3 형. 생산자 ⇒ 생협 ⇒ 소비자

경로 4 형. 생산자 ⇒ 시민, 지방자치단체 ⇒ 소비자

여기에서 제외된 종교기관들의 농산물 직거래 운동도 무시할 수 없다. 종교 단체 내의 도농교류 협력부, 농산물 직거래 시장은 농산물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를 통하지 않는 직거래 운동은 신뢰와 참여를 중시하는 만큼 종교 단체들의 참여는 이념적 차원에서도 농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선구적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 온 조직들 가운데 상당수가 종교 단체들이다(양정우 2001; 천정명, 2001; 김철준, 1999).

위 권광식의 모델은 생산자를 중심에 두고 고찰하고 있기 때문에 생협의 다양성이나 시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간과할 수 있다. 생협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회운동과 긴밀히 연계를 맺거나 다른 사회운동의 일부일 수도 있다. 본고는 생산자 중심의 시각 대신 도시 소비자 중

심으로 대안적 농산물 유통 즉 농산물의 직거래 운동을 살펴본다.

### 3) 방법

시민,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의 농산물직거래운동을 분석하려면 운동참가자들과의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시간과 경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비교적 농산물 직거래 운동이 활발한 지역을 선정하여 관련 단체들의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하기 전에 각종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단체, 종교단체, 학교, 지방자치 단체, 농협 등의 농산물 유통개선 운동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직거래 운동의 사례를 찾지 못하였다. 이 예비조사를 바탕으로 10 개 지역을 선정하여 서울지역에서 3곳, 성남지역에서 3 곳, 모두 6개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성남시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남시는 서울 주변의 농촌지역이었으나 서울의 팽창에 따라 급격한 도시화를 겪은 지역이다. 1970년대에는 서울의 빈민, 무허가촌 주민들을 대량 이주시킨 배후지였다. 당시의 광주대단지 폭동 사건은 서울의 팽창과 성남 지역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 이후 성남시는 급속한 도시성정을 겪었지만 영세업체들이 많아 빈곤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노동조건이 열악한 기업들이 많아 노동운동도 활발하였으며 빈민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공동체운동도 다른 도시에 비해 활발한 곳이었다(한도현 외, 2004).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건설 정책은 성남을 새로운 도시로 변화시켰다. 1990년대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성남은 분당이라는 새로운 중산층 아파트 군을 보유한 대형도시가 되었다. 분당은 제2의 강남으로까지 불리고 있다. 성남이 구성남과 분당이라는 두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만들기 운동을 연구하기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중산층 지역인 분당과 하층지역의 성남에서 어떤 공동체운동이 전개되며, 이 운동들이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비교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지역공동체운동으로서 농산물 직거래운동의 사례<sup>1)</sup>

본 연구에서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서울시의 강남구청, 여성민우회 생협, 땅모임 생협, 주민생협(주민교회), 시민생협, 성남 낙생농협 등이다.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 가운데 가능한 다양한 성격의 단체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생협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설립동기, 회원구성, 활동 유형 등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 1) 지자체의 농산물직거래운동: 서울시 강남구청

강남구청은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주차장 직거래 장터 년 1-2회, 인터넷 공동구매를 비정기적으

1) 이 사례들에 대한 현장 인터뷰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 박종서 군이 진행하였다. 조사는 2004년 3월 - 5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로 실시하고 있다.<sup>2)</sup> 즉 강남구의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인터넷 쇼핑과 장터로 대별된다. 기초자치단체로서 관할 지역 내의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비록 비정기적이거나 지자체가 농산물 직거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도시의 지역공동체 발전과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가) 조직

강남구청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담당하는 곳은 소비자 보호계이다. 계장의 관할하에 담당 직원 1명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비정기적 사업이므로 소비자보호계라는 기존 조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나) 회원

구청이 연 1-2회 운영하는 장터에는 회원이 따로 없다. 다만 구청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몰 회원으로만 가입한다. 인터넷 쇼핑몰 회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지역 역시 제한하지 않는다.

### (다) 지역 내 사회단체들과의 관계

장터가 열릴 경우, 각 동사무소와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장터를 홍보한다. 각 동사무소에서는 장터가 열릴 경우 아파트 부녀회, 새마을 부녀회, 노인회, 여성단체 등과 같은 각종 단체에 비정기적으로 홍보한다. 홍보 이외의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내 단체는 거의 없다.

---

2) <http://eshop.gangnam.go.kr/index.htm>.

**(라) 지역 외 사회단체들과의 관계**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서울의 지방 정부는 농촌의 지방 정부와 협력한다. 지방 정부의 협력관계가 없으면 농산물 직거래는 실현되기 어렵다. 대부분의 협력 관계는 공문서로 처리된다.

**(마) 농산물 직거래와 공동체 운동**

농수산물 직거래로 인한 발전된 사회운동 형태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은 관심이 없다. 구청의 취지는 구민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강남구 농수산물 직거래의 직접적 계기는 직거래가 김대중 정부의 100대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그 후로 서울의 대부분 지방정부는 직거래를 추진한 것이라고 한다.

**(바) 주민들의 반응**

직거래 장터, 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공동구매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특히 인터넷 공동구매는 구민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전화문의도 많고, 언제 하는가를 자주 문의한다. 전체적으로 강남구청의 농수산물 직거래에 대한 구민의 반응은 매우 높다.

**(사) 애로점**

지역 내 일반 소매점이 반발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반발하며, 구청에 진정서를 내기도 한다. 쌀과 같은 주요 품목을 거래하는 데 대해 지역상인들의 반발이 특히 거세다. 때문에 품목 선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하기도 한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다. 첫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공품은 세금을 내야한다. 이점은 당초 취지에 따르면 불필요한 세금이라 생각된다. 1차 산물에 세금은 없지만, 통조림과 같은 가공품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다. 둘째, 구청 입장에서 농수산물 직거래는 교유의 업무가 아니다. 따라서 구청이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전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보통 도시지역 지방정부에는 직거래 전담부서가 없다.

## 2) 시민운동단체의 농산물 직거래운동 : 여성민우회의 사례

여성민우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성운동 단체이다. 초기의 여성운동은 '지역'의 주부들을 주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대중적 여성운동의 방향이 중앙 단체가 아닌 '지역'의 주부를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때는 1980년대 후반 세계화 추세에 대한 대항운동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수입 농산물 차단과 먹거리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의 주부를 중심으로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방법으로 여성대중운동은 중앙에서 '지역'으로 운동의 방향을 선회했다. 여성민우회의 생협운동으로 이러한 지역화·지방화 흐름과 연계되어 있다. 민우회도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부를 중심으로 먹거리 안전성, 자녀 교육, 수입농산물 문제를 제기하면서 생협활동이 시작되었다. 여성 민우회 생협은 생협활동을 통한 여성문제의 해결(여남평등), 주부들의 여성으로서의 자의식 개발, 사회운동의 적극적인 여성 참여 등을 추구하고 있다.

### (가) 조직

1989년 생협활동 준비를 시작해서 1년 후 1989년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1999년 생협법이 시행되면서 재경부 등록 특수법인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창립당시 220명의 발기인이 참여하였다. 출자금은 1,300만원이었다. 홍성 YMCA 추천으로 홍성 풀무생협과 연계하여 직

거래 등 생협활동을 전개한다.

여성민우회 생협의 조직 목적은 1) 조합원의 사회, 경제, 문화적 욕구 충족(안전한 먹거리 공동구입), 2) 여성민우회 발전에 기여(여남평등 추구) 등이다.

## (나) 회원

### ① 회원 자격

여성민우회 생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민우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여성민우회 가입회비 1만원, 생협 출자금 2만원(탈퇴 시 환불)을 납입해야 하며, 생협 생활재를 이용할 때마다 500원씩 증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현재 조합원은 1만명 정도이며, 자주 이용하는 조합원은 약 4천명 정도 된다.

### ② 입회 절차 및 과정, 신입회원 관리 및 오리엔테이션

입회 동기를 보면 '여성민우회에 가입했다가 생협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전체 조합원의 50%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50%는 주변 사람의 권유로 조합원이 된 경우이다. 일부는 매장을 방문하고 관심이 생겨 가입하기도 한다.

회원 가입 원서를 접수하고 나면, 민우회 생협은 전화로 생협과 민우회에 대한 소개, 생협의 이용 방법과 절차 등을 알려준다. 이 교육은 가정 방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때 생협측은 신입조합원에게 상품에 대한 불만, 생협에 대한 불만 등을 수시로 개진하도록 부탁한다. 불만을 표출하고 그것을 생협에서 수용하는 경험을 할 때 조합원은 생협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 (다) 활동 내용

여성민우회 생협은 '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여성민우회 생협은 자치력을 침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하려고 한다.

#### ① 생협월례포럼

전 지부의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월 1회 강좌를 개설한다. 참고로 2004년 4월 월례포럼의 주제는 '한국의 유기축산 현실과 소비자의 역할'이었으며, 생협 관계자가 강의를 하였다.

② 과천시 사업공모에 참여하여 예산 800만원을 지원받아, 2가지 사업을 추진했다. 숲체험과 여성학교 프로그램이다. 숲체험은 과천 지역 주민(주부, 어린이)으로 하여금 한림수목원을 방문하게 하여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년 2회 추진하였다. 여성 학교 프로그램으로는 민우회 여성학교가 있다. 민우회 생협은 과천시 주민(주부 중심)을 위한 민우회 여성학교를 개설하여 년 4회 강좌를 개최한다.

#### ③ 소그룹 모임 운영

지부별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3명 이상이면 공동체라 부른다. 따라서 한 지부 안에 여러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 공동체는 주로 지부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자체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동한다.

### (라) 타 단체와의 협력

민우회 생협 조합원들의 생협 활동의 경험은 지역의 사회 운동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회의 및 토론 진행, 의견 개진, 의사

진행, 집회 참석, 설문, 교육, 서명 운동 등은 실제로 조합원들을 지역 운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특히 주부 중심의 생협 경험이 시민운동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있다.

한 가지로 예로 동부 여성민우회생협의 쓰레기 퇴비화운동을 들 수 있다. 동부 여성 민우회 생협 활동가들은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던 시점에서 모니터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실시되어도 쓰레기 양이 줄지 않았다. 그러던 중 생협에서 생산지 견학을 갔다. 그때 시골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재사용하는지 배웠다. 도시에도 이것을 적용하여, '생쓰레기(간하지 않은 음식쓰레기)말리기운동'을 전개하였다. 생쓰레기 말린 것을 생협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나아가 공보처에 시범사업 신청을 해서 그 지역 아파트 단지(2,000세대) 전체가 공보처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이런 활동이 해당 구청 사업에 반영되었고, 인근의 구(목동)에도 반영되었다. 결국 생협 활동에서 시작해서 쓰레기 재사용에 관한 정책을 변화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다른 사례는 생협 활동가들이 학교 급식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예이다. 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 불건전한 급식업체를 교체하기도 했으며, 음식 재료 선정에도 관여했다. 안전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감시하고, 가능하면 유기농 재료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으며, 생협 물건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 (마) 직거래 활동

쌀, 채소는 주로 충남 홍성의 풀무생협에서 들어온다. 그 외 품목들은 생산지가 다양하다. 취급하는 품목은 가공품, 반가공품, 비가공 농산



물을 포함하여 약 450여종이다. 거의 모든 음식 재료를 포함한다. 주문은 인터넷 40%, 전화 60%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지부로 오는 경우도 있고, 중앙으로 바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일단 주문은 모두 중앙으로 집중하고, 생활재도 생산지에서 중앙 물류센터에 집중한 후, 각 지부에 공급한다.

선 주문 후 공급 방식을 택한다. 특별히 상하지 않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산지에서 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상태로 공급한다. 현재는 지부별로 주 1회 공급하고 있는데, 2004년 하반기부터 주 2회 공급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지부에서 장터를 운영하기도 한다. 장터의 목적은 판매보다는 홍보, 시식회, 조합원의 확대이다. 년 3-4회 정도 하지만, 매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하지 않는다.

## (바) 애로점

농산물 직거래는 일종의 대안 유통체계이다. 대안 유통체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때 요청되는 시설, 자금이 가장 큰 문제이다. 현재의 출자금만 가지고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성민우회 생협측은 말한다.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균등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생협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한다. 정부의 지원 부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생협은 같은 협동조합임에도 불구하고 농협이나 축협과 대우가 다르다. 농협법과 생협법의 차이가 있고, 두 조합 간에 법인세도

차이가 있다. 마을회관 같은 시설도 법적으로 생협 매장이나 물류센터로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농협은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볼때 아직은 생협에 대한 제도권의 정당한, 합리적인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 설치 역시 생협은 농협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

### 3) 환경운동단체의 농산물직거래운동 : 땅모임 생협 사례

땅모임 생협은 ‘한살림’에서 1993년 일부 회원과 생산공동체가 독립하여 만든 단체이다. 경북, 경기, 강원, 전북지역의 생산자와 서울 관악구 지역의 주부들이 직거래장을 설치하고 1994년 공동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2000년 3월 생활협동조합법에 준하여 땅모임 생협을 재창립하고 2001년 매장을 확대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가) 조직

단체의 목적은 “서로 돕는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실천적인 구호는 “밥상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자”이다. 땅모임 생협은 조합원의 주체적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의 주재자로서의 자기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조직체계로 이사회, 감사, 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이사는 12인인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이사로 참가한다. 감사는 3인이다. 땅모임 생협 내에는 환경위원회, 생활재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등이 있다. 위원회장은 수도권연합회의 같은 위원회 연합모임에 참석하여, 정보를 교환한다.<sup>4)</sup>

## (나) 회원

회원이 되려면 최초 출자금 2만원과 회비 1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출자금은 최초 2만원에서 매번 물품을 구매할 때마다 500원씩 적립하여 10만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 출자금은 탈퇴할 경우 모두 돌려준다. 회비 1만원은 돌려주지 않는다. 회원 가입은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한다. 회원가입 시에 출자금과 회비를 납부한다. 회원의 의무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조합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생협은 신입회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신입 회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3개월 단위로 모아서 교육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생협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이용방법에 대한 소개, 땅모임 생협의 목적과 지향 등에 관한 것이다. 이념적으로는 환경운동, 민주주의 운동, 자녀 교육 등을 들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서면 교육을 하기도 한다.

현재 등록 회원은 약 1,100명 정도이다. 연령층으로 30대에서 40대 중반이 가장 많다. 고연령층도 있지만 이들의 이용은 제한적이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 편이다.

## (다) 활동 내용

땅모임 생협은 소그룹 모임이 활발한 편이다. 소그룹 모임으로 생산지 견학, 강좌, 독서모임, 영화보기 등을 들 수 있다.

### ① 생산지 견학

땅모임 생협은 연 4~6회 생산지 견학을 간다. 회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참석한다. 생산지에 가서, 재초작업, 수확, 단오잔치, 대보름 잔치, 포도따기, 풀뽑기 등을 진행한다. 땅모임 생협에서는 생산지 견학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가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소비자는 보통 이기적이다. 이런 소비자들이 생산지 체험 후에는 변화된 태도를 나타내는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며, 농산물 이용의 이기적 태도를 반성하기도 한다.

## ② 강좌

강좌는 단위 생협 자체 강좌와 연합회 강좌로 구분된다. 연합회 강좌는 수도권 생협연합회 차원에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그 때 단위 생협에서는 소속 회원에게 홍보하여 함께 참석한다. 자체 강좌는 주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진행하는 데, 주제는 다양하다. 2004년 5월 현재까지 8회 개최하였으며, 매월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 진행한 주제는 요리, 안전한 농산물, 아토피질환, 식품과 유해물질, GMO, 수입 식품 등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에 관한 것이었다.

## ③ 독서모임

독서 모임은 수시로 진행하며, 정해진 책을 읽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독서모임은 이사장이 주관하며 책도 이사장이 주로 선정한다. 그 동안 진행한 내용을 보면, 식품에 관한 도서, 자녀교육, 성문제, WTO 관련 도서, 경제성장과 식품, 여성과 남성의 부부관계, 여성해방 신학자의 도서, 오만한 제국 등이다.

토론은 자유롭게 진행되는데, 책과 무관한 일상 생활이야기부터 읽은 책에 관한 진지한 대화가 오고간다. 독서모임은 강좌에 비해 참석자



는 더 적어 보통 7-12명 정도이다.

#### ④ 영화보기

영화보기는 매월 1회씩 추진하고 있다. 일반 극장에 갈 때도 있고, 동사무소 비디오 감상실을 대여하기도 한다. 영화 보기 모임은 주로 이사장이 주관하며 영화선정도 주로 이사장이 한다. 영화보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춘천 청소년 영화제에 참석하기도 했다. 영화 보기 모임에서 함께 관람한 영화로는 ‘길버트 그레이프’, ‘칠판’ (이란 영화), ‘송환’ 등이 있다.

#### (라) 협력 단체 또는 기구

땅모임 생협은 생협연합회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회비 납부를 의무로 하고 있다. 생협 연합회는 단위 생협이 하기 힘든 사업 또는 교육, 제도개선 측면에서 역할하고 있다.

또 땅모임 생협은 인근의 의료생협과 협력하고 있다. 생협이라는 차원에서 같은 단체로 볼 수 있으며, 같이 수행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땅모임 생협 이사장이 의료 생협 이사진에 들어 있기도 하다.

#### (마) 다른 공동체운동과의 관계

땅모임의 활동은 아직 대부분 이사장 개인에 의해서 결정 진행되고 있으며, 인적·조직적·재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땅모임 생협의 몇 가지 의미 있는 활동이 아직 다른 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내부 결속은 강한 편이다.

## (바) 농산물 거래

땅모임 생협은 생산자 공동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은 취급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개인이 생산한 경우 그 농산물을 신뢰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무농약 농산물의 경우 한 개인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근에서 다른 생산자가 농약을 사용하면 주변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드시 한 지역 전체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생산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땅모임 생협에서 거래하는 농산물은 모두 생산자공동체에서 생산한 농산물이다.

거래하는 농산물 95% 정도는 수도권 연합회로부터 공급 받고, 이것을 다시 단위 생협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땅모임 생협의 경우 자체 공급하는 물품은 콩나물, 계란, 표고버섯, 계절 농산물 정도이다.

땅모임 생협에서 거래하는 농산물은 대략 300종이 넘는다. 생활재 선정은 수도권 연합회에서 하며, 농산물은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등으로 구분하여 인증마크를 붙인다.

회원들은 물품을 직접 매장에서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주문할 수 있다. 주문은 공급일 3일전에 해야 하며, 3만원 이상이 되어야 개별 공급이 가능하다(배달이라는 말은 안 쓴다고 한다). 필요한 생활재는 매주 발행되는 생활재 안내지나 인터넷쇼핑몰에 공개되며, 공급받은 물건값은 당일 공급자에게 전달하거나 일주일 이내에 송금할 수 있다.

매장이나 인터넷 외에 장터를 통해서도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 땅모임 생협은 전에는 장터를 열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 장터는 물건 판매보다 회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 (사) 애로점

땅모임 생협이 느끼는 애로점으로는 세금문제, 공간문제, 용자제도 등이 있다. 먼저 세금문제를 보면, 생협은 비영리단체인데, 각종세금이 너무 많다. 법인세도 일반 법인세를 내고 있다. 땅모임 생협은 세금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공간문제가 심각하다.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공간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지원이 아쉽다고 한다. 셋째로, 용자지원제도의 부족을 지적할 수 있다. 용자 제도가 있었으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면 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전원 동시 출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매장 확대시 용자금을 신청했다가 중도에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존재했던 정부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되었다. 예컨대 농림부, 재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가 폐지되었다.

## 4) 종교운동의 농산물직거래운동 : 주민생협의 사례

1989년 주민교회 34 세대 정도의 신도가 중심이 되어, 생명문화창조운동이 시작되었다. 이상낙씨가 초대 운영위원장이었고, 일본에 한 명이 연수를 다녀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생협활동을 시작했다. 1993년 설립총회를 했고, 2000년 3월 생협법에 따라서 재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 (가) 조직

주민생협의 모토는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생활공동체’이다. 지역 내 조합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 만들기 및 마을 만들기를 중점사

업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재구성한다. 궁극적으로 조합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 (나) 회원

회원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1만원, 출자금 2만원을 내야한다. 회원들은 사용할 때 마다 500원씩 증자하며, 특별증자 형식으로 십만원대, 경우에 따라서는 백만원대를 내는 조합원도 있다. 다만 정관에 따라서 개인의 경우 총 출자금의 1/4을 넘지 못한다. 특별 출자는 매장 임대료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 현재 매장과 사무실 임대비 등에 대부분의 출자금을 지출한다.

조합원의 연령층은 30대에서 40대에 걸쳐 있다. 이 중에서 많이 이용하는 연령 층의 생애주기는 주로 ‘아이가 자라는 동안’이다. 그래서 35세에서 40세가 가장 많다. 중고등학교 이전까지 아이를 둔 주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동한다. 그래서 40세 중반이 넘어서면 서서히 생협에 관심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 (다) 활동 내용

주민생협은 농산물 직거래 외에도 어린이집, 창조학교, 마을위원회, 생활재 위원회, 환경위원회, 희보위원회, 방학캠프, 생산자 초청 행사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회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① 어린이집

조합원 자녀 가운데 선발하여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보육 시설이다. 처음에는 5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꽃바람 아이’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시작했다. ‘발도르프’ 이 교육방식을 도입하고자 독일에

서 발도로프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교사 측과 의견이 맞지 않아 이 교육방식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이름을 ‘덩더쿵 유치원’으로 붙이고, 어머니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5세에서 7세 정도의 아이들 15명이 있으며, 전문 교사 2명을 채용하고 어머니들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어머니가 주요 역할을 하고 전문 교사는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 교사는 보수를 주며,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아이들 점심과 설거지 등 대부분을 어머니들이 꾸려가고 있다. 유치원 학부모 대표는 주민생협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 학습프로그램은 주로 산책 중심으로 진행된다. 매일 산에 가고, 체험위주의 프로그램, 학습이 아닌 생활 교육, 생태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 ② 창조학교

3개 반으로 구성되는데, 1-2학년반, 3-4학년반, 5-6학년반이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과학실험, 전래놀이, 마당극, 공작 등의 활동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처음에는 약 50-60명의 학생이 있었지만, 4-5년이 지나면서 규모는 축소되고 열의도 떨어져서 현재는 25명 정도가 남아 있다.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주 1회 교실을 운영한다. 주로 생태체험, 세시풍속에 따른 놀이, 캠프 등을 진행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학교 운영자의 아이들이 자라고 학교에서 떠나자, 어머니들의 순조로운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창조학교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초기 활발한 활동이 축소되고, 현실적 조건도 초창기보다는 어렵다. 여전히 모든 활동은 조합원들이 직접 준비 진행한다. 5-6학년은 특별히 지역 여행을 다니는

데, 역사박물관, 기념 공간 등을 다니며 체험학습을 한다.

### ③ 마을 위원회

마을 위원회의 최고 핵심사업은 마을 모임 만들기이다. 마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주민생협의 최대 중점사업이 마을 모임 만들기이다. 마을 모임은 생협의 기초조직을 건설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마을 모임은 5명에서 10명 규모의 지역 자체 모임이며, 현재 10개의 마을 모임이 조직되어 있다. 각 마을 모임에는 한 명씩 ‘마을지기’가 있다. 그래서 ‘마을모임·마을지기모임·마을 위원회’로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속에서 생협의 중앙조직과 조합원이 소통한다.

생협 초기에는 ‘공동반’을 구성하였다. 공동체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이 ‘가입반’을 만들고, 이 반이 5개(50명 정도)가 모여 ‘지구’를 형성했다. 이것을 당시는 ‘공동반’이라 불렀다. 주문, 생활재 공급, 결제까지 공동반 단위로 진행하였다. 이 공동반은 당시 생협의 실질적인 조직적 기반이 되었고, 이 공동반 모임을 통해서 대부분의 의사소통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IMF 위기 때 공동반의 조직적 위기가 찾아왔다. 공동반이 깨지기 시작했다. 공동반 단위의 주문, 공급, 결제 시스템을 계속 고집하면 생협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다. 1999년에 개인반을 인정했고, ‘지구’를 폐지했다. 현실을 수용한 것이다. 개인 단위로 생활재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생협의 공동체적 의사소통 구조는 소멸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2002년부터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2002년 1년 동안 어떤 조직형태를 구성할 것인지 논의를 진행했다. 1년 정도 논의를 진행하다, 2003년에 이전의 반보다 크고, 지구보다 작은 모임으로 마을 모임인 ‘마을 만들기’를 시작했다. 작년에 모두 10개의 마을

모임을 만들었다. 올해 목표는 20개 마을 모임을 만드는 것이다.

마을위원회의 활동이 사회적 성공을 거둔 예도 있다. 학교급식에 관한 지방조례제정 주민발의가 그것이다.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 성남 지부 중심으로 경기도 조례 제정을 준비하였다. 주민 발의로 경기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14만명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주민생협이 5천부이상의 서명서를 제출했다. 생협이 제출한 5천부는 성남시에서 가장 많은 양에 해당하며, 마을위원회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분량이다.

#### ④ 생활재 위원회

생활재 위원회는 조합원이 사용하는 생활재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주관한다. 새로운 생활재를 개발, 시험하여 공급하며, 기존에 공급되는 생활재를 감독하고, 생산방식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해서 관찰한다. 산지 견학을 통해서 생활재 생산과정을 점검하기도 한다.

생활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생활재를 개발하는데 주력한다. 하나의 생활재를 공급하기까지 발굴하고, 검토하고, 시험하고, 채택하기 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일반 농산물을 저농약으로, 무농약으로, 유기농으로 안전성을 올리도록 유도한다. 가공품의 경우, 가공 첨가물을 축소시키도록 유도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 구조에 의해서 생산자는 조합원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생활재 위원들은 자체 학습을 하고 활동하게 되어 전문가로 발전해 간다.

#### ⑤ 환경위원회

최근에는 대안생리대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약 1년 정도 지속했다. 대안 생리대를 마을 모임을 통해 확산, 이용 운동을 하고 있다. 또

환경위원회는 생활재 중에서 환경의 차원에서 개선 사항을 발견, 시정하고 있다. 세재의 경우도 그 중 하나이다. 향후에 쓰레기 문제에 접근하려고 한다.

#### ⑥ 회보위원회

회보위원회는 각종 생협 회보를 제작한다. 2004년 4월 총선에서 회보와 관련된 한 가지 의미있는 토론이 있었다. 생협의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바 있는 이 OO씨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회보에 이 OO씨에 대한 기사를 실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결론은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를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 생협의 탈정치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 ⑦ 방학 캠프

캠프는 여름 방학 때의 농촌 캠프와 겨울 방학 때의 도시 캠프가 있다. 여름 방학에 도시 아이들이 농촌에서 생산지 캠프를 하고, 겨울 방학에는 생산지 아이들이 도시 캠프를 한다. 여름 방학에 조합원들은 가족과 함께 생산지를 방문하여, 농가에서 같이 먹고 자고 일한다. 여름 방학 캠프에 다녀온 후 생활재를 공급받으면 가족들이 모두 감격한다고 한다. 생활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이며, 아이들이 농산물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변화한다고 한다. 농산물을 받으면 생산지의 친구들을 떠올리고 같이 놀던 일을 생각하게 된다. 겨울 방학에는 생산지 아이들이 도시에 와서 도시 아이들과 함께 수련원 등으로 캠프를 간다.

#### ⑧ 여성 생산자 초청 행사

2004년 처음으로 시작한 행사로 생산지 여성을 도시로 초청했다. 이런 프로그램은 여성의 관점에서 기획된 것이다. 같은 여성으로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여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원들은 여름 방학 캠프나 생산지 방문시 늘 생산지여성에게 신세를 졌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에 대한 일종의 보답으로 그들을 도시로 초청해 시는 이야기, 농촌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느꼈던 일 등을 듣고 공감하면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 ⑨ 일회적 프로그램

일반 조합 자녀를 대상으로 3개월짜리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그러나 정기적인 것은 아니며, 의견이 모아지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동안 풍물, 서예, EQ 미술 학교를 개최한 바 있다.

## (라) 협력 단체

주민생협의 주요 협력단체는 주민교회, 주민신협, 성남 자활후견기관,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은행골 우리집, 이우학교 등이다.

### ① 주민교회

모(母) 단체로서 주민 교회와 주민 생협은 이념적 지향을 같이하고 있다. 정치적 활동이 필요한 경우 같은 방향으로 활동한다.

### ② 신협

신협도 주민교회를 모태로 설립된 단체이다. 주민신협과 주민 생협은 임원 교류제도를 도입하였다. 신협 이사가 생협 이사에 참여하고, 생

협 이사도 신흥 이사에 참여한다. 서로 운영의 기술을 배우고,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이 조화를 이루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감사를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조직의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 ③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은행골 우리집(가출청소년 조성 가족)

두 단체에는 주로 기부금을 내는 형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주민생협은 지난 총회에서 결산 후 남은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합의한 후, 이들 단체에 기부하였다.

### ④ 자활후견기관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행사가 있을 경우 최대한 그 쪽의 음식을 이용하려고 노력한다.

### ⑤ 이우학교

이우학교는 일종의 도시 대안학교로서, 중·고등학교 과정이 포함된 교육공동체이다. 이우 학교와 생협은 우선 학교급식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급식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아직 시스템이 완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이우학교 유기농 급식을 위해 생협이 재료를 공급하고, 자활후견기관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 (마) 농산물 거래

생활재는 생협수도권 연합회를 통해서 대부분 공급받는다. 다만 수도권 연합회에서 물류를 추진하면서 물류가 단위 생협 시절보다 대형화되었고, 대형화된 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 질이 하향 평준화되었다.

예전에는 유기농산물 품목을 공급하던 것을 대량 공급하게 되면서, 유기농산물의 양이 부족하니까 저농약 농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 (바) 애로점

현대의 소비시장에서 대부분의 기업이나 대형 마켓은 너무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소비자는 그 편리함에 익숙해졌다. 집까지 무엇이든지 배달해준다. 모든 것이 다듬어져 있다. 이 속에서 생협이 취지를 공감하게 하는 의식의 전환이 너무 어렵다.

제도적 측면에서 주민생협은 몇 가지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생협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다. 현재 생협법은 일반 소매상에게도 적용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소매상의 강한 반발 때문에 법률이 처음의 취지와 많이 달라졌다. 둘째 공간문제이다.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는 건물을 생협이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 5) 소비자운동으로서 농산물 직거래운동 : 성남 시민생협의 사례

성남 시민생협은 현재 창립 준비 중이다. 성남지역 소비자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가능하면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창립하고자 하며 기타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직

2003년 5월초 250명 정도였던 것이, 2004년 5월초 366명이다. 현재 운영중인 조직은 조합원 자치조직(준비위원회)이 있다.

### (나) 회원

조합원이 되려면 출자금과 매월 조합비를 내야 한다. 현재는 개인이나 단체(예를 들어 놀이방 급식의 경우)는 구분이 없으나 앞으로는 단체급식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칭 성남 시민생협의 출자금은 1구좌 3만원이다. 또한 매번 생활재를 공급할 때마다 500원씩 출자금을 증좌한다(의무증좌). 물품대금에 500원이 더해져서 청구되어 출자금에 적립된다. 조합비 제도는 (사)한국생협연합회 회원조합에서만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가칭 성남 시민생협의 월 조합비는 기본이 2만 3천원이다. 여기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2천원 인하, 물품대금과 조합비를 CMS 자동이체로 결제하면 또 3천원 인하된다.

회원가입은 인터넷을 이용한다. 인터넷으로 해당지역 생협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지역 생협 사무실과 전화로 상담한다. 그 후 지정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신입회원 관리 및 오리엔테이션은 조합실무가 전화통화로 하며, 생협가입 관련 유인물들을 우편으로 발송해주고, 처음 1~2개월간은 관심을 가지고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 (다) 단체 활동

소모임 활동으로는 마을 모임과 아토피 모임이 있다. 두 모임 모두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모임 당 참여조합원 수는 약 4~8명 정도이나, 실제 모임에 참여하는 회원은 들쭉날쭉하다. 조합에서 소모임 1회당 2만원 상당의 생협 시식물품을 지원하므로, 생협물품을 시식하면

서 생협관련 정보와 기타 생활주변의 정보를 교환한다. 참여조합원 대부분이 미취학 아동들을 동반하므로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조합원들 상호간의 친목도모가 이루어진다. 또 부정기적으로 외부강사(다른 생협의 활동가)를 초빙하여 식품안전교육도 가진다. 소모임은 반드시 생협 조합원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이웃이나 친구의 참여도 환영한다.

### (라) 협력 단체 또는 기구

지역 내 다른 단체와의 직접 연관은 없다. 성남 시민생협은 2004년 4월 총선 전에 성남시내의 시민운동단체로부터 총선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세우는 후보 지지운동을 한시적으로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았으나 일체의 정치적 활동은 지양하기로 준비위원회에서 의결하였기 때문에 거절하였다.

다만 생협연대조직인 '한국생협연합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1회 지역별(수도권)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연간 수차례의 공동행사가 있다.

다른 단체와 협력하는 사업으로는 성남시 학교급식 개선, 상조회 활동 등이 있다. 가칭 시민생협은 학교급식 개선과 조례 제정을 위한 성남 운동본부에 동참하였다. 또한 생협연합회 소속의 모든 지역조합의 전체 조합원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상조회('우리농업지킴이' 상조회)에 참가하고 있다.

### (마) 농산물 거래

농산물 거래는 인터넷 쇼핑과 전화주문을 이용한다. 배달(공급)은 집 현관까지 공급자가 직접 해준다. 대금 지불 방식은 후불로 CMS자동이

체, 현금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 신용카드결제 등을 이용한다.

#### (바) 애로점

일반 매장에서의 구매는 필요한 때 언제든지 가서 구입할 수 있지만, 생협물품 이용은 주문·발주되면, 생산지에서 물류 센터로 이송하므로 공급이 최소 3일은 걸리게 된다. 물류 처리의 방식과 시간이 문제인 것이다.

### 6) 농협의 농산물 직거래운동 : 성남 낙생농협의 사례

낙생농협은 지역농협(이전의 용어로 단위농협)으로써,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된다. 낙생농협은 본점과 미금동, 신기동, 오리동의 3개소 지점이 있다. 직거래 매장은 본점, 미금, 신기동에만 있고 오리동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 (가) 조직

직원은 본점 4명(상무 1, 계장 2, 판매원 2), 미금 2(판매원 2), 신기동 2(판매원 2)로 총 8명이 배치되어 있다. 직거래 운동은 농협의 활동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 (나) 조합원

조합원은 이농민 중에 일정한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게 한하여, 농협 이사회에서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기타 자격 조건을 심사하여 조합원 가입

승인 여부가 판가름난다.

출자금은 1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현재 1,400명 조합원이 낸 총 출자금은 약 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출자금은 약 320만원에 해당한다.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으로 10%를 제공하며, 이용고 배당 역시 10% 선에서 이용 실적의 점수에 따라서 배당한다. 다른 농협의 배당 수준에 비하면 낙생 농협은 약간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신규 조합원이 없어, 신규 조합원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다. 오히려 조합원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판교 개발에 따라서 올 10월까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조합원이 대폭 축소될 것이다.

#### (다) 활동 내용

농협과 관련되는 관내 조직은 영농회, 부녀회, 작목반 등이 있는데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산물 직거래는 농협의 많은 업무들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 (라) 협력단체

낙생 농협의 협력단체는 성남시 산하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인연합회, 성남시 농촌지도자연합회, 성남시 화훼총연합회 등이다. 식품개발 연구원이 인근에 있어, 예전에는 직거래 장터도 열곤 했으나 현재는 거의 관계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단체와의 관계는 없으며, 사회복지단체에는 지원활동을 한다. 농협 내부 조직 중에서 '주부대학생동창회'가 있는데, 이 동창회에서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을 한다. 또한 이 동창회는 다른 지역 농산물을 공동구매하기도 한다. 작년의 경우 2-3천만 원 정도의 타 지역 농산물을 공동구매하였다.

### (마) 농산물 판매

농산물 판매는 크게 '매취'와 '수탁'으로 구분된다. 낙생 농협 관할 구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구입하여 판매하고, 관내 농산물을 수탁판매하고 있다. 타 지역 농산물을 일정량 매취하여 관내 주민에게 매장, 즉 '신도불이 창구'를 통하여 판매한다. 신도불이 창구는 직거래의 한 방식이다. 신도불이 창고는 본점, 미금, 신기 등 3곳에 있다. 신도불이 매장 외에도 직거래 장터, 물류센터가 있다. 직거래 장터는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4월에서 11월말까지 매장 3개소에서 개설하는데, 주로 관내에서 생산된 채소와 강원도 지역에서 매취한 정육을 판매한다. 물류센터 공급은 주로 수탁 판매의 유통경로에 해당한다. 관내 농산물을 주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공급한다.

### (바) 애로점

낙생 농협은 농민의 감소, 농산물의 국제경쟁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신도시로 개발되면 농협이 전개하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산물의 국제경쟁으로 말미암아 농업이 위축되면서 농협의 위상도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농협의 직거래운동도 빛을 잃고 있다.

## 3. 비교분석과 결론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농촌 살리기 운동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주민

들의 공동체 운동과 연결될 때 보다 더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다. 도시 주민들의 지역 만들기 운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본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도시주민들의 지역 만들기 운동의 수단이기도 하고, 목표이기도 하다. 즉 다양한 지역만들기 운동 과정에서 농산물직거래운동이 자연스레 발생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상생’, ‘공생’의 이념 속에서 농산물 직거래운동을 펴기도 하였다. 전자는 지역공동체 조직 운동 (community organizing)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공동체 조직 운동(organizing community)라고 할 수 있다(Stall and Stoecker, 1998).

농산물 직거래 운동이 사회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농촌 살리거나 유통개선이라는 차원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사회적 교환으로서의 농산물 직거래라고 부를 수 있다. 이것은 위에서 말한 지역공동체조직운동이나 공동체조직운동 모두를 포함한다. 어느 것이든 같은 성원들의 ‘폐쇄적인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다양한 집단들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열린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열린 사회적 자본은 끼리끼리 집단을 넘어, 집단간의 경계를 넘어 전체 사회의 협동과 소통에 기여하게 된다(Putnam, 2000). 본고에서는 그래서 생협이라든가, 농민운동지원단체와 같은 전통적인 농산물직거래 단체 뿐 아니라 사회조직들의 농산물직거래운동을 공동체운동 차원에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여성운동, 주민운동, 빈민운동, 환경운동, 농협, 지자체 등이 포함되었다. 같은 생협이라는 틀에 이들을 묶어서 고찰하기 보다는 이들 단체들의 다양한 경험, 사회적 배경, 성원들(constituency)의 분포 등을 살펴 볼 때 농산물 직거래 운동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포드주의에 맞서는 생협운동이라는 유통중심적 설명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운동으로서 특

히 공동체운동으로서의 농산물직거래운동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공동체를 닫힌 공간 속의 실체로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와 같이 느슨한 조직도 포함하였다. 지자체 그 자체를 공동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지역의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주목하여 지자체의 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다. 형식 보다는 내용이나 과정을 중시하여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조사된 강남구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지자체가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나선 것은 중앙정부의 독려가 가장 큰 계기였다고 한다. 이것을 볼 때 지역공동체 운동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심 여하에 따라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자체는 도시 지자체, 농촌 지자체 간의 협동에서도 기존 행정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지자체는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직접 담당하지 않고 제도적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사무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민우회 생협은 지역의 주부들을 기반으로 한 여성운동의 일환이다. 여성민우회가 중앙에서 지방으로 발판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 것도 이 생협이다. 여성들은 자녀교육자, 어머니로서 남성들보다 공동체 지향적이다. 공동체지향성은 농산물직거래운동, 안전한 농산물 운동, 도농교류 공동체 운동에 쉽게 접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민우회의 생협운동은 단순한 유통개선 운동이 아니라 공동체지향운동이다. 실제 여성민우회 생협은 주부, 어린이가 들을 대상으로 숲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민우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 운동, 학교급식운영위 운동도 전개하였다.

땅 모임 생협은 한살림에서 일부 회원과 생산공동체가 독립하여 1993년에 설립한 단체이다. 한살림 활동 방식에 반대하는 회원 200 여



명이 일부 생산자와 함께 공동체를 결성한 것이다. 이 생협은 조합원의 주체적 활동을 중시한다. 생산지 견학과 같은 통상적인 생협활동 뿐 아니라 강좌, 독서모임, 영화보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강좌에는 요리, 안전한 농산물, 아토피질환, 식품과 유해물질, GMO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다. 독서모임에서는 자녀교육, 성문제, WTO, 경제성장, 남녀관계, 여성해방신학, 오만한 제국 등 다양한 주제의 책이 읽혀지고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사회를 폭 넓게 이해하고 비판적 시각을 구비하게 된다. 비회원을 향해 닫힌 조직은 아니지만 조직원내에 공동체 정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민생협은 주민교회라는 종교기관을 이념적, 조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교회의 신도가 중심이 된 생명문화창조운동이 이 생협의 출발점이었다. 종교이념을 배경으로 하면서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교회의 지역사회공헌 활동과 이 생협운동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기관에서 출발하였지만 마을위원회 모임을 통해 이 생협은 끊임없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 조직을 통한 마을지기 모임이라는 조직체계까지 갖출 정도이다. 마을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지방조례제정 주민 발의까지 추진할 정도로 조직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 생협은 주민교회, 주민신협, 성남 자활후견기관, 외국인 노동자의 집, 은행골 우리집, 이우학교 등 여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개방적 사회자본, 연계적 사회자본을 만들어 가는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성남 시민생협은 현재 준비단계의 조직이다. 시민생협도 지역 그 자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운동이다. 소모임을 통해 도시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낙생농협의 직거래운동은 기존 농협 점포를 이용한 것이다. 직거래

〈표-1〉 사례연구 대상의 비교

	강남구청 직거래	여성민우회 생협	땅모임 생 협	주민생협	시민생협	낙생농협
농산물 직거래 정도	하	상	상	상	상	하
이념	없음	여성주의 협동주의 환경보호동	협동주의 환경운동	협동주의 환경운동	협동주의 환경운동	농업주의 협동주의
성원내부 공동체 정도	하	상	상	상	상	하
타단체와의 연대	하	중	중	상	하	하
지역 공동체 기여도	하	상	상	상	중	하
생산자 조직과 연대	하	중	상	상	중	중

장터는 정기적으로 매주 수요일, 4월에서 11월말까지 낙생농협 매장 3개소에 개설한다. 농협의 농산물 매장은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직거래운동은 매우 보조적 위치에 머물고 있다. 농협의 농산물 유통 사업은 도시의 지역공동체 운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으로 서울과 성남의 몇 개 사례를 중심으로 농산물직거래운동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단체의 이념, 회원, 역사 등이 서로 다르므로 직거래운동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단순한 농산물 직거래운동이 아니라 소모임운동,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계, 지자체와의 연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사례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본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농산물직거래운동은 단순한 대안유통 차원이 아니라 사회관계 또는 인간관계회복과 같은 공동체적 성격을 지녔음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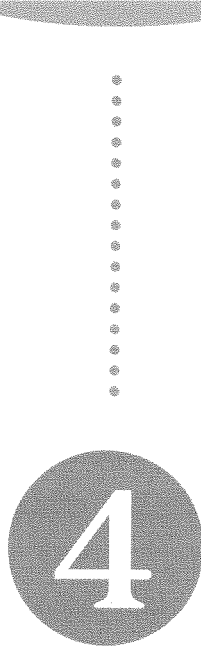
이상의 사례들을 몇 가지 지표로 비교하여 보았다. <표1>에서 보듯이, 농산물 직거래 운동의 정도, 이념, 성원내부의 공동체 정도, 타 단체와의 연대, 지역공동체의 기여도 등으로 비교해 보았다. 물론 여기서 상중하의 척도는 연구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만들기와의 연관 속에서 사례들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여타 단체와의 연대, 지역공동체의 기여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주민생협이 지역만들기 운동과 가장 잘 결합되어 있으며 생협으로서도 성공적이라고 판단된다. 생협으로서의 성공이라고 할 때 경제적 수치타산보다는 생활협동조합이라는 이념을 어느 정도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가를 중시했다. 즉 성원내부의 공동체 정도, 타 단체와의 협력과 연대 등을 중시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농협이나 지방자치체의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시민생협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 표에 나타난 평가는 잠정적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직거래 운동에 참가하는 단체들의 이념도 다양하지만 활동 형태도 다양하다는 점이다. 농산물 직거래 운동을 단순히 농산물 유통 개선 운동으로만 보아서는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없다. 위 표에서 보듯이 농산물 직거래 운동은 공동체 운동과 일맥 상통하고 있다. 사회가 개인화되고 있지만 공동체적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산업화, 도시화 사회에서의 공동체적 욕구 때문에 만들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전근대적 공동체 즉 자연의지에 입각한 강압적 공동체와는 다르다(Etzioni, 1996a, 1996b).

끝으로 이러한 공동체 운동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번 면접에 응한 단체의 사람들은 농산물직거래운동단체들이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당국자들은 농산물직거래운동단체들을 유통단체로서만 파악하지 않고 공동체운동조직이라는 특성을 인정하고 제도적 장애, 법률적 장애들을 제거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4

## 대안적 유통운동으로서의 생활협동조합



# 대안적 유통운동으로서의 생활협동조합

김기섭(생협수도권연합회)

## 1. 머리말

포드주의적 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가 우리 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속에서, 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대안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 이하 '생협' 혹은 '생협운동'이라 함)이 주목받고 있다.

이 논문은 첫째, 우리 사회에서 생협운동이 발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생협운동이 세계 -

특히 서구와 일본의 경우 - 의 다른 소비자협동조합운동과 같으면서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속에서 그 독특한 특질을 설명하며 셋째, 이러한 생협운동이 대안 유통운동적 측면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 넷째, 현시점에서 생협운동이 지니는 과제와 그 과제의 해결 방향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생협운동의 역사적 경과와 특질, 현황과 역할, 향후 과제와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생협운동이 발흥하게 된 배경과 조건

### 1) 사회경제적 배경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장기간에 걸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1962년에 시작된 군부독재에 의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8.6%대로 이끌어왔으며, 1970년부터 2002년까지도 그 정도는 조금 둔화되었다 해도 7.3%라는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지난 40여년간 우리나라의 인구는 2배로 늘어난 반면, 1인당 국민소득은 150배, 자동차 등록대수는 840배나 증가하였다. 참으로 세계가 놀랄만한 경이로운 ‘기적’이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농업에서 벗어난 산업화 과정, 그 과정을 통해 얻어진 공업생산물의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농촌으로부터 유입된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중화학공업 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시장에 내다 파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산업화의 나라에서 겪었으며, 또한 초단축 성장 모델인 우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산업화 과정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농촌과 농업의 붕괴,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빈부의 격차, 그리고 환경의 오염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외부적으로 1980년대는 세계화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9월에 시작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우루과이에서 자유무역을 위한 신다각적 무역교섭을 시작한 이래 - 일

명 우루과이 라운드 -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켰다. 우루과이 라운드는 국경 없는 재화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것이었지만, 최소한 WTO를 출범시키기 이전까지의 그것은 지적 소유권 등의 서비스 분야와 농산물 분야에서 무역 자유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막대한 보조금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미국의 농업과 그 생산물이, 단지 가격 우위성만으로 다른 나라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게 제도화되었으며, 그 결과로 산업화 과정에서 경쟁력 저하를 강요당한 우리의 농업은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오염된 수입 농산물에 의해 우리의 생명은 더욱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안으로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야기된 농업과 농촌의 붕괴,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난 환경과 먹거리의 오염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의식이, 오염된 수입농산물의 대거 유입이라는 도래할 상황 하에서 더욱 고조되었던 것이 1980년대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 2) 내재적 조건

밖으로는 이러한 1980년대의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 그리고 안으로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와 과제를 담당할 새로운 주체의 형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서 생활협동이 발흥할 수 있었다.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은, 다른 한편으로는 농촌의 공동체로부터 유리된 도시의 주민, 노동자, 시민을 형성시켰고, 생산으로부터 분리된 소비의 고유 영역을 태동시켰다. 전통적 농업사회에서 도시는 주변의 농촌에 둘러싸인 존재였고, 노동자는 극히 일부분의 영역에서만 존재 하였으며, 전체주의적인 미망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이

면서 동시에 자기 생활의 조직화 주체라는 의미로서의 시민은 채 형성되지 못했다.

산업화 과정 이전의 소비는 생산을 위한 도구였으며, 생산에 의해 지배받는 구조였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장 보드리야르가 지적한 대로, 생산이 오히려 소비에 의존하는 관계로 바뀌어갔다.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으며, 제조업보다는 유통과 상업 부문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기 시작했다. 일명 ‘소비의 사회’가 도래한 것이고, 소비 사회의 주체인 ‘소비자’가 대두하기 시작한 것이다.

### 3. 한국적 생협운동의 특징

한국사회의 산업화 과정이, 한편으로는 농촌과 농업의 붕괴, 그리고 농산물의 세계화한 유통으로 인한 먹거리 오염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생협운동의 필요조건을 마련했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생산에서 소비의 시대로 이전하면서 소비자를 대두시키는 충분조건을 갖추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협운동 발생의 필요충분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생협운동은 서구나 일본의 생협운동과는 ‘같으면서도 다른 나뉠’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 1) 서구의 소비협동조합

1844년 영국의 랭커셔주 맨체스터에서 최초의 근대적 소비협동조합인 ‘룻치데일 공정 선구자조합’이 태동한 이래로, 서구 특히 유럽의 소비협동조합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전체 소매업에서 차지하는 소비협동조합의 점유율이 20-50%를 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구 소비협동조합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지금 안팎으로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에 의한 인적 결합체이고, 일반기업은 자본가에 의한 자본의 결합체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이 그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반면, 일반기업은 자본에 대한 이윤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과 일반기업의 이러한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비추어지는 서구 소비협동조합의 지금 모습은 협동조합도 일반기업과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인다.

G. 메르니크는 현재의 협동조합이 시스템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운동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협동체 건설을 위한 '유토피아적 단계', 룯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으로부터 시작된 '운동의 단계', 그리고 협동조합이 발전 성장하여 그 자체의 구조를 지니게 되고 따라서 자체 구조의 유지가 주된 활동 목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 단계'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 제3세계의 협동조합과 서구의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기존의 대부분의 협동조합이 이러한 시스템 단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 단계의 협동조합이 지니는 특징은, 다양한 인간의 욕구를 기능별로 조직한 협동조합이 그 대부분이며, 사업면에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조직이 관료화되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인간의 다양한 요구를 기능별로 조직화한다는 그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기능별로 조직화함으로써 전문성과 합리성이 추구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별 조직들이 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횡적 연대를 이룰 때 협동조합 지역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기능별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횡적 연대를 이루기보다는 기능별 협동조합간의 계통화를 통한 종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즉 전국적 차원에서의 피라미드형 구조를 지니게 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동일한 지역사회에 위치한 협동조합들이 상위 조직의 명령과 지령에 따라 동일한 시장을 놓고 서로 경쟁하며, 동일한 지역 내에서의 협동조합간 연대란 찾아보기 힘들게 된다.

본래 협동조합의 계통화는 단위조합이 담당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합조직에 의해 보다 큰 규모의 경제성을 획득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계통화는 단위조합 즉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다. 문제는 조합원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고 따라서 지역사회에 보다 밀착되어 있어야 할 단위조합이, 계통화된 연합조직의 지부나 지점 정도의 역할밖에는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화와 집중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기업과 비교해 협동조합이 지니는 우위성, 즉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협동경제의 효과가 발휘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사업 방식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위조합은 연합조직의 종속적 위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협동조합의 관료화를 낳게 되는 것이다.

시스템 단계에서의 협동조합이 관료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협동조합의 위와 같은 기능별 계통화에서 뿐만 아니라, 단위조합의 통합과 단일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단위조합이 그 사업과 조직면에서 거대화되었다고 했을

때, 그것이 필연적으로 협동조합의 관료화를 낳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접어들면 사업의 기능이나 조직 기반을 분화시켜, 조합원으로 하여금 주체적 참여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사업적 측면에서의 연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획득하고 있는 많은 협동조합이 실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분화와 연대를 통한 조직 및 사업의 확대가 아니라, 통합과 단일화의 방향으로만 조직 및 사업을 거대화한다는 데 있다. 이렇게 형성된 거대화된 협동조합은 필연적으로 조합원의 참여와 창의성 발휘를 잃게 되며, 조합원의 조직력과 이용집중의 경제적 효과를 후퇴시켜, 급기야는사업의 유지를 위해 더욱 전문화된 관리집단을 요구하고, 이들에 의한 협동조합의 관료화를 야기한 다. 협동조합이 점차 일반기업과 차별성을 상실해 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의 관료화는, 기능별 협동조합의 계통적 지배와 피지배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단위조합의 통합과 단일화로 인해 발생한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의 관료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능별로 조직된 협동조합의 경우는 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협동조합간의 상호 연대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과 조직기반을 지닌 단위조합의 경우는 그 사업의 기능이나 조직 기반을 분화시켜, 조합원으로 하여금 주체적 참여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며, 사업적 측면에서의 연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노력 속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sup>1)</sup>.

## 2)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비협동조합은 큰 발전을 이루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는 더 나아가 조합원으

로부터 유리되고 지지받지 못하는 협동조합으로 파산하거나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의 소비협동조합에 대한 반성과 대안의 모색 과정에서 주목받는 것이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이다.

### (가) 일본 생활운동의 역사와 현황

일본에서 생활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치유신 이후, 롯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몇몇 선각자들에 의해 소비재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나누어 쓰기 위한 소형 점포들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기독교 사회주의자이고 노동운동가이며 특히 협동조합운동가였던 가가와 도요

1) 이렇게 시대와 상황이 변화하는 속에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원재활운동, 유기농업운동, 환경보호운동, 적정기술운동, 소공동체운동, 자연건강운동, 노동자자주관리제, 주민자치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운동의 태동 속에서 1980·90년대에 들어 협동조합내에서도 새로운 흐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의 출현과, 기존 협동조합의 변신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992년 ICA 제30회 도쿄대회에 제출된 보고서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협동조합의 가치」(일명 베이크 보고서)에서는, 90년대 협동조합을 둘러싼 배경의 하나로 70·80년대부터 시작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의 출현을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①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경우에 따라 지방정부의 협력을 얻어 고용과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②여성·청년·신체장애자 등을 위한 혹은 그들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협동조합 ③건강식품, 자원절약제품, 무농약제품, 지역의 자립 등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협동조합 ④설계사, 정보기술자, 경영분석가 등과 같은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들에 의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 ⑤탁아소, 노약자 보호, 예방적 의료, 알콜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치료 등과 같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협동조합 ⑥영화제작자, 연극인,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동조합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문화협동조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출현이 비록 아직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였고 따라서 많은 경우 비공식적 조직형태를 띠고 있다 할지라도, 생활의 질적 향상과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을 그 궁극적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번째 흐름은 기존 협동조합의 변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변신의 내용은 단일기능적 협동조합이 다양한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다기능적 협동조합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동일한 지역사회내에서 협동조합간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 위에서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거나 그 일부를 기존 협동조합 안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984년에 개최된 제28회 ICA 함부르크 대회에서는, 협동조합이 앞으로 활동해가는 데 있어 지침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평화를 위한 투쟁, 발전도상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원조, 식량과 원료와 에너지의 생산과 분배구조의 개선, 환경보호의 네 가지를 채택하였다. 이는 앞으로 협동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경제적 이익의 양적 증대라기보다는, 인간이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생활의 질적 향상과 자연과의 공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존의 협동조합이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협동조합이 재조직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히코(賀川豊彦)에 의해 1921년 고베(神戸)시를 중심으로 세워진 고베소비조합과 나다구매조합은 주목할 만 하다. 가가와와는 협동조합을 공익공락(公益共樂), 인격경제(人格經濟), 자본협동(資本協同), 비착취(非搾取), 권력분산(權力分散), 초정당(超政黨), 교육중심(教育中心)을 바탕으로 한 사랑과 우애의 경제라 주장하면서 당시 궁핍한 생활에 허덕이고 있었던 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조합을 설립하는데 노력하였다.

그의 영향을 받아 일본 전국에서 많은 소비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회주의자들의 온상으로 주목받아 군부로부터 탄압받고, 취급할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시체제하에서의 배급제 시행으로 인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부분 해산당하고 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생협의 발전은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생협운동의 고양기는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에 이르는 시기로서, 전후 심각한 식량위기 속에서 마을과 직장 단위로 필요한 식량을 함께 확보하기 위해 소규모 자발적으로 소비조합이 만들어졌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소비조합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설립되고, 재정 경제정책면에서 긴축과 기업재편, 통제경제체제의 폐지 등의 영향을 받아 설립된 지 얼마 가지 못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여 해산하거나 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일본의 생협운동은 제2차 고양기를 맞이한다. 한국전쟁 특수가 가져온 극심한 디플레이션 속에서, 탄광노동조합과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까지를 포함하여, 생활보호운동의 일환으로 생협을 만들어간 시기가 바로 이 때이다. 그러나 이렇게 노동조합을 주 근거로 형성된 많은 생협들은, 1960년대 들어 유통업체들이 슈퍼마켓 등과 같은 방식으로

근대화해가는 속에서, 생협이 일반 유통업체와의 경합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차 경영파탄에 빠지게 된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노동조합 중심의 생협이 별로 활발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노동조합원이 아닌 순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그들의 요구에 기초한 시민참가형 지역생협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1970년대 들어 각지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이 시기 이후를 일본 생협운동의 제3차 고양기라 부르며, 이 시기에 설립된 생협들이 지금 현재까지도 일본 생협의 주종을 이루며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2002년 현재 일본 생협운동의 현황을, 일본내 생협의 전국조직인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1>과 같다. 2002년 현재 일본의 생협은 571개 조합, 2,177만의 조합원을 지닌 일본 제1의 소매유통업으로 성장해 있다.

#### (나) 일본 생협이 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

세 차례의 고양기를 맞이하면서 일본의 생협운동이 크게 성장하였다 했을 때, 이 시기에 생협운동을 둘러싼 사회적 국민생활적 배경이 어떠한하였나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일본 경제는 1960년대에 들어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비약적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성장의 뒤편에는 경제성장 지상주의의 폐해로서, 농촌의 과소와 도시의 과밀 문제, 소비자피해(유해상품피해) 문제, 공해 및 환경문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민의 생활은 고도경제성장 이전의 전통적인 농촌공동체 생활과 분리되었고, 내구성 소비재의 보급과 더불어 생활이 편리해진 면은 있지만 상품구매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소비생활로 변화하였으며, 침

〈표-1〉 최근 3년간의 일본 생협 현황

항목	단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수치	전년비	수치	전년비	수치	전년비
1. 회원생협수	생협	588	96.9	574	97.6	571	99.5
구매	생협	458	97.7	446	97.4	443	99.3
의료	생협	119	95.2	118	99.2	119	100.8
공제·주택	생협	11	84.6	10	90.9	9	90.0
2. 조합원수	천명	21,038	101.1	21,305	101.3	21,774	102.2
구매	천명	17,698	101.2	17,913	101.2	18,429	102.9
의료	천명	2,260	108.0	2,370	104.9	2,398	101.2
공제·주택	천명	1,080	88.2	1,022	94.6	947	92.7
3. 총사업고	백만원	3,285,656	98.9	3,273,852	99.6	3,282,807	100.3
공급고	백만원	2,935,323	97.9	2,903,729	98.9	2,903,199	100.0
이용고+그밖의 사업고	백만원	350,333	108.1	370,123	105.6	379,608	102.6
4. 구매생협 사업고	백만원	3,017,677	98.4	2,990,301	99.1	2,998,021	100.3
5. 조합원 1인당 이용고	엔	14,360	96.4	14,067	98.0	13,787	98.0
6. 구매생협 공급고	백만원	2,871,456	97.9	2,841,297	98.9	2,899,557	102.1
가운데 점포공급	백만원	1,272,150	95.9	1,294,542	101.8	1,267,316	97.9
가운데 무점포공급	백만원	1,375,299	102.5	1,428,997	103.9	1,455,842	101.9
7. 의료생협 사업고	백만원	255,280	110.1	270,400	105.9	271,750	100.5
8. 주택·공제생협 사업고	백만원	12,699	51.6	13,151	103.6	13,036	99.1
9. 조합원 출자금	백만원	507,950	105.1	530,029	104.3	557,840	105.2
구매	백만원	456,556	104.7	476,412	104.3	503,421	105.7
의료	백만원	47,346	113.4	49,713	105.0	50,052	100.7
공제·주택	백만원	3,944	97.2	3,904	99.0	4,192	107.4
10. 조합원 1인당 출자금	엔	24,144	103.8	24,878	103.0	25,620	103.0
구매	엔	25,797	102.9	26,596	103.1	27,317	102.7
의료	엔	20,950	104.9	20,976	100.1	20,872	99.5
공제·주택	엔	3,652	110.1	3,820	104.6	4,426	115.9
11. 조합원 차입금	백만원	108,043	99.6	101,580	94.0	91,675	90.2
12. 점포수	개	2,611	95.9	2,688	102.9	2,686	99.9
13. 매장 면적	m <sup>2</sup>	1,562,847	96.0	1,683,752	107.7	1,637,831	97.3
14. 정규직원수	명	55,375	96.9	52,189	94.2	53,465	102.4
15. 생협의 소매 점유율	%	2.68	101.5	2.73	101.9	2.88	105.5

주)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 발표자료(2003) 참조

가물을 다량 투입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상품이용 생활과 공동의 소비 수단을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하는 도시적 생활양식으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는 이러한 고도경제성장의 모순이 모든 생활에서 드러난 시기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환경운동, 주민운동, 소비자운동 등이 나타난 시민운동의 전면적 개화기였으며, 그 한 중요한 부분으로 생협운동이 출현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생협이 발전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 대해 몇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협의 활동기반인 도시부의 인구증가가 생협 발전의 배경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960년대 이후 일본의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의해 농촌으로부터 2차 산업부문으로 다량의 인구가 유입되면서 도시 생활자들이 급속히 늘고, 이것이 생협의 도시부 조직기반을 형성해 주었던 것이다.

두 번째로 19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르는 모순, 즉 인플레이션, 공해, 유해식품 등의 문제가 사회 전면에 분출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중운동과 생협의 역할이 선명성을 더해갔다.

세 번째로 국민소득의 증대가 소비의 확대를 가져왔다. 유통혁신이라는 유통근대화 노선이 유통의 구조적 변화를 낳았으며, 대량소비와 제3차 산업의 확대라는 생협의 사업적 활동기반 또한 넓어졌던 것이다.

네 번째로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1970년대 후반부터 가정을 지니기 시작하면서 지역의 소비자로서 생협에 참여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이러한 일명 '단지세대'가 생협에 참여하는 주된 조합원층을 형성하고 있다.

#### (다) 일본 생협이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

세계적의 많은 협동조합들이 혼란과 정체에 빠져있는 속에서 일본의 생협운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과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일본 생협운동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조합원 자신의 활동을 기초로, 조직으로서는 반(班), 사업으로서는 공동구입을 중심으로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급속히 발전하여온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반이란 세계적으로도 'HAN' 이라는 고유명사로 통용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는 조합원이 필요한 소비재를 생협을 통해 구입하되 구입하는 최소단위를 조합원 개개인이 아니라 인근 주민 3-5명이 함께 결성한 반이라는 조합원 기초조직을 통해 구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반을 통해, 일상적 사업의 영역에서는 생협에의 주문과 주문받은 물건의 개인별 분배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집행해주고, 조직운영의 영역에서는 생협의 운용과 활동에 대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조합원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운동의 영역에서는 지역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가는 최소 기초 단위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반과 생협간의 사업적 결합 방식 즉 업태가 다름 아닌 공동구입인데, 이는 서구의 소비협동조합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일본 생협만의 또 하나의 특질이다. 공동구입은 점포를 지니지 않고 조합원에게 필요한 소비재를 창고에서 조합원들의 반으로 직접 배송 공급하는 형태의 업태를 지칭한다. 일본의 생협은 공동구입이라는 업태를 통해, 고정 자산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일본 생협은 이 공동구입을 통해 사업적으로는 재고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품질 좋은 소비재를 유통시킬 수 있고, 물류에 필요한 비용과 인건비를 많이 절약

할 수 있으며, 조합원의 계획소비와 소비의 집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보다 큰 장점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 생협운동의 이러한 특징이 어떻게 생협운동의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고도경제성장이 가져온 모순과 이의 극복을 바라는 소비자들의 생활로부터의 요구, 다시 말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취급해 들어감 - 생협 자체의 private brand로써 co-op 상품을 개발·공급 - 으로서 조합원의 요구를 구체화시켜냈다.

② 조직의 대상을 여성, 특히 생활의 직접적 책임자이며 육아를 담당하는 주부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조직하고 상품, 조직, 사업의 종합적 정책을 1970 ~ 80년대의 사회변화와 생활변화에 정확하게 연결시켰다.

③ 지역에 밀착하고 생활협동조합다운 모습을 구체화시키는 '출자, 이용, 운영참가'<sup>2)</sup>를 조직 활동의 중심에 설정하고 자발적인 조합원 활동을 조직하여 생협운영에 적극 반영시켜왔다. 출자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출자금에 의해 대부분의 사업을 위한 자산을 형성하며, 생협운동에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 점이 이에 해당한다.

④ 조직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다른 조직이나 행정으로부터 자립하

---

2) 협동조합의 사업이 지니는 강점은 조합원이 이렇게 출자, 이용,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성과 동시에 조직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유럽의 많은 소비조합은 출자금 납부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더우기 조합원 아닌 사람이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원외이용(員外利用)에도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는다. 이는 얼핏 보아 사업의 전체 이용고를 높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에 대한 귀속감 즉 자기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조합으로의 이용집중도 기대하기 힘들게 만든다. 유럽의 많은 소비조합이 자체사업안에 금융 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굳이 조합원의 출자금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조합원은 한낱 고객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조직력의 효과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유럽의 많은 소비조합이 도산하거나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여 조합원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킨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⑤ 유통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생협 자신의 사업운영 기술을 충분치는 않을지라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조합원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사업과 운영역량을 형성하여 기술혁신과 시대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왔다. 조합원이 참여하고 협동한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는 공동구입 업체의 확립, 점포의 근대화화 시스템의 정비, 생협간 연대의 촉진, 그리고 이와 같은 역량을 마련하기 위한 인재의 육성 등에 노력해왔던 것이다.

⑥ 생협의 임직원이 생협운동에 대해 비전과 자신감을 지니고 노력해왔다. 생협의 직원은 단순한 임금노동자라는 자세에서 벗어나 생협운동에 함께 참여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다. 따라서 선구자적 의식을 가지고 어려운 노동조건속에서도 생협발전을 위해 자신을 투신해왔고, 실제로 이러한 직원들의 헌신성이 많은 지역 소비자들을 감동시켜 생협을 넓혀가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의 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단지 수혜적이고 고객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조합원 스스로가 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높은 조직력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조직력을 기초로 효율적이고 조합원 참여적인 물류로서 공동구입을 형성하였으며, 협동조합의 운영에서도 조합원 참여를 적극화시켰다는 데에서 그 발전과 성장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이 시장경제 원리로 운영되지 않고 조직과 사업면에서 협동조합다운 모습을 견지해나갈 때만이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극히 상식적이지만 실천해내기 어려운 원칙을 일본의 생협운동은 전 세계에 성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라) 일본 생협의 직거래 활동

일본 생협이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생협과 외부 특히 생산자와의 관계에서 기존의 시장 유통을 넘어선 직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생협의 직거래 활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의 직거래 활동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재를 바라는 조합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유기, 무농약, 저농약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계약 구매하는 방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직거래를 경제이론적 시각에서 접근해보면, 유통단계의 축소에 의한 가격의 안정으로 이해되기 쉽다. 그러나 일본 생협에서의 직거래 활동은 그 발생초기에서부터 경제적 측면의 요구보다는 내용과 품질적 측면의 요구가 많았다. 즉 일반시장에서는 기본적 거래물량도 되지 않고 규격에도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조합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물품을 개발해 갔으며, 따라서 유통에서도 소규모이고 개별적인 생산자와의 거래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생협의 규모가 커지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생협의 직거래 활동 또한 조직적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두 번째 단계에서의 생협의 직거래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에서의 생협 직거래 활동이 지니는 특징은, 이전 단계에서 지녔던 직거래 활동의 목적, 즉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취급이라는 조합원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그 방법에서는 기존의 소규모 개별 생산자와의 거래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생활협동조합과 생산지의 농업협동조합이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해 구체화시킨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한마디로 일본 생협에서의 직거래활동은, 유통경로의 단축을 통한

가격안정이라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안전하고 신선하며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자와 연대 협동하여 조합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이를 통해 지역과 국내 농업을 살리고 나아가 조합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보다 근원적인 취지와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인간이 생명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먹거리는 불안감을 들게 해서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있어서는 안 될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분출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도매시장의 정비, 소매단계에서의 대형화·체인화 등에 의해 만들어진 대량 유통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 특화된 품목을 통일적 규격으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다량으로 사용하여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대량소비·대량생산'의 포드주의 체계의 문제다.

소비자들이 바라보는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따라서 생산방식의 문제만이 아닌 유통과 소비의 문제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유통과 소비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거래란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유통과 소비의 변혁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대안적 유통 방식이다. 이러한 직거래를 통해 일본의 생활협

3) 한 예로 일본의 교토생활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직거래 활동의 원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지역에 뿌리내린 직거래를 중시한다. 농산물에 책임지는 농협과 협정, 생산자 조직 및 마을조직 등과 같은 농민조직과 계약, 단품거래에서 산지와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복수품목의 직거래로 발전시켜간다.
  - ②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조직적 협정서를 채택한다. 운동의 목적, 실현 방법, 상호간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 ③ 생산방식에 대해서 안전성과 안심할 수 있다는 점을 추구한다. 사비, 농약의 살포횟수, 종류 등을 명확히 하고 병해충의 발생 등으로 인해 이를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시기에는 서로 의견 교환한다.
  - ④ 생산자와 생활 조합원의 인간적 교류를 친밀히 하여 직거래를 단지 사업이 아닌 운동으로 끌어올린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재정적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요구한다.
- 이와 같은 원칙하에 교토생활협은 그 취급 농산물의 대부분을 생산자 조직과의 직거래를 통해 확보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단지 사업적 측면에서만 아닌 생산자와 생활 조합원간의 교류를 통해 생산현장의 이해와 이용증진을 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은 사업과 조직적 측면에서 조합원으로부터 지지받고, 대안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각광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 3) 한국적 생협운동의 특징

#### (가) 한국 생협운동 역사

한국사회에서의 생협운동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일본에서의 생협운동과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에서의 생협도 세 단계로 나누어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산 및 소비재의 조달을 위해,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소비재 조달을 위한 슈퍼마켓의 변형 형태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도시 소비자들이 중심이 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구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앞의 두 단계는 소비자협동조합(=소협)이라는 이름으로 전개되었지만, 이와 같은 소협운동을 지금과 같은 유형의 생협운동의 출발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몇가지 점이 있다.

소협운동과 생협운동은 같으면서 다른, 즉 생협운동은 소협운동으로부터 나왔지만 소협운동과 다른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소협운동은 ‘소비’의 영역을 최초로 협동운동의 소재로 끌어들이는 운동이었다. ‘생산’과 ‘유통’에 의해 지배받아온 ‘소비’를, 변혁운동의 소재로 끌어올린 최초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생협운동은 소협운동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협운동은 그 운영의 주체가 여전히 ‘남성’이었던 반면, 생협운동은 주체가 ‘여성’으로 변화한 운동이었다. 소협운동은 소비재의 적정 가격을 추구하는 여전히 ‘교환가치’ 혹은 ‘협소한 사용가치’의 운

동이었던 반면, 생협운동은 소비재의 생태적 의미를 발견한 ‘진정한 사용가치’를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나아가 소협운동은 농민이나 노동자의 계급적 동질성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추구하는 반면, 생협운동은 중산층 소비자라는 계층적 동질성은 남아 있으나 기존의 시장을 대신하는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운동이었다.

다시 말해 한국사회에서의 생협운동은 서구 소비협동조합의 150여년 역사, 일본 생협의 80여년 역사를 압축시킨 역사적 경과를 거치며 발전하였고, 이제 세 번째 단계의 생협운동이 그 중심을 이루며 한국사회 생협운동의 특질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표-2〉 한국 생협운동 역사

연도	내용
1979년	최초의 소비자협동조합설립(3. 13. 강원 평창신리조합)
1985년	최초의 공동구입형(무점포형) 지역생협 설립(85. 5. 22. 안양바른생협)
1988년	최초의 대학생협(서강대학교생협) 설립
1994년	최초의 의료생협(안성의료생협) 설립
1994년	최초의 근대적 직장생협(포스코생협) 설립
1997년	최초의 사업연합조직 설립(생협수도권연합회)
1998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1998.12.29)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공포(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8.6)

#### (나) 생협운동의 지향과 실천

안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관계와 자연 생태계의 파괴에 대해, 그리고 밖으로는 밀려오는 저가격 오염 농산물에 대한 자기방어 운동으로서 1980년대 중반에 지금과 같은 유형의 생협운동이

태동하였다.

생협운동은 기존의 사회구조를 밑에서부터 뒤흔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혁명적인 운동이었다. 기존의 사회가 남성·직장인(=노동자)이 중심이었던 데 반해(기존의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많은 정치운동, 노동운동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생협운동은 생활자 - 결과적으로는 전업주부인 여성 - 를 운동의 주체로 전면에 드러냈다. 시장경제 체제안에서의 피동적 소비자로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들을, 의식 있는 개인으로서의 고유명사로 전면에 부각시켰던 것이다.

또한 생협운동은, 산업화 과정이 한 인간에 대해 행해왔던 끊임없는 개인화·개별화 과정을, 공동체 속의 개인으로 재결합시키려 시도하였다.

생협운동은 사회의 변화를 모색하였지만, 지금까지의 사회운동과는 다른 생활운동을 통해서였다. 먹거리라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의 영역에서 하나씩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사업'은 다름 아닌 공동구입이라는 업태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산업화와 시장의 세계화 과정은 생산물의 본래적 가치와는 상관없이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에만 몰두하였다. 인체나 환경에 어떠한 유해성이 가해지더라도, 전혀 생존이나 삶의 질과는 관계없더라도, 그것이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를 조작하여 왔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경제적 가치(=교환가치)에 대해, 생협운동은 새로운 차원의 경제적 가치를 제기하였다. 경제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단지 생산이나 교환을 통해 얻어지는 교환가치만이 아닌, 아니 오히려 하나의 생산물은 그 소비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는, 나아가 소비 과정을 통해 생산과 생산물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용가치의 중대성을 생활협동이 처음으로 제기한 것이다. 생협이 취급 물품을 상품이라 하지 않고 생활재라 하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교환 가치 중심의 자기운동에 현혹됨이 없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진정한 가치를 창출해가는 생활 소재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생활협동은, 생협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생협과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산업화 사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계론을 만들어 나갔다.

산업화 사회에서 개개인의 관계는 시장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보이지 않는 손'인 시장안에서, 개인과 개인은 경쟁적이고 대립적일 수밖에 없으며, 생산과 소비 또한 마찬가지이다. 시장안에서 한 개인은 생산자이거나 소비자,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데, 어느 경우에서든 생산자는 생산자끼리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경쟁할 수밖에 없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생활협동에서의 '나'와 '타자'와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경쟁적이지 않다. 타자 안에 숨겨진 나와 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조직화를 추구하며, 나아가 조직화된 나와 타자와의 공통성, 즉 결집된 구매력을 통해 생산과 상품을 변화시켜간다. 나와 타자는 시장안에서의 경쟁적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정직과 공개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나아가 사회적 책임<sup>4)</sup>으로 묶여진 관계이다. 이는 조직내에서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만 아닌, 생산과 소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장내에서 생산과 소비는 익명성에 기초한 경쟁적 대립적 관계인데 반해, 생활협에서의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회복된 대면 관계를 통한 협의(協議)의 경제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4) 1995년에 개정된 협동조합원칙에서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니는 윤리적 가치를, '성실, 공개, 사회적 책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생협운동은 상품에 대해 생활재를 발견한, 산업화 사회에 대해 농업의 가치와 희생을 주장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작동되는 시장 경제에 대해 생산과 소비의 대면 관계를 통해 협의(協議)의 경제를 회복해가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여성에 의한, 새로운 사회적(→공동체적) 생태적 관계를 모색하는, 구체적 생활영역에서의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한마디로 생활자(⇒운동의 주체), 일상 생활(⇒운동의 영역), 생활재(⇒운동의 소재)로 구체화되는 ‘생활’의 재발견 운동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생협운동은, 서구의 소비협동조합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몇 가지 특질을 지닌다. 서구 소비협동조합에서의 취급 물품은 구매력 결집을 통한 시장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둔 또 하나의 상품인 반면, 우리나라의 생협에서 그것은 상품 자체의 변화에 좀 더 큰 중심이 있다. 서구 소비협동조합에서 생산과 소비의 관계는 여전히 경쟁적·대립적인 관계인 데 반해, 우리나라 생협에서의 그것은 대면 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사회적 협의의 시스템을 마련해가는 것이다. 서구 소비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과 조합원의 관계가 협동조합을 매개로 한 비인간적 관계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운영에서의 조합원 참여가 공식적 의결 과정에서만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 우리나라 생협에서의 그것은 직접적 대면의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일상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는 특질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새롭게 태동한 일본의 생협운동이 지니는 특질을 더욱 철저히 구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한 수정’의 운동이, ‘대안적 시장의 마련’ 운동으로 발전한 경우인 것이다.

#### (다) 생협의 발전

이상과 같은 경과와 특질을 지니면서 우리나라의 생협운동은 많은 발전을 거두어왔다. 초창기 생협운동은, 소수의 의식 있는 몇몇 소비자들의 클럽활동에 불과했고, 생산자와의 관계 또한 개별 생산자와의 동지적 만남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따라서 사업의 규모 또한 미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90년대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외부적으로는 생협운동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 소수의 전유물에서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내부적으로는 열악한 사업 환경과 실무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자구적인 사업적 연합조직의 태동으로 인해, 이제 생협운동은 단지의 의식에 중점을 둔 운동에서 조직과 사업을 함께 갖춘 명실상부한 조합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

2002년 현재의 생협 현황에 대해 생협의 전국단위 조직인 생협전국연합회의 자료에 기초하여 재구성해보면 <표 3>과 같다. 생협별로 많은 편차는 있으나, 이제 지역생협은 평균적으로 조합원 규모 1,400여명(실이용 조합원 700여명), 직원 5명, 출자금 규모 6,800여만 원, 연간 사업고 8.6억여 원의 규모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한 것이다.

## (라) 생협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요인들

여기서 잠깐 한국사회에서 생협운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들에 대해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요구의 반영, 결집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공업화 과정은 수많은 환경과 먹거리의 오염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자각하고 최소한의 먹거리 부문에서라도 안전함을 갈망하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생겨났으며,

〈표-3〉 2002년도 지역생협 현황조사 결과(단위:명,천원)

조합	2001년도				2002년도					
	조합원		출자금	공급액	조합원		정규 직원	출자금	공급액	
	등록	이용			등록	이용				
서울	1.망모임	435	150	37,962	344,527	610	300	4	36,842	540,938
	2.마포두레	151	120	17,645	223,670	298	215	3	29,015	361,215
	3.에코	0				558	208	4	34,985	90,937
	4.한누리	620	200	38,090	354,000	1,004	300	4	62,360	601,466
	5.새터	200		8,286	250,000	280	170	1	9,590	351,810
	6.한울안	1,153	600	150,660	332,477	1,153		3	100,600	357,106
	19.농도	207	20	61,123	7,792	1,011		2	58,610	359,500
	20.영등포노회	346	200	61,710	223,657	379	240	2	6,281	180,975
	21.예장	1,221	400	50,000	580,000	3,000	1,500	18	107,220	2,092,900
	22.정농	2,500	1,000	181,735	953,566	4,138	1,600	6	181,792	1,413,427
인천	7.참좋은	910	300	66,187	882,445	628	517	3	16,290	1,070,780
	8.푸른	1,700		50,950	1,415,741	3,036	2,000	8	107,521	2,421,610
경기	9.바른	3,500	1,000	93,989	1,310,000	4,369	1,510	9	112,560	1,811,152
	10.주민	1,522	1,000	100,000	930,000	1,664	900	6	108,190	1,536,209
	11.고양두레	724	500	30,000	432,000	1,565	900	5	59,000	1,080,000
	12.광명YMCA	250	150	11,200	288,000	250	250	2	14,000	356,513
	13.그린	2,000	980	52,000	890,000	1,500		8	67,806	1,534,149
	14.부천YMCA	547	540	10,642	599,451	1,088	614	4	33,354	797,742
	15.살림터	0				498	200	2	30,225	300,077
	16.드림	1,514	400	92,596	350,921	2,500	1,000	3		
	17.인양YMCA	0				190	190	1	4,800	164,120
	18.복사골	374	100	29,278	314,882	376	180	2	30,997	337,445
강원	24.팔당	500		41,000	251,169					
	23.두루	530		38,334	215,042	461	250	3	39,053	361,326
	25.봄내	257		15,000	225,000					
	26.춘천	242	80							
	27.한살림강릉	1,337	500	52,750	412,356	1,693	900	5		
	28.한살림원주	3,093	2,000	207,845	1,215,660	3,415	2,000	10	215,585	1,509,846
	29.원주	316		58,310	1,018,971					

충청	30.괴산	410	85	78,145	930,000	400	150	3	77,044	987,704
	31.덕촌	222	1,000	75,364	268,912	208	150	2	53,186	256,041
	32.천안	528	200	21,340	2,191,258	683	250	3	47,682	349,128
	33.풀무	400		100,000	210,000	420		6	122,149	3,230,530
	34.청주YWCA	52	40	1,712	38,900					
전라	35.광주	1,460	920	230,000	630,000	5,600	2,000	6	230,000	1,260,000
	36.구례	317	120	30,900	22,235					
	37.전주한울	580	250	26,420	394,803	1,008	400	3	40,000	600,000
	38.한살림여수					508	300	5	1,376	341,000
경상	39.경남	429		25,000	72,000					
	40.부산	314	110	30,000	145,963					
	41.푸른평화	1,200	600	60,000	150,000	655	532	11	64,050	650,000
	42.한살림경남	2,963	1,180	181,644	1,458,909	3,607	1,750	6	200,064	1,812,737
지역생활 계	35,024	14,745	2,417,817	20,534,307	48,753	21,476	163	2,302,227	29,118,383	
지역생활 평균	922	476	65,346	554,981	1,354	671	5	67,713	856,423	

※ 생활전국연합회 조사결과 (2003)에 의함

그 요구를 일반 유통업체보다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결집시켰던 것이 생활협의 발전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 ② 물류와 하나된 피라미드형 조직구조

소비하는 힘을 결집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운동은 그 조직 형태를 피라미드형의 조직을 갖추며 발전하였다. 조합원 ↔ (공동체) ↔ 생활이라는 물류의 구조를 동반하는 피라미드형 조직구조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각각의 지역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운영방식으로서, 지역내 조직들의 확대와 타지역으로의 손쉬운 확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③ 주체간의 동질성, 주체에 의한 노동의 참여

도시화의 진전 속에서 직장으로부터 분리된 주택단지에 살며, 한참 먹을 때인 아이들을 키우는 ‘전업주부층’으로서의 회원동질성이, 생활재에 대한 공감이라는 부분과 결합하여 강력한 결속력을 형성시켰다. 그들에 의한 물류 과정에서의 무상의 노동이 생협외의 경제적 자립을, 각종 위원회나 지부 활동 등과 같은 조직 활동에서의 적극적 참여가 조직의 확산을 낳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 ④ 직거래를 통한 신뢰의 확보

조합원과 함께 하는 생산자와의 대면적 신뢰관계 즉 직거래를 통해 다양한 취급 물품을 개발·취급해왔으며, 이는 취약한 자본과 실무역량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된 생협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로부터 일반 유통업을 능가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게 하였고, ‘잃어버린’ 농업과 농촌을 복구시킨다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운동적 지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 4. 생협운동의 대안 유통운동적 기능

### 1) 포드주의적 유통이 지니는 특징

유통이란,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산업화 과정 이전의 유통은 생산물의 공간적 이동이라는 제한적 의

미로서 기능했다. 개인과 집단의 대부분이 자급자족의 완결적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었고, 잉여 생산물이나 일부의 환금성 생산물만이 유통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은 생산력의 급속한 발달과 시장의 확대를 가져왔고, 유통이 지나는 기능 또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증대하였다. 이제 만들어놓은 생산물을 팔기 위한 유통이 아니라 팔기 위해서 생산하게 하는 유통으로, 나아가 사게 하기 위한 유통으로 기능이 확장되었다. 생산의 지배를 받아온 유통이 생산과 소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의 농산물 생산 방식을 포드주의적이라 한다면, 그것은 포드주의적 유통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농산물 유통을 포드주의적이라 할 때,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먼저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은 대량소비를 위한 대량유통을 기초로 한다. 생산기반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대도시로 저렴한 가격의 농산물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대량유통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포드주의적 대량유통으로 인해 생산과 소비에서의 대량생산, 대량소비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은 규격화를 기초로 한다. 농산물의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량유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유통에서의 대량화와 규격화 요구가, 농산물 생산에서의 대량생산, 품질 및 크기의 규격화를 낳으며, 이를 위해 생산과정에서는 농약과 화학비료와 같은 인위적 화학적 첨가제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다량 투여는 생산자의 도덕적 해이나 경제적 이윤추구의 결과가 아니라, 포드주의적 유통이 생산을 변화시켜 온 결과이다.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이 지니는 세 번째 특징은, 생산과 소비의 만남과 조절이 보이지 않는 손인 시스템화된 시장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생산지로부터 출하되는 대부분의 농산물은 소비지의 대규모 농산물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자의 손에 전해지며, 그 과정에서 생산자나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 익명의 작용을 할 뿐, 직접적인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생산과 소비는 시장내에서 경쟁적 대립적 관계로만 작용한다.

한마디로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은 대량유통, 규격화, 익명의 시장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으로 인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의한 농산물 오염, 시장내 생산과 소비의 경쟁적 대립적 관계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통이 생산을 지배하는 현대사회에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생산이 바뀌기 위해서는 유통이 바뀌어야 하며, 유통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 2) 대안적 유통운동으로서의 생협 - 생협 운영의 측면에서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이 농산물의 오염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자발적·자생적으로 생겨난 생협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 유통 방식을 모색하였다. 생협의 새로운 유통 방식이란 다름 아닌 ‘직거래’이다.

직거래란 단지 유통단계 단축론을 의미하지 않는다. ‘생산자 → 산지상인(수집상) → 도매시장 → 소매상인 → 소비자’로 이어지는 복잡다단한 유통단계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한다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중간 상인이나 시장을 배재하고 생산과 소비를 직결시키면 생

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되돌릴 수 있다는 이론이 유통단계단축론이다. 여기에서 직거래는 단축이 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거래는 생협이 추구하는 본래적 의미의 직거래와는 거리가 멀다.

생협에서 추진하는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직거래는, 먼저 생산과 소비의 익명적 관계라는 기존의 시장을 극복하고 대면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생협은 그 취급하는 농산물의 품목, 수량, 가격 등에 대해 연초에 생산자와 직접 협의하여 결정하고, 한번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 있게 지켜가며, 한번 관계하는 생산자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음 해에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간다. 가격 결정에서도 생산자의 의견이 존중되며,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만 그 또한 상호 협의의 대상일 뿐이다.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조합원들의 요구는 매우 크지만, 그렇다고 안전성만을 강요하여 생산자에게 부담 - 농법의 전환에 따른 생산방식의 어려움과 불안정성 등 - 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생산자가 실현 가능한 접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협의가 이루어진다.

일체의 농산물 생산과정에 대해서는 작업일지 등을 통해 조합원에게 공개되며, 병해충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하에서는 조합원과의 협의하에 농약을 살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적 사업진행과정에서의 협의 시스템 뿐만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는 다양한 만남의 장을 통해 상호 교류하고, 이해를 넓혀간다. <표 4>는 2003년도 수도권지역내 14개 생협에서 진행해온 주요한 산지 교류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등록된 조합원 25,000여명, 실제 이용 조합원 약 10,000여명의 생협에서 연인원 3,700여명의 조합원이

〈표-4〉 2003년도 생협 조합원의 주요 산지 교류 내용

월별	주 관	내 용
1월	부천YMCA생협	팔걸작목반(딸기, 완숙토마토) 산지 견학 - 40명
	그린생협	38이북 작목반(흑항미, 배추) 산지 견학 - 93명
2월	그린생협	풀무생협(쌀, 시금치 등) 산지 견학 - 135명
	한누리생협	남면 무농약 마을 산지 견학 - 90명
	바른생협	팔걸작목반(딸기, 완숙토마토) 정월대보름 행사 - 90명
3월	부천YMCA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지 견학 - 30명 만나식품(장류) 산지 견학 - 30명
	살림터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지 견학 - 50명 만나식품(장류) 산지 견학 - 50명
	참좋은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지 견학 - 30명
	그린생협	화성 산안농장(유정란) 산지 견학 - 45명
	고양두레생협	자연의벗 산지 견학 - 7명
	예코생협	원주 귀래 공동체 (장류) 견학 - 12명
	바른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지 견학 - 38명
	푸른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지 견학 - 90명
4월	그린생협	화천 시골된장 산지 견학 - 45명
	고양두레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지 견학 - 35명
	주민생협	남원,오창,하동 산지 견학 - 40명
	바른생협	생산자 초청 강연회 - 20명
	푸른생협	청원(딸기), 원주(감식초), 하동(녹차) 산지 방문 - 45명
5월	부천YMCA생협	38이북 작목반(흑항미, 배추) 산지 견학 - 30명
	그린생협	풀무생협(딸기) 산지 견학 - 48명
	고양두레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지 견학 - 40명
	한누리생협	양평유기농생산단지, 유기네 김치공장, 두물머리식품 견학 - 98명
	바른생협	생산자 초청 강연회 - 25명 음성 (유정란) 산지 견학 - 36명
	푸른생협	원주(라면), 임자도(소금) 산지 방문 - 45명

6월	부천YMCA생협	생산자 초청 강의 - 39명 풀무생협(쌀) 오리입식 행사 - 40명
	안양YMCA생협	조롱골목장(산양유) 산지 견학 - 60명
	땅모임생협	괴산(쌀) 생산지 견학 - 47명
	살림터생협	풀무생협(쌀) 오리입식 행사 - 45명
	참좋은생협	풀무생협(쌀) 오리입식 행사 - 42명
	광명YMCA생협	우전목장(우유, 산안농장(유정란) 산지 견학 - 39명
	그린생협	풀무생협 오리입식 행사 - 54명
	고양두레생협	풀무생협 오리입식 행사 - 45명
	एको생협	두부 산지 견학 - 80명
	한누리생협	양지리 오리입식 행사 - 98명
	주민생협	풀무생협 오리입식 행사 - 150명
	바른생협	풀무생협 오리입식 행사 - 51명
7월	부천YMCA생협	유정란산지 견학 - 12명
	땅모임생협	상주 땅을지키는모임(사과, 포도, 귤) 산지 견학 - 50명
	참좋은생협	38이북 작목반(흑향미, 배추) 산지 견학 - 40명
	그린생협	38이북 작목반(흑향미, 배추) 어린이 캠프 - 48명
	주민생협	토레식품 산지 견학 - 35명
8월	그린생협	상주 땅을지키는모임(사과, 포도, 귤) 어린이 산지 견학 - 45명 조롱골목장(산양유) 어린이 산지 견학 - 45명
	마포두레생협	풀무생협 일손돕기 - 12명
	바른생협	상주 땅을지키는모임(사과, 포도, 귤) 산지 견학 - 20명
9월	부천YMCA생협	유정란 산지 견학 - 14명
	그린생협	산안목장(유정란) 산지 견학 - 20명 맛가마식품(원장) 산지 견학 - 40명
	고양두레생협	강화 유정란 산지 견학 - 36명
	एको생협	상주 땅모임 산지 견학 - 6명
	바른생협	임지도 (소금) 산지 견학 - 23명
	푸른생협	산안농장(유정란) 산지 방문 - 45명

10월	부천YMCA생협	제주도 밀감 산지 견학 - 12명 풀무생협(쌀) 가을걷이 행사 - 40명
	안양YMCA생협	남양주 수도마을(쌀) 벼베기 체험 - 30명
	살림터생협	풀무생협(쌀) 가을걷이 행사 - 40명
	땅모임생협	생산자 초청 강연회 개최 - 12명 풀무생협(쌀) 산지 견학 - 51명
	참좋은생협	풀무생협(쌀) 가을걷이 행사 - 42명
	그린생협	풀무생협(쌀) 가을걷이 행사 - 135명 산안목장(유정란) 산지 견학 - 39명
	고양두레생협	풀무생협(쌀) 가을걷이 행사 - 51명
	예교생협	부안 산지 견학 - 20명 조롱골목장(산양유) 견학 - 30명
	주민생협	화성하과 산지 견학 - 20명 풀무생협(쌀) 가을걷이 행사 - 150명
	바른생협	양평 (배) 산지 견학 - 30명
11월	참좋은생협	상주 땅을지키는모임(사과, 포도, 귤) 산지 견학 - 50명
	마포두레생협	팔당 유기농체험 - 16명
	푸른생협	상주 (귤감, 버섯) 산지 방문 - 45명
12월	그린생협	산안목장(유정란) 산지 견학 - 48명
계		연인원 총 3,639명의 조합원이 참석

생산자와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일상적 협의와 교류를 통해, 소비자 조합원은 생산자를 단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의 생산주체로서가 아닌 동반자로 인식하게 되며, 나아가 생산자의 어려움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 같이 극복하려는 동지의식을 가지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

〈표-5〉 2003-2004년도 산지의 어려움에 대한 생협의 주요 지원내용

일시	내용	결과
2003년 7월 21일 ~ 8월 15일	쌀 생산지(원주생협)가 타단체와의 관계단절로 인해 그 계약량이 재고로 남고 출하처를 찾지 못하는 파산 직전의 상태를 복귀시키고자 하는 쌀 소비 증대 운동 전개	남은 물량 36톤 전량 소비 완료 (생협이용조합원의 약 80%가 구입)
9월 22일 ~ 10월 10일	태풍 매미로 인한 생산지의 피해에 따른 조합원 모금	약 733만원을 모금하여 8곳의 산지에 전달
9월 15일 ~ 9월 20일	쌀 생산지(용인 원삼농협)이 타단체와의 계약량이 소비되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돕기 위한 특별 쌀 소비 증대운동 전개	약 10톤을 추가로 소비하여 2002년산을 모두 소비해줌
2004년 3월 15일 ~ 4월 3일	중부지방 폭설피해에 따른 생산 농가의 지원을 위한 모금	약 2000명의 조합원으로부터 2,300여만원을 모금하여 딸기와 토마토 생산단체인 팔걸작목반에 전달

집 연대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표 5〉는 2003년도부터 2004년도 상반기까지 생산지에서 겪은 각종 어려움에 대해 생협에서 도움의 손길을 뻗친 몇가지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직거래에 의한 사회관계론적 경제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의 제공을, 생산자에게는 안심하고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표 6〉은 수도권 지역내 14개 생협의 연합체인 생협수도권연합회의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수급 추이를 분석한 것이다.

2002년도는 전년대비 163.9%, 2003년도는 전년대비 128.2%라는 높은 수치의 직거래 농산물 중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6〉 최근 3년간의 친환경농산물 수급 추이(단위:물량/kg,금액/천원)

구분	품목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곡류	쌀	일반	34,258	77,698	56,160	127,374	72,000	163,300
		친환경	113,050	379,370	185,328	621,917	237,600	797,330
		계	147,308	457,068	241,488	749,291	309,600	960,630
	잡쌀	친환경	17,129	55,740	28,080	91,377	36,000	117,150
	흑향미	친환경	5,139	27,363	8,424	44,858	10,800	57,510
	보리	일반	4,796	8,986	7,862	14,731	10,080	18,886
		친환경	4,453	11,418	7,301	18,718	9,360	23,998
		계	9,249	20,404	15,163	33,450	19,440	42,884
	서리콩	일반	4,796	34,559	7,862	56,654	10,080	72,633
	수수	일반	4,265	33,849	6,992	55,491	8,964	71,142
	흰콩	일반	2,353	10,202	3,858	16,725	4,946	21,442
	기장	일반	3,076	23,681	5,043	38,821	6,466	49,771
	녹두	일반	1,350	15,303	2,213	25,087	2,837	32,163
	참깨	일반	719	15,911	1,179	26,084	1,512	33,441
	들깨	일반	254	1,182	416	1,938	533	2,485
	검은깨	일반	486	13,682	797	22,429	1,022	28,755
	적두	일반	1,781	11,418	2,920	18,718	3,744	23,998
	검은팥	일반	230	1,182	376	1,938	482	2,485
	울무	일반	1,713	17,229	2,808	28,244	3,600	36,210
	이분도통밀	일반	1,7513	2,936	2,808	4,813	3,600	6,170
	쥐눈이콩	일반	1,439	7,945	2,359	13,025	3,024	16,699
	차조	일반	2,398	20,370	3,931	33,394	5,040	42,813
	찰옥수수쌀	친환경	514	1,824	842	2,991	1,080	3,834
	찰옥수수알	친환경	480	1,554	786	2,547	1,008	3,266
	팍콘옥수수	일반	2,638	2,601	4,324	4,264	5,544	5,467
	혼합잡곡(8곡)	일반	5,310	54,997	8,705	90,159	11,160	115,588
	현미쌀눈	일반	582	3,446	955	5,649	1,224	7,242
	발아현미	계	4,111	17,769	6,739	29,130	8,640	37,346
차조	일반	2,398	20,370	3,931	33,394	5,040	42,813	
소계		221,431	872,585	362,999	1,430,471	465,386	1,833,937	

과 실 류	사과	친환경	74,168	153,572	121,586	251,757	155,880	322,766
	감귤	친환경	34,360	50,146	56,328	82,206	72,216	105,392
	딸기	친환경	15,930	78,374	26,114	128,482	33,480	164,720
	배	친환경	18,157	46,551	29,765	76,314	38,160	97,838
	완숙토마토	친환경	38,711	89,708	63,461	147,062	81,360	188,541
	방울토마토	친환경	10,277	44,592	16,848	73,102	21,600	93,720
	복숭아	친환경	11,990	45,268	19,656	74,209	25,200	95,140
	메론	친환경	1,096	3,344	1,797	5,483	2,304	7,029
	포도	친환경	13,703	40,538	22,464	66,456	28,800	85,200
	참외	친환경	16,752	43,747	27,462	71,717	35,208	91,945
	청매실	친환경	6,852	22,972	11,232	37,658	14,400	48,280
	감	친환경	8,907	20,202	14,602	33,117	18,720	42,458
	곶감	친환경	343	30,404	562	49,842	720	63,900
	무화과	친환경	651	3,851	1,067	6,313	1,368	8,094
	지두	친환경	1,987	6,368	3,257	10,439	4,176	13,384
	참다래	친환경	2,525	12,195	4,139	19,902	5,306	25,631
	청견	친환경	5,139	24,323	8,424	39,874	10,800	51,120
	진지향	친환경	1,713	15,202	2,808	24,921	3,600	31,950
	한리봉	친환경	2,569	24,070	4,212	39,458	5,400	50,588
	급귤	친환경	1,028	3,547	1,685	5,815	2,160	7,455
유자	친환경	1,233	7,297	2,022	11,962	2,592	15,336	
수박	친환경	21,582	21,283	35,381	34,889	45,360	44,730	
소계			289,673	787,554	474,872	1,291,068	608,810	1,655,217
채 소 류	감자	친환경	47,275	42,829	77,501	70,211	99,360	90,014
	고추	친환경	3,083	41,805	5,054	68,533	6,480	87,863
	배추	친환경	76,737	37,836	125,798	62,026	161,280	79,520
	무	친환경	23,295	25,843	38,189	42,366	48,960	54,315
	알타리	친환경	3,426	4,054	5,616	6,646	7,200	8,520
	열무	친환경	1,226	11,107	2,011	18,209	2,578	23,345
	파	친환경	2,398	3,547	3,931	5,815	5,040	7,455
	생강	친환경	13,703	4,054	22,464	6,646	28,800	8,520
	고구마	친환경	1,816	12,533	2,976	20,546	3,816	26,341
	양파	친환경	22,267	48,308	36,504	79,193	46,800	101,530
	마늘	친환경	49,674	53,882	81,432	88,331	104,400	113,245

채 소 류	메주	친환경	3,426	21,114	5,616	34,613	7,200	44,375
	엽채류	친환경	59,581	189,708	97,673	310,997	125,222	398,715
	과채류	친환경	12,675	39,123	20,779	64,136	26,640	82,225
	버섯류	친환경	8,153	64,219	13,366	105,277	17,136	134,971
	근채류	친환경	26,721	63,327	43,805	103,815	56,160	133,097
	건과류	친환경	685	7,432	1,123	12,184	1,440	15,620
	건야채	친환경	1,028	17,266	1,685	28,305	2,160	36,288
	소계		372,961	771,475	611,413	1,264,715	783,864	1,621,429

※ 생협수도권연합회 자료에 의거 작성

※ 주1) 1차농산물에 한정함.

※ 주2) 친환경이란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 유기농의 것을 말함

증대는, 일부 생산 기반에서만 실시하였던 개별 생산자의 친환경농업 기반을 늘리고, 나아가 지역내 또 다른 생산자까지를 포함하는 친환경 농업 생산자 조직화의 길로 이어지게 한다.

### 3) 대안적 유통운동으로서의 생협 - 조합원 설문조사의 결과에서

#### (가) 조사 대상 조합원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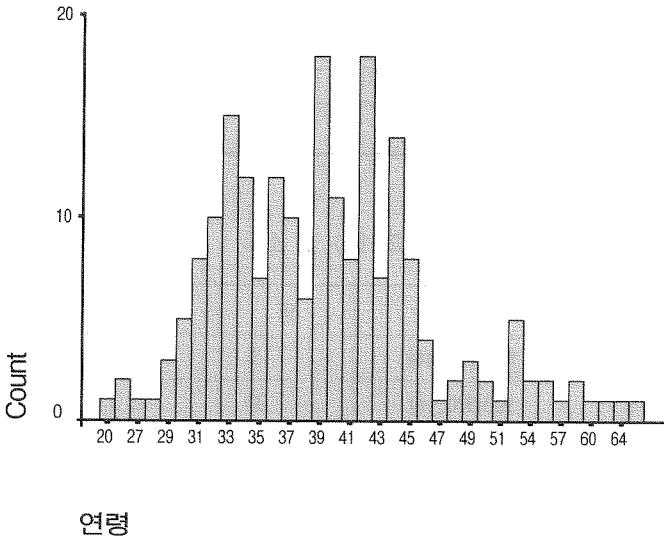
대안적 유통운동으로서 생협이 지니는 현 주소와 의미에 대해, 수도권지역내 4곳의 생협을 선정하여, 각 생협 매장에 하루 동안 내점하는

모든 조합원 2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sup>9)</sup>. 설문조사 생협과 분석 대상 조합원수를 보면 <표 7>과 같다. 대부분의 조사 대상 조합원이 생협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은 평조합원이다.

〈표-7〉 조사 생협과 조합원

생협명	소재지	설문대상 조합원				
		합계	가운데 임원			계
			이사, 감사 등	각종 위원회 위원	기타	
푸른생협	인천시 연수구	81	1	2		3
주민생협	성남시 분당구	47	2	3		5
땅모임생협	서울시 관악구	35	1	1	1	3
마포두레생협	서울시 마포구	43	4	1		5
합계		206	8	7	1	16

(그림-1) 응답 조합원의 연령대별 분포



〈표-8〉 학력

	빈도	퍼센트
국졸	1	.5
중졸	1	.5
고졸	51	24.8
전문대졸	17	8.3
대졸	136	66.0
합계	206	100.0

〈표-9〉 생활 정도

	명	%
부유층	14	6.8
중산층	167	81.1
서민층	23	11.2
하층	2	1.0
합계	206	100.0

〈표-10〉 월 소득

	명	%
100만원 이하	6	2.9
100-300만원	90	43.9
300-500만원	80	39.0
500만원 이상	29	14.1
합계	205	100.0

〈표-11〉 가족의 구성인원

구성인원	명	%
1인 구성	2	1.0
2인 구성	36	17.6
3인 구성	64	31.4
4인 구성	78	38.2
5인 구성	19	9.3
6인 구성	4	2.0
7인 구성	1	.5
합계	204	100.0

〈표-12〉 가족 형태

	명	%
핵가족	182	89.2
직계가족	20	9.8
기타	2	1.0
합계	204	100.0

응답 조합원의 일반적 특징을 정리해 보면, 대다수의 생협 조합원은 30대에서 40대 중반의 젊은 여성, 대졸자가 과반수를 넘는 높은 학력의 소유자, 2·4인의 가족 구성을 지닌 핵가족인 중산층이 주된 구성원임을 알 수 있다.

#### (나) 생협의 가입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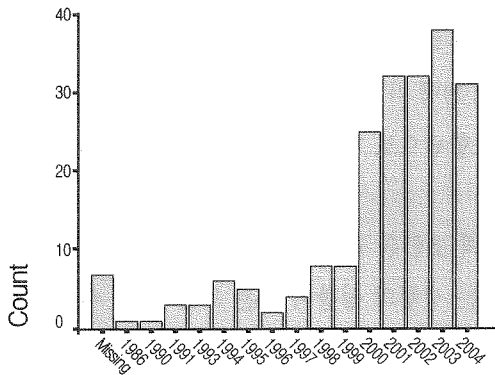
〈표 13〉은 조사 대상 조합원의 생협 가입 연도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 대상 조합원 199명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58명의 조합원이 최근 5년 사이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으며, 특히 2004년도 상반기에는

전년도 1년간의 조합원 규모 정도의 회원이 신규로 가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협의 성장이 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며, 그 증가 속도 또한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5) 자세한 조사내용은 제1장을 참고할 것

〈표-13〉 가입 연도

연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1986	1	.5	.5
1990	1	.5	1.0
1991	3	1.5	2.5
1993	3	1.5	4.0
1994	6	3.0	7.0
1995	5	2.5	9.5
1996	2	1.0	10.6
1997	4	2.0	12.6
1998	8	4.0	16.6
1999	8	4.0	20.6
2000	25	12.6	33.2
2001	32	16.1	49.2
2002	32	16.1	65.3
2003	38	19.1	84.4
2004 (상반기)	31	15.6	100.0
합계	199	100.0	



가입 연도

〈표-14〉 생협에의 가입 이유(가입연도별, 소득수준별, 생협지위별)

구분		가입 이유						
		품질좋은 먹 을거리 구입	값싼 먹을거 리 구입	안전한 먹을 거리 구입	먹거리, 환경 운동 관심	생활운동 이 념 공감	기타	계
가입 연도 별	1986			1				1
	1990	1						1
	1991	1		1	1			3
	1993				1	2		3
	1994			2	3		1	6
	1995	1		2	2			5
	1996			2				2
	1997	1		2	1			4
	1998	4		1	2	1		8
	1999	2		3	3			8
	2000	4		15	3	2	1	25
	2001	9		15	4	4		32
	2002	6		22	2		1	31
	2003	9	1	21	7			38
2004	6		17	3		2	28	
	합계	44	1	104	32	9	5	195
소득 수준 별	100만원 이하	2		4				6
	100-300만원	16		52	13	3	4	88
	300-500만원	22		34	16	4	1	77
	500만원 이상	6	1	16	4	2		29
	합계	46	1	106	33	9	5	200

이와 같이 매년 많은 조합원이 생협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표 14>와 같다. 53.3%의 조합원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22.6%의 조합원은 품질 좋은 먹을거리를 구입하기 위해, 또 16.4%의 조합원은 먹거리와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생협에 가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최근에 가입한 조합원의 경우, 먹거리의 안전성만이 아닌 품질에 대해서도, 또 상품으로서의 먹거리만이 아닌 운동적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의식, 소비자 의식의 성장이라는 시대적 조류의 영향이 가입 이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경향은 소득 수준별 가입 이유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조합원의 주류를 이루는 중산층에게서 ‘안전한 먹을거리의 구입’이라는 생협 가입의 이유가 품질, 먹거리와 환경운동에의 관심, 생협운동에의 공감 등으로 분산 확대되어가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과는 조금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게 된다.

#### (다) 생협의 농산물 판매 사업에 대한 이용 현황과 평가

다음은 조합원들이 바라보는 생협의 농산물 판매사업에 대한 이용 현황과 평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설문 대상 조합원들의 생협 주요 농산물에 대한 이용 현황을 보면 <표 15>와 같다.

장류와 생활용품(세제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 즉 주곡, 과일, 채소, 수산, 축산, 가공식품의 모든 영역에서 80% 이상의 조합원이

생협 물품을 절반 이상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채소와 과일 등 청과부문에서는 90% 이상의 조합원이 절반 이상 생협 물품을 이용하고 있다. 선택적 이용이 아닌, 식탁의 대부분을 생협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적 생협의 특질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표-15〉 생협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이용 현황 (단위 : 명, %)

항목	주곡	과일	채소	수산	축산	가공식품	장류	생활용품
전혀 않음	16 (8.4)	4 (2.1)	3 (1.5)	23 (12.4)	15 (8.0)	9 (4.6)	34 (17.7)	28 (14.4)
대체로 않음	21 (11.1)	15 (7.7)	9 (4.6)	35 (18.8)	16 (8.5)	23 (11.9)	25 (13.0)	42 (21.6)
절반 구입	41 (21.6)	65 (33.3)	64 (33.0)	58 (31.2)	43 (22.9)	59 (30.4)	40 (20.8)	63 (32.5)
대부분 구입	63 (33.2)	73 (37.4)	75 (38.7)	44 (23.7)	65 (34.6)	65 (33.5)	48 (25.0)	38 (19.6)
전부 구입	49 (25.8)	38 (19.5)	43 (22.2)	26 (14.0)	49 (26.1)	38 (19.6)	45 (23.4)	23 (11.9)
합계	190 (100.0)	195 (100.0)	194 (100.0)	186 (100.0)	188 (100.0)	194 (100.0)	192 (100.0)	194 (100.0)

러한 높은 이용 현황을 지닌 조합원으로부터 생협의 농산물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표 16〉과 같다.

우선 생협 농산물에 대한 조합원의 가장 큰 요구라고 할 수 있는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안전성에 대해서는 약 98%의 많은 조합원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약 60%의 조합원으로부터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품질에 대해서는 안전성보다는 약간 떨어지지만 여전히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약 30% 대로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편리성의 면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는 생협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두가지 공급 시스템, 즉 무점포공급과 점포공급이 모두 아직은 조합원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즉 무점포공급의 경우는 사전 예약을 통해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공급받아야 하고, 점포공급의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에 접근성이 용이한 점포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무점포공급 사업 및 점포공급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문제점에 대해, 아래의 <표

<표-16> 생협의 농산물에 대한 만족도

	안전성			품질			편리성		
	명	%	누적%	명	%	누적%	명	%	누적%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0.5	1	0.5	0.5	8	4.1	4.1
별로 그렇지 않다	1	0.5	1.0	11	5.6	6.2	58	29.7	33.8
약간 그렇다	78	38.4	39.4	122	62.6	68.7	82	42.1	75.9
매우 그렇다	123	60.6	100.0	61	31.3	100.0	47	24.1	100.0
합계	203	100.0		195	100.0		195	100.0	

17)과 <표 18>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점포공급사업의 경우에는, 공급주기가 길어 정시 구입이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청한 물건이 안 오는 경우와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표-17〉 무점포공급사업에 대한 문제점

항목	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		계	
	명	%	명	%	명	%	누진	%
공급주기가 길어 정시구입이 어렵다	84	42.9	28	15.6	26	16.1	334	30.1
신청한 물건이 안오는 경우가 많다	21	10.7	42	23.3	16	9.9	163	14.7
가격이 비싸다	18	9.2	21	11.7	23	14.3	119	10.7
배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15	7.7	16	8.9	16	9.9	93	8.4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	23	11.7	32	17.8	28	17.4	161	14.5
물품의 질과 신선도가 일정하지 않다	17	8.7	19	10.6	28	17.4	117	10.6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	13	6.6	20	11.1	20	12.4	99	8.9
친절하지 못하다	0	0.0	0	0.0	2	1.2	2	0.2
문제점이 없다	5	2.6	2	1.1	2	1.2	21	1.9
합계	196	100.0	180	100.0	161	100.0	1,109	100.0

〈표-18〉 점포공급사업에 대한 문제점

항목	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		계	
	명	%	명	%	명	%	누진	%
배달해 주지 않는다	31	15.8	15	9	11	7.7	134	12.6
가격이 비싸다	20	10.2	27	16.2	18	12.7	132	12.4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찍 문을 닫는다	16	8.2	19	11.4	9	6.3	95	8.9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	29	14.8	34	20.4	25	17.6	180	16.9
물품의 질과 신선도가 일정하지 않다	14	7.1	21	12.6	14	9.9	98	9.2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	2	1	1	0.6	7	4.9	15	1.4
일요일 등 쉬는 날이 너무 많다	15	7.7	28	16.8	29	20.4	130	12.2
친절하지 못하다	0	0.0	0	0.0	1	0.7	1	0.1
문제점이 없다	13	6.6	1	0.6	7	4.9	48	4.5
합계	196	100	167	100	142	100	1,064	100.0

점포공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배달해주지 않는다’와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일요일 등 쉬는 날이 너무 많다’ 등이 그 다음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무점포사업에 대해서는 공급주기의 단축과 주문 품목에 대한 정확한 공급을 위한 대책이, 점포사업에 대해서는 점포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한 배달과 휴무일에 대한 대책이, 그리고 점포 및 무점포 모두에게는 취급 품목의 다양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생협 물품의 가격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를 살펴보기로 한

〈표-19〉 일반 농산물과 비교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적정 가격

구분	일반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쌀	100	117.4	134.2	150.8
채소류	100	116.5	132.6	147.0
과일류	100	118.4	134.8	150.6

다. 먼저 〈표19〉에서 일반농산물을 100이라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의 적절한 가격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쌀/채소류/과일류에서 특별한 차이 없이 저농약의 경우가 약 120, 무농약의 경우가 약 135, 유기농의 경우가 약 150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시장에서의 일반 농산물 가격이 상시 변동하는 속에서 연중 큰 변화가 없는 계약 가격인 생협의 농산물을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일반 소비자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협의 농산물이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서 형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기대치를 나타내는 수치로서는 큰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생협에서의 농산물은 이러한 조합원 기대치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가격대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위 <표 17>과 <표 18>의 무점포 및 점포공급사업의 문제점 가운데 가격에 대한 지적이 적게 나타났다는 점에서도 반증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0>은 안전성을 중시하는 생협의 조합원이 안전성과 가격이 상충되었을 때의 판단 기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안전성과 비용이 상충되었을 때 안전성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또 가격만을 고집하는 경우도 매우 소수에 불과하고, 생협의 조합원은 항상 안전성과 가격의 양 측면에서 안전성에 조금 기운 균형을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서민층에 조금 더 가까운)이 생협의 대다수 조합원인 경제적 이유에서도 기인하지만, 이러한 점이 있음으로 인해 단지 주어진 상품의 구매자로서가 아닌 소비자 조합원이 만들어 가는 물품으로서 생협의 농산물이 지니는 운동적 의미를 구현시키는

<표-20> “안전한 농산물의 구입여부

※문항 :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

	명	%	누적%
전혀 동의 않음	17	8,3	8,3
대체로 동의 않음	69	33,5	41,7
대체로 동의	111	53,9	95,6
전적 동의	9	4,4	100,0
합계	206	100,0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1〉은 생협에 주문한 물품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급되지 못하였을 때, 조합원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약 60%의 조합원이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시장에서 구입하여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이한 것은 약 27%의 결코 적지 않은 조합원이 결품되면 결품된 대로 생협의 물품만으로 식단을 꾸린다는 매우 철저한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생협의 조합원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생협 물품이 결품되었을 때에도 원하던 물품을 아예 시장에서 구입하지 않을 만큼 생협물품이 지니는 안전성에 대해 매우 큰 관심과 기대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전성의 댓가로서 적정한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으나, 그렇다

〈표-21〉 생협에 주문한 물품이 결품되었을 때의 대응

항목	명	%	누적%
공급물품만으로 대체	55	27.1	27.1
안전한 것인지 확인후 시장물건 구입	119	58.6	85.7
시장물건 구입	29	14.3	100.0
합계	203	100.0	

고 안전성의 댓가가 지나친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매우 복잡하지만 균형잡힌 사고와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협의 직거래 사업에 대해 백화점 판매나 거리 판매와 비

교하여 조합원이 내린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표 22>와 같다.

백화점 판매의 경우는 약 50%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불만족을 느끼고 있고, 거리 판매의 경우는 이 보다 높은 70% 가까운 조합원들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 생협의 직거래에 대해서는 95%의 조합원들이 만족하다고, 특히 60% 가까운 조합원들이 “매우 만족하다”고 평

<표-22> 직거래에 대한 비교 평가

구분	백화점 판매		거리 판매		직거래	
	명	%	명	%	명	%
아주 불만족	25	13.7	40	22.0	2	1.0
대체로 불만족	73	39.9	81	44.5	8	4.1
대체로 만족	81	44.3	53	29.1	74	37.6
아주 만족	4	2.2	8	4.4	113	57.4
합계	183	100.0	182	100.0	197	100.0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조합원의 활동 - 생산자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생협의 조합원들은 일반 유통의 소비자와는 달리 단지 물품을 구입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생협의 많은 활동에 참여한다.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협이 주관하는 활동에 대해 평균 약 30%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초 생협의 지난해를 결산하고 새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해 논의

하는 조합원 총회, 강연회 등과 같은 각종 교육 활동, 생산지 견학, 반이나 마을 단위의 모임들, 각종 문화 활동, 생활재(물품)/환경/매장운영/회보편집 등과 같은 각종 위원회 활동, 그리고 간담회/산지견학/대보름이나 가을걷이 행사 등과 같은 각종 생산자와의 교류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표-23〉 생협 주관 행사의 참여 경험 여부

	조합원 총회		교육 활동		생산지 견학		모임 활동		위원회 활동		생산자 교류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있다	58	31.4	57	30.6	50	27.0	30	16.7	58	29.3	58	29.3
없다	127	68.6	129	69.4	135	73.0	150	83.3	140	70.7	140	70.7
합계	185	100.0	186	100.0	185	100.0	180	100.0	198	100.0	198	100.0

생협의 많은 활동 가운데 특히 생협과 직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생산자와의 각종 교류는 매우 중요하다. 조사 응답 조합원 가운데 약 30%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자신의 구입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와 어떤 형태로든 이러한 생산자와의 교류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횟수 또한 1회에 그치지 않는다.

생산자와의 교류가 중요한 것은 조합원이 생산자 교류의 과정에서 얻은 소감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생산자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 농업과 농촌 현실에 대한 이해, 먹을거리와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이와 같은 생산자 교류를 통해

〈표-24〉 생산자 교류 횟수별 교류 소감

생산자 교류 횟수	교류 소감											
	생산자의 어려움을 느낌		농산물의 생산과정을 알게 됨		농업구조와 농촌현실을 이해		먹거리 및 환경오염을 깊이 이해		기타		계	
1	18	75.0	2	8.3	1	4.2	3	12.5	0	0.0	24	100.0
2	4	40.0	3	30.0	2	20.0	1	10.0	0	0.0	10	100.0
3	4	57.1	1	14.3	2	28.0	0	0.0	0	0.0	7	100.0
4	3	42.9	0	0.0	0	0.0	4	57.1	0	0.0	7	100.0
5	1	50.0	1	50.0	0	0.0	0	0.0	0	0.0	2	100.0
6	0	0.0	0	0.0	0	0.0	0	0.0	1	100.1	1	100.0
합계	30	58.8	7	13.7	5	9.8	8	15.7	1	2.0	51	100.0

조합원이 체험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자와의 교류 횟수가 많은 조합원일수록 단지 생산자의 어려움에 대한 감성적 느낌에서 차츰 농업과 사회 구조적인 문제까지도 생각하게 되어감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생산자와의 교류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생산자 개인에 대한 인격적 신뢰는 물론, 생산 과정에 대한 이해, 농업과 농촌 문제에 대한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이해까지도 확대 심화시키는 계기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마) 조합원이 바라보는 생협운동에 대한 운동적 평가와 향후 과제

이상과 같이 먹거리를 통해 생협 및 생산자와 관계하는 조합원에게서 생협의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조합원이 바라보는 생협운동은 가장 크게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운동’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의 매개가 먹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생산을 담당하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업운동’으로서의 성격 또한 짙다.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표-25〉 운동의 평가

항목	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		계	
	명	%	명	%	명	%	누진	%
환경운동	105	60,3	44	27,3	8	5,6	411	41,7
농업운동	38	21,8	61	27,9	29	20,4	265	26,9
생활운동	8	4,6	27	16,8	28	19,7	106	10,8
협동운동	11	6,3	13	8,1	32	22,5	91	9,2
지역운동	4	2,3	12	7,5	23	16,2	59	6,0
사회운동	8	4,6	4	2,5	18	12,7	50	5,1
여성운동	0	0,0	0	0,0	4	2,8	4	0,4
합계	174	100,0	161	100,0	142	100,0	986	100,0

생협운동이 먹거리라는 생활속의 소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리고 생협운동의 확산 또한 또 다른 생활속의 소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잘못돈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활운동’이고, 이를 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의 모아진 힘을 통해 실현해간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협동운동’인 것이다.

〈표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협운동이 앞으로 보다 힘써가야 할 운동의 영역에 대해서도 생협운동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난다. 그러나 좀더 세밀히 살펴보면, 생활협동의 그간의 평가에 대한 부분과 향후 과제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의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전히 환경운동과 농업운동으로서의 과제를 중시하고 있지만, 생활운동적 성격으로의 생활협동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먹거리 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조직과 사업면에서 생활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지금, 조합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야를 넓혀 생활이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야 한다는 요구가 조금씩 일반 조합원에게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26〉 운동의 향후 과제

항목	제1 선택		제2 선택		제3 선택		계	
	명	%	명	%	명	%	누진	%
환경운동	95	54.9	42	25.3	9	5.8	378	37.5
농업운동	37	21.4	54	32.5	34	21.8	253	25.1
생활운동	14	8.1	29	17.5	31	19.9	131	13.0
지역운동	12	6.9	15	9.0	26	16.7	92	9.1
협동운동	8	4.6	17	10.2	28	17.9	86	8.5
사회운동	7	4.0	7	4.2	21	13.5	56	5.6
여성운동	0	0.0	2	1.2	7	4.5	11	1.1
합계	173	100.0	166	100.0	156	100.0	1,007	100.0

이는 아래 〈표 27〉의 생활협동의 향후 과제에 대한 조합원의 구체적인 요구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여전히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 그 해결의 연장선에서 농업과 농촌문제가 생협의 주요 과제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먹거리 뿐만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환경문제로까지 생협의 시야가 넓어지고 그 실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생협은, 직거래를 통해 먹거리의 안전성 문제를 더욱 철저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결해가면서, 동시에 먹거리 이외에 조합원의 생명과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표-27〉 생협운동의 향후 과제

항목	제1 선택		제2 선택		계	
	명	%	명	%	누진	%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	88	43.8	43	24.7	219	38.0
먹을거리뿐만 아닌 보다 광범위한 환경 문제	34	16.9	59	33.9	127	22.0
자녀, 가족 건강 문제	42	20.9	21	12.1	105	18.2
농업, 농촌 문제	26	12.9	26	14.9	78	13.5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문제	5	2.5	10	5.7	20	3.5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 문제	3	1.5	8	4.6	14	2.4
일자리 창출(특히 여성의) 문제	2	1.0	7	4.0	11	1.9
기타	1	0.5	0	0.0	2	0.3
합계	201	100.0	174	100.0	576	100.0

## 5. 생협운동의 당면한 과제와 그 해결의 모색

### 1) 생협운동에 나타난 다양한 ‘분화’의 모습

생협운동이 길게는 십여 년, 짧게는 몇 년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내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외적으로는 적극적인 생활운동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받게 되었다. 생협 운동이 내적 자립과 외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지금까지의 과정에는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주체들의 피와 땀이 있었으며, 조합원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와 참여가 있었다.

그러나 자립과 시민권 획득의 댓가로, 지금까지는 별로 갈라져 보이지 않았던 생협의 모습이 차차 갈라져 드러나게 되었다. 그 일부를 ‘분화’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협에서 사업과 운동이 분화하고 있다. 사업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긴 기간을 거치면서 이제는 생협도 자립하고 안정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적 안정이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운동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생협 안에서 “사업은 사업이고 운동은 운동이다, 다만 사업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을 운동이 충족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존재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생협에서의 활동가와 조합원이 분화하고 있다. 초창기 생협에서는 모든 조합원이 곧 활동가였다. 하지만 조합원이 늘고 다양한 생과 계층이 참여하게 되면서, 조합원 가운데서 의식 있는 또 다른 조합원이 분화되기 시작하였고, 조합원과 또 다른 조합원인 활동가 사이의 관계맺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대두되었다.



생협에서의 직원과 조합원도 분화하고 있다. 생협을 처음 만들 때, 생협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노동은 조합원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생협이 차츰 자립해가면서, 생협의 조합원 노동으로부터 직원의 노동이 특화되어 나왔고, 이제는 많은 생협에서 직원 노동이야말로 생협을 유지하는 근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물론 여전히 생협을 생협이게끔 하는<sup>6)</sup> 노동의 대부분은 조합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생협을 유지시키는 노동과 생협을 생협이게끔 하는 노동 사이의 충분한 관계가 설정되지 못하고 있다.

생협의 조직적인 측면에서 공동체에서 개인과 개인이 분화하고 있고, 생협의 행태적 측면에서 공동구입에서 개인공급과 점포가 분화하고 있다. 처음 생협을 시작할 당시 대부분의 생협에서는 산업화·정보화 하는 사회속에서 개별화·원자화 되어가는 개개인을 공동체 단위로 조직하려 하였으며, 생협과 조합원 사이의 사업적 관계는 공동체를 향한 공동구입의 형태로 드러났다. 하지만 외부의 변화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할지라도, 개개인을 소공동체 단위로 조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공동구입이 쇠퇴하고 개인공급과 점포가 대부분을 점유하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따른 생협의 대응에 대해, 생협 내부적으로 적당한 보완과 어쩔 수 없는 자구책으로 밖에는

6) 우리가 생협운동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 대한 대안운동이라 할 때, 이는 가장 크게는 생협운동의 조직원리가 경쟁이 아닌 '협동'이기 때문이다. 생협운동에서 협동이 드러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의 협동이고, 다른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에서의 협동이다.

구매력을 결집하여 생활재를 개발 취급하는 행위, 그 안에서의 협동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며, 그 안에서의 조합원은 구매력의 소유자이기 쉽고, 그 과정의 노동은 점차 직원 노동으로 대체되고 있다.

생협을 생협이게끔 하는 협동의 구체화는, 오히려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가 아닌,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합원을 단지 구매력의 소유자로 보지 않으며, 그 관계 형성의 노동 또한 직원 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서구의 수많은 생협들이 그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생협으로서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첫 번째 협동에서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협동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다.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또 생협이 조합원 생활자가 경제인화한 조합원과 유상 노동의 조합원으로 분화하고 있다. 처음 생협운동이 시작할 당시의 조합원은 대부분 전업주부였다. 그러나 사회가 더 이상 농촌으로부터의 값싼 노동력을 유입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자, 점차 여성에게서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여성 노동력의 임금 노동화로 여겨지는 경향속에서, 생협이 조합원 또한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경제인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무상의 조합원 참여(=노동)는 점차 줄어들어 갔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그리고 조합원 스스로의 부분적 경제인화 요구에 의해, 조합원 노동이 점차 유상화되어가고 있다. 문제는 무상의 노동이 유상의 노동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협 나름의 노동에 대한, 무상과 유상의 노동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생협이 이와 같은 다양한 분화 과정은, 점점 더 세계화·정보화·단일화·고도화해가는 현대사회의 흐름 속에서 생협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생협운동은, 자립을 위한 긴 시행착오의 여정을 거치면서 이제 겨우 조직과 사업체로서의 내용과 형식을 지니게 되었다. 의식 있는 개개인의 클럽활동에서 '조합'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분화가 일어났고, 그 분화에 대해 많은 조합원들이 정체성의 상실과 관계성의 파괴를 느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모의 문제로만 진단하고 있다.

생협운동이 자립적인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서는,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가듯, 몸집도 자의식도 성장하기 마련이다. 그것을 규모화의 비민주성, 규모화로 인한 정체성과 관계성의 상실로만 이해해

서는 안 된다. 조합으로 성장한 생협 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재정립하여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2) '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상 생협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변화 과정을 '분화'로 표현해 보았다. 분화 이전의 시각으로 볼 때, 분화란 해체와 분산의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와는 같으면서 다르다. 그러나 분화는 생협의 모습만이 아니다. 모든 생명의 본질에는 해체와 분산의 과정이 있고, 인류 문명 또한 분화의 과정이다.

단세포 생명체에서 다세포 생명체로, 식물에서 식물과 동물로 분화하면서 더욱 복잡하고 유기화되어가는 과정이 곧 생명의 본질이다. 분화의 과정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다. 분화의 과정에 있는 모든 생명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생명체 역시 분화의 과정을 겪어야 하며, 나아가 분화하는 각각의 생명체들과의 관계로 인해 모든 생명계는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문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수렵과 채집으로부터 농경과 목축이 이루어지면서 집단에서 개인이 분화하였고, 개인으로 구성된 사회가 형성되었으며, 개인간의 훨씬 복잡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더욱 확연해졌다. 집단에서 사회가, 사회에서 개인이 분화하는 과정은 다름아닌 의식의 증대 과정이며, 이러한 개개인의 의식의 증대 과정을 통해 인류의 문명 또한 진화해 왔다.

분화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분화는 자유의 도정이며, 각자가 깨달아 근원적인 그 무엇과 합일을 이룰 수 있는 전제이다. 문제는 분화에 있지 않다. 문제는 분화된 모습들을 같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공통의 유전 형질을 지닌 서로 다른 형체임을 잊고, 두 모습들 사이의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고착시켜가는 데 있다.

생명은 해체와 분산이라는 분화의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생명은 동시에 근원적이고 새로운 차원에서 유기화, 복잡화의 과정으로 나아간다. 이를 ‘진화’라 하며, 단선적이고 계량적인 ‘발전’이라 부르지 않는다.

현대사회는 분화의 과정이 만들어놓은 해체와 분산의 결과를, 서로 개별적·대립적·경쟁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생협운동은, 이러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넘어서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자리바꿈도 아니고 지배와 피지배의 조국은 나아진 평등의 관계도 아닌, 새로운 관계론의 마련과 그 실천에 있다.

### 3) 분화는 ‘진화’의 기회이다

지금까지 생협의 주체는 생활자(=결과적으로는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전업주부에게서 무상의 노동과 유상의 노동이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협의 주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구성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협에서의 인간을 공동체속의 개인으로, 공동체로 묶여야 할 개인으로 보아왔다. 따라서 이미 개념상으로만 존재하게 되

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생협에서의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는 공동체를 통해 가능하였다. 생협은 공동체를 통해 개인과 관계하였다. 주체의 형성, 생협밖의 인간이 생협의 인간으로 되는 과정은, 타자와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이를 조직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같이 조직화된 개인의 공통적 구매력을 통해 생산과 상품을 변화시켜왔다. 그래서 생협은 의식 있는 개인들의 모임이다.

지금, 생협내 인간은 공동체라는 조직으로부터 분화된 자유로운 개인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생협에서의 개인은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 생협과 직접 관계한다. 그리고 관계의 방식이 공동구입을 대체하는 개인공급과 점포라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앞에서 협동조합의 협동은 조합과 조합원의 협동 뿐만 아니라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이 있음을 설명했다. 개인공급과 점포는 조합과 조합원의 협동의 한 방식이다. 하지만 여전히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을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전의 생협에서는 ‘조합과 조합원의 협동’과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이 하나의 구조속에서 이루어졌다. 공동체를 통한 공동구입이 그것이다. 이제 공동체가 해체된 속에서, 조합원과 조합원의 협동, 개인과 개인의 관계망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 마을, 지구, 지역 모임을 통한 새로운 실험이 모색되고 있다. 이제 생협의 개인에게 있어 생협이나 다른 개인과의 관계는 ‘전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변화한 것이다.

공동체로부터 분화된 개인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한다. 다름으로 인해 비로소 그 다양성은 존중받을 수 있고, 다양한 참여의 장을 모색할 수 있다. 하지만 다름이 다양성의 고착이나 개별화의 방향으로만 진행될 때, 그것은 체제(시스템의 소유자, 사업의 집행자, 경영관료)의 지배를 낳는다. 생협과 조합원 간의 협동만 있고 조합원과 조합원 간

의 협동이 없이는 생협은 경영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말뿐인 생협으로 남을 뿐이다.

다양성 안에서 공통성을 찾아야 하고, 조직으로가 아닌 다양함 속의 자각적인 공통성의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다름을 전제로 하되 같음을 찾아가야 하고, 서로 다른 개인을 같은 의 다른 표상(表象)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의 서로 다른 것들 간의 연대가 가능하다.

이제 생협의 인간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조직속에 있는, 조직으로 묶여진 개인이 분화되어가고 있고, 그 분화된 개인에 대해 시장경제는 개별화·상품화·다양화·경쟁화의 방향으로만 끌고 가고 있다.

생활협동운동은 기존의 정치운동이나 노동운동과는 전혀 다른 생활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생협의 생활운동은 먹거리 영역에서 구체화되었고, 공동구입이라는 사업을 통해 운동을 실현시켜왔다.

하지만 생협 안팎의 상황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밖으로는, 세계화의 의미가 단지 농업과 농산물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금융, 서비스, 교육, 보건과 복지, 노동의 전 영역으로 훨씬 다양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먹거리의 오염만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심각한 생존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안으로는 '운동'에서 출발하여 '조합'으로 성장한 우리의 생협이 주체와 요구의 분화 과정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의 생활협동운동은 의식적으로는 생활운동이었지만 실제로는 소비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생활의 다양한 영역이 시장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생협의 수많은 조합원들이, 생활협동운동에 이미 그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나 아직 그 실체를 구체화시키지 못한 새로운 운동으로의 확대와 확산을 갈망하고 있다. 그 갈

망에 부응하고 꿈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명실상부하게 생협운동을 전 생활운동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할 때이다.

이제 생협운동은, 기존의 소비 영역을 견고히 확대해가되 영역의 확대, 새로운 영역의 창조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영역의 확대와 창조를 모색하는 장은 다름 아닌 곧 ‘지역’<sup>7)</sup>이다. 지금까지 생협운동에서 지역은 ‘운동의 대상’이었다. 공감하는 사람을 낚기 위한 바다였고, 생존을 위협하는 지역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지역은 생협운동에게 있어 ‘운동의 무대’<sup>8)</sup>이다. 이 무대 위에서 다양한 운동과 사업의 실험이 공연될 것이다.

## 6. 결론

7) 지역(region)이란, 중앙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지방(local)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 범위를 행정 구역으로 나눌 수는 없다. 지역이란, 각 사람들의 생활을 지탱시키는 순환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의 범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지역이란 각각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싼 생활과정의 순환성, 다양성, 관계성을 파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칭하며, 따라서 생활과정의 확장과 더불어 지역의 범위 또한 확장되어 간다.

예를 들어 ‘부천지역’도 지역이지만 ‘동북아지역’도 지역이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것을 같은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나름대로의 완결성을 갖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천을 지역이라고 보는 것은, 그 속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그 속에서 어느 정도 완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계화되어가는 시장경제 속에 사는 사람은, 중국의 원료를 우리나라에서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하는 그런 사람이나 사회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이 하나의 지역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가지고 순환성, 완결성을 찾을 것인가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엄청나게 다른 ‘무엇’에 대해 각각적으로 행동할 때이다.

또 어떤 생활과정을 통해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 지역 개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는 생활과정을 통해 지역을 생각해 보자. 유치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지역은 유치원을 중심으로 두는 그리 넓지 않은 범위의 지역이다. 하지만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면 지역 개념은 점차 확산된다. 교육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보면 지역은 또 다르게 보인다. 다시 말해 무엇을 통해 지역을 보느냐에 따라 지역은 달리 보이지만, 또 같은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지역은 계속 확장되어간다는 점이다. 지역이란 종종적 완결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생협에서 보는 ‘지역은 무엇이나’는 곧 생협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지역과 관계할 것인가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생협운동이 발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 한국적 생협운동이 세계의 다른 생협과 비교하여 지니는 특질, 대안적 유통운동으로서의 생협운동이 지니는 역할과 기능, 마지막으로 현재 생협운동이 직면해 있는 과제와 그 과제의 해결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포드주의적 농산물 유통은, 대량유통·대량생산·대량소비, 농약과 화학비료 등에 의한 농산물 오염, 시장내 생산과 소비의 경쟁적 대립적 관계를 낳고 있다. 농산물을 비롯한 먹거리의 오염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생산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포드

- 8) 지역을 '운동의 무대'로 보는 시각은, 이미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론'과 '협동조합 부문(섹터)론' 속에서 활발히 제기되어 왔다. 기능별 협동조합의 계통간 수직적 관계는 협동조합의 안정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전 생활 영역을 협동의 원리로 조직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녀왔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초하여, 협동조합운동의 역사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제기된 것이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협동조합 부문론이다.

협동조합이 그 조직활동이나 사업경영의 종합적 전개를 통해, 혹은 다양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통해, 그 지역의 사회 경제적 구조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 의미를 확립하고, 지배적이라고도 할 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를 가리켜 협동조합 지역사회(Co-operative community)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사회에서는 협동의 사상과 생활양식이 그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조합 지역의 사례로서, 다양한 협동조합간 협동을 통한 사례로는 스페인의 몬드라곤이, 조직활동이나 사업경영의 종합적 전개를 통한 사례로는 일본의 지역농협이 주목받고 있다.

한편 협동조합 부문론은, 협동조합이 공적 부문, 사적 부문, 협동조합 부문으로 구성되는 혼합경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다른 부문과 나란히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는 속에서 점차 그 영향력을 강화시켜나 가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세 부문의 활발한 상호 보완에 의해서만이 사회가 가장 인간적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협동조합 부문론은 한 사회나 국가의 다양한 요구를 행정이나 기업업으로는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며 따라서 NGO나 NPO,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역할이 새로이 부각되는 경향과 연결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협동조합이 거시경제적 측면이나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사회의 대부분을 점유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시경제적 측면이나 소규모 지역 사회에서는 그 영향과 역할을 증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발견과 확인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 체제가 단지 국가와 시장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오히려 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주체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유지 발전될 수 있음을 발견하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지역사회론과 협동조합 부문론은 협동조합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라는 원칙이 삽입되고, '협동조합간 협동'의 원칙이 다시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이나 협동조합 부문론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몇가지 요소가 있다. 협동조합 지역사회론에서 말하는 협동조합간 협동은 지역의 입장에서서는 여전히 협동조합의 '섬'(Island 혹은 Colony)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고, 협동조합 부문론에서의 협동조합은 전체 사회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단면적 보완'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안에서 끊임없이 지역을 변화 극복시켜 지역밖으로 향하게 하면서도 의식적으로 지역안으로 다시 향하는 협동조합,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을 끊임없이 극복 변화시키면서도 의식적으로 그 부문들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 그것이 바로 지역밖에 섬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이지 않는, 공적 부문이나 사적 부문과 단순한 보완으로 관계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지역과의 새로운 관계 방식일 것이다.

주의적 유통이 바뀌어야 하고, 유통이 바뀌기 위해서는 소비가 바뀌어야 한다. 자각적이고 의식적이며 탈이기적인 소비자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생협운동에 대한 더욱 큰 기대와 관심이 요청된다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상빈, 「생활협동운동을 통한 농도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미발표.
- 강창용·정은미. 199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 행태 분석”, 『농촌경제』, 제22권 제4호.
- 경제정의연구소. 1998. 「유기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고종태, 최중산, 이종인, 「환경농산물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연구: 춘천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경제』, 제11집(통권20호), 강원대 산업경제연구소, 2001. 12
- 권태환, 이재열.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 『한국사회과학』 20권 3호, 1998. .
- 김 호. 「유기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실태와 유통계열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3.
- 김남조, 조광익.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 주민 참여』. 한국관광연구원, 1998.
- 김명혜. 「하남생협의 사례연구」, 『전남대 현대 사회과학 연구』 9호, 1998.12.
- 김병률, 김윤식, 김태근,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1
- \_\_\_\_\_, 『도농교류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 김병률. 「농산물유통환경변화의 파급효과와 생산자조직의 대응방향」, 『농촌경제』 1997, 9
- 김성수, 「생활협동생산자 조직의 연계 활성화와 농촌지역 주민의 환경보전 의식 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농업생명 과학 연구』, 3호, 1999.12
- 김승호. 「상생운동실천사례」, CEO Focus 특집 9호. 2000.4
- 김영원. 「생활협이 요구되는 이유」, 『농어촌 목회와 신학』 제2권 통권 3호, 1999 봄
- 김완배, 「농산물 신유통시스템 구축 방안」, 농수산물유통 심포지움 발표문. 1999

- 김용우. 「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의 의의와 한계」, /cooperative/doc/20.htm.
- 김운필, 『한국 생태공생주의운동의 지식형성과 그 실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9.
- 김종덕, 「농업의 세계화와 대안농업운동」, 『농촌사회』 12집 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02김종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김종숙.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농산물 구매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 ——. 김종숙, “자생적 지역공동체와 발전과제”, 『현대사회과학연구』9권(전남대 사회과학연구소), 1998.
- 김창길 · 오세익.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의 평가와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 김칠준.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의 아파트 공동체운동의 전망」, 1999, <http://members.tripod.lycos.co.kr/kohong2/view0001.htm>
- 김호 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실태와 발전과제」. 『식품유통연구』, 18권 3호, 한국식품유통학회, 2001. 12
- 김홍주, “기업형 시설농민의 가족과 친족의식,” 『농촌사회』 제11집 1호, 2001.
- 농수산물유통공사, 「주요농산물 유통실태」. 2003.
- 농정연구포럼.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의 실태와 정책과제」, 1997.
- 류기덕. 「전자상거래를 통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1집 1호. 2002.
- 문상원.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대논문집』, 제33집, 2002. 2
- 박광순 외. 「일본 산촌의 지역활성화와 사회구조」. 경인문화사. 2001
- 박대식, 김정호. 『농업·농촌의 역할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박성준. 「지역사회 연결망과 정책 수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1.
- 박현태 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 박현태 · 강창용 · 정은미, 2000. “친환경농산물 유통경로의 유형화와 발전

- 방향”, 『농촌경제』, 제23권 3호, 2000.9
- 반지명, 「슈퍼센터(대형할인점)의 발전전망과 농식품업체의 대응」, 『신유통 아침포럼』, 제2호, 2003.
  - 서중혁외, 「환경보전형 농업의 기술체제와 농가보급방안」, 농촌경제연구원, 1996.
  - 심운정, “유기농 문화공동체의 형성과 발전과정 -전남 장성 ‘한마음공동체’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준선, 임영선. 「환경농업의 생산, 유통현황과 발전방향」. 농협중앙회, 1996.
  - 양정우.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의 성과와 과제」, <http://publish/samok/s2001/04/spec03.htm>.
  - 오현석.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과 정책적 과제」 『농업기술회보』, 2002. [http://www.kafarmer/new/farm\\_content/](http://www.kafarmer/new/farm_content/)
  - 왕성우. 「차기정부 농산물 유통정책 제언」, 『한국농어민신문』 1536호, 2003. 1
  - 원경선, 『생명을 풀무질하는 농부』. 한길사, 1998.
  - 윤근섭·김철규, 「한국 농업체제의 전환과 시설재배농업」, 『농촌사회』, 11집1호, 한국농촌사회학회, 2001
  - 윤석원 외. 「유기농산물 생산·소비·유통·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농림부, 1999.
  - \_\_\_\_\_. 「일본의 농촌지역활성화 사업」. 『농촌경제』, 58호, 1992. 9
  - 윤주현. 「일본의 농산물 직거래 현황」. CEO Focus 20호, 1998. 3
  - 이병서·위태석,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구매특성과 산지의 대응방안」, 『식품유통연구』, 제20권 제2호, 2003.
  - 이상배. 「도시와 농촌의 교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남출판, 1995.
  - 이주희.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와 관광촌·농촌간의 교류방안」, 『지방행정연수』 30호, 1992. 9
  - 이철희, 환원식. 「농산물 전자 직거래의 발전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식품유통』 18-1호, 2001. 3
  - 이태근 외. 「도시와 농촌이 협력하는 흙살림 순환 농업」. 흙살림연구소, 1999.

- 장용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농민과 사회』 17, 1998.7.
- 정은미,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와 유통경로의 유형별 전개방향」, 『흙내』 12호 2000. 3
- 조정만, 「유기농업의 생태 및 경제과정을 통해서 본 사회자연체계의 이상과 현실」,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 —, “농촌·도시의 공동체적 유대와 갈등,” 『현대사회과학연구』 제9권, 1998.
- 천규석, 「쌀, 어찌할 것인가」, 『녹색평론』. 제67호. 2002. 11-12월호
- 천정명. 「새누리 공동체를 통한 도농교회 직거래 운동」, .saenuri.net/saenuri/zikgurae.htm, 2001.
- 천정명. 2001. 「새누리 공동체를 통한 도농교회 직거래 운동」 <http://www.saenuri.net/saenuri/zikgurae.htm>
-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구매의식」. 「생명의 먹거리, 유기농산물 소비의 현황과 전망」토론회 자료, 1999.
- 한도현 외. 「기업의 사회참여와 봉사: 성남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4(근간).
- 허 장, 「미국의 유기농식품-현황과 전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0(3). 2002
- —, “대안농업으로서의 환경농업 : 가능성과 한계,” 한국농촌사회학회 2003년도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 허길행. 「유기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방향」, 『농촌경제』, 1999.5
- 홍성흡. 「세계화 국면에서의 농산물 유통과 농민의 적응방식」 <http://prome.snu.ac.kr/~anthropo/archi313.htm>.
- 황의식, 「소비자 유통환경 변화와 농협의 역할」, 『농촌경제』. 제26권 제4호. 2003. <http://prome.snu.ac.kr/~anthropo/archi313.htm>.
- Allen, John C. and Kevin Bernhardt. "Farming Practices and Adherence to an Alternative-Conventional Agricultural Paradigm". *Rural Sociology*. 60(2). 297-309. 1995.
- Beck, Ulrich.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홍성태 역, 1997. 『위협사회』. 새

물결.

- Beus, Curtis E. and Riley E. Dunlap. "Conventional versus Alternative Agriculture: The Paradigmatic Roots of the Debate". *Rural Sociology*. 55(4). 590-616. 1990.
- \_\_\_\_\_ . "Measuring Adherence to Alternative vs. Conventional Agricultural Paradigms: A Proposed Scale". *Rural Sociology*. 56(3). 432-460. 1991.
- \_\_\_\_\_ . "Agricultural Paradigms and the Practice of Agriculture". *Rural Sociology*. 59(4). 620-635. 1994.
- Etzioni, Amitai. 1996a. "The Responsive Community: A Communitarian Perspectiv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1, no.1, 1-11.
- \_\_\_\_\_ . 1996b. *The New Golden Rule: Community and Morality in a Democratic Society*. Basic Books.
- Goodman, D. and M. Redclift, *Reshaping Nature: Food, Ecology, and Culture*. London: Routledge. 1991.
- Goodman, D., B. Sorj and J. Wilkinson, *From Farming to Biotechnology*. Oxford: Basil Blackwell. 1987.
- Hendrickson, Mary, "Face to Face Farming and Eating: Personal Relationship in Alternative Food Systems."(www.foodcircles.umsystem.edu), 2000.
- IFOAM. "International Harmonisation and Equivalence in Organic Agriculture." IFOAM Conference on Organic Guarantee Systems, Feb. 17-19. Nuremberg, Germany. <http://www.ifoam.org> 2002.
- Imhoff, D.,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farming with a face on it". In: Mander, J., Goldsmith, E. (Eds.), *The Case Against the Global Economy and For a Turn Toward the Local*. Sierra Club Books, San Francisco, pp. 425-433. 1997.
- Jarosz, Lucy. "Understanding Agri-Food Networks as Social Relations", *Agriculture and Human Values* 17, pp. 279-283. 2000.
- Kempton, Willett, Dorothy Holland, Katherine Bunting-Howarth, Erin Hannan, Christopher Payne. "Local Environmental Groups: A Systematic

- Enumeration in Two Geographical Areas*", *Rural Sociology*, 66(4). 557-578. 2001.
- Kenny, M., L. Lobao, J. Curry and R. Goe, "Midwestern agriculture in US Fordism," *Sociologia Ruralis*, 24(2), 1989.
  - Kim, Chul-Kyoo and James Curry. "Fordism, Flexible Specialization and Agri-cultural Restructuring" *Sociologia Ruralis*, 33(1), 1993.
  - Laird, Timothy J.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A Study of an Emerging Agricultural Alternative," Master thesis, University of Vermont, 1995.
  - Michelsen, Johannes. "Recent Development and Political Acceptance of Organic Farming in Europe". *Sociologia Ruralis*. 41(1). 3-20. 2001.
  - Polanyi, K.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http://www.kamis.co.kr> 1957.
  - Putnam, Robert. *Bowling Alone*. New York: Simon & Schuster, 2000.
  - Stall, Susan and Randy Stoecker. "Community Organizing or Organizing Community? Gender and Crafts of Empowerment", *Gender and Society*, Vol.12, No.6. 1998.
  - Stehli, Vincent. "Global Perspectives of Organic Agricultural Industry." Paper presented at The First International Forum on Environment Friendly/Organic Agriculture-Yangpyong 21. Yangpyong, Korea, 2001.
  - Walz, Erica. *Final Results of the Third Biennial National Organic Farmers Survey*. Santa Cruz, CA: Organic Farming Research Foundation, 1999.
  - Yussefi, Minou and Helga Willer, eds.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Future Prospects". <http://www.ifoam.org> 2003.

## 부 록

1. 생협생산자 대상 질문지
2. 생협조합원 대상 질문지
3. 생협실무자 대상 질문지



## 【부록1】생협생산자 대상 질문지

ID







### ▶ 친환경농업 실태조사 : 생산자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촌과 농민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순수 학술단체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회는 한국의 우리의 친환경농업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번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연구 중에 수집된 자료는 모두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아울러 이 연구의 결과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나아가 대안농업을 통한 우리 농촌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귀중한 기초 자료로 축적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바쁘시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내서어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댁내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04년 5월  
한국농촌사회학회 회장  
한신대 교수 김주숙

연구책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철규  
(02-3290-2077)

1. 응답대상자 : \_\_\_\_\_ 선생님

2. 거주지 :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면)



**\*\* 먼저 선생님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문 1. 선생님의 성별은?

- \_\_\_ ① 남
- \_\_\_ ③ 여

문 2.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 만 \_\_\_\_\_ 세)

문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_\_\_ ①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 \_\_\_ ② 국민학교
- \_\_\_ ③ 중학교
- \_\_\_ ④ 고등학교
- \_\_\_ ⑤ 초급 · 전문대학
- \_\_\_ ⑥ 대학교 이상

문 4. 선생님은 결혼하셨습니까?

- \_\_\_ ① 미혼
- \_\_\_ ② 기혼
- \_\_\_ ③ 이혼
- \_\_\_ ④ 사별
- \_\_\_ ⑤ 별거

문 5. 현재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가족 외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친척이나 동거인이 있으면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_\_\_ ① 처 (남편)
- \_\_\_ ② 형제자매 (\_\_\_\_\_ 명)
- \_\_\_ ③ 아버지
- \_\_\_ ④ 어머니
- \_\_\_ ⑤ 할아버지
- \_\_\_ ⑥ 할머니
- \_\_\_ ⑦ 아들 (\_\_\_\_\_ 명)
- \_\_\_ ⑧ 딸 (\_\_\_\_\_ 명)

\_\_\_ ⑨ 기타 ( \_\_\_\_\_ )

\* 합 계 : \_\_\_\_\_ 명

문 6. 선생님의 가족원 중에서 현재 함께 살지 않고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결혼하여 분가한 자녀를 제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_\_\_ ① 있다 ( ⇒ **문 6-1, 6-2번으로** )

\_\_\_ ② 없다

문 6-1. (있으면) 누구누구입니까?

\_\_\_ ① 아들 ( \_\_\_ 명)

\_\_\_ ② 딸 ( \_\_\_ 명)

\_\_\_ ③ 기타 (누구입니까? \_\_\_\_\_ )

문 6-2. (있다면) 그들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_\_\_ ① 학업

\_\_\_ ② 취업

\_\_\_ ③ 기타 ( \_\_\_\_\_ )

**\*\* 다음은 선생님의 일반 농업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7. 선생님이 경작하고 있는 농지(논, 밭, 과수원 포함)는 합하여 어느 정도입니까?

\_\_\_ ① 500평 미만                      \_\_\_ ② 500-1500평 미만

\_\_\_ ③ 1500-3000평 미만              \_\_\_ ④ 3000-4500평 미만

\_\_\_ ⑤ 4500-6000평 미만              \_\_\_ ⑥ 6000-9000평 미만

☐ 8. 선생님이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 9. 선생님이 친환경농업을 시작한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_\_\_\_\_ 년

☐ 10. 선생님의 농업생산 규모와 주요 작물에 대해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아

	생산조건	논 재배면적	밭(과수원 포함) 재배면적	밭의 주요작물
친 환 경 농 업	유기재배	___평	총 ___평 (시설은 ___평)	
	전환기유기재배	___평	총 ___평 (시설은 ___평)	
	무농약재배	___평	총 ___평 (시설은 ___평)	
	저농약재배	___평	총 ___평 (시설은 ___평)	
일반 재배		논 _____(평), 밭 _____(평), 시설 _____(평)		

래 표에 해당 사항을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1. 선생님의 경우 빌려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있습니까?

\_\_\_ ① 있다 ⇒ ☐ 11-1번, ☐ 11-2번으로

\_\_\_ ② 없다

☐ 11-1. (있는 경우) 빌린 농지는 모두 어느 정도입니까?

\_\_\_ ① 500평 미만

\_\_\_ ② 500-1500평 미만

\_\_\_ ③ 1500-3000평 미만

\_\_\_ ④ 3000-4500평 미만



문 13. 선생님의 전체 경작지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 3가지의 이름, 각각의 연간 매출액, 그리고 연간 순이익을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농산물 이름	연간 매출액	연간 순이익
① (            )	(            )원	(            )원
② (            )	(            )원	(            )원
③ (            )	(            )원	(            )원

	①번 농산물	②번 농산물	③번 농산물
① 생협과 같은 소비자 단체	_____	_____	_____
② 농협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	_____	_____	_____
③ 유기농산물 전문 유통업체	_____	_____	_____
④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_____	_____	_____
⑤ 일반 중개인이나 도시 소매상	_____	_____	_____
⑥ 자가 판매	_____	_____	_____

문 14. 위에 적어주신 ①, ②, ③번 농산물은 주로 어디로 출하됩니까? 각각에 대해 표시하여 주십시오.

문 15. 선생님 가구 전체의 1년간 전체 순수익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                       |                       |
|-----------------------|-----------------------|
| ___ ① 1000만원 미만       | ___ ② 1000-1500만 원 미만 |
| ___ ③ 1500-2000만 원 미만 | ___ ④ 2000-2500만 원 미만 |
| ___ ⑤ 2500-3000만 원 미만 | ___ ⑥ 3000만 원 이상      |

문 16. 선생님의 가구가 소득을 올리는 방법은 주로 무엇입니까? (많은 순서대

로 1, 2번까지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___ ① 쌀농사                       | ___ ② 시설작물       |
| ___ ③ 임금, 품삯                    | ___ ④ 가축 사육      |
| ___ ⑤ 친환경농산물                    | ___ ⑥ 자녀 및 친척 보조 |
| ___ ⑦ 기타 (                    ) |                  |

㉮ 17. 작년 농사와 관련된 생산비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까? (많은 순서대로 1, 2번까지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 |              |                                 |
|--------------|---------------------------------|
| ___ ① 인건비    | ___ ② 난방비                       |
| ___ ③ 종묘비    | ___ ④ 시설비                       |
| ___ ⑤ 농약, 비료 | ___ ⑥ 기타 (                    ) |

㉮ 18. 선생님과 가족이 현재 가지고 있는 총 부채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___ ① 없다.             | ___ ② 300만 원 미만       |
| ___ ③ 300-500만 원 미만   | ___ ④ 500-1000만 원 미만  |
| ___ ⑤ 1000-2000만 원 미만 | ___ ⑥ 2000-3000만 원 미만 |
| ___ ⑦ 3000-4000만 원 미만 | ___ ⑧ 4000만 원 이상      |

㉮ 18-1. 선생님이 부채를 가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많은 순서대로 1, 2번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
| ___ ① 시설자금       | ___ ② 영농자금                      |
| ___ ③ 농기계구입      | ___ ④ 생활용품 구입                   |
| ___ ⑤ 자녀, 형제 교육비 | ___ ⑥ 자녀, 형제 결혼비용               |
| ___ ⑦ 가족원 질병 치료  | ___ ⑧ 기타 (                    ) |

문 18-2. 선생님의 부채는 어디에서 차입한 것입니까? (많은 순서대로 1, 2번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
| ___ ① 농협   | ___ ② 축협/수협      |
| ___ ③ 신협   | ___ ④ 시중은행       |
| ___ ⑤ 사채업자 | ___ ⑥ 자녀/친척      |
| ___ ⑦ 이웃   | ___ ⑧ 기타(구체적으로 ) |

**\*\* 다음은 선생님의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항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문 19. 선생님이 친환경농업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주변 농민의 권유로
- \_\_\_ ② 친환경농업 관련단체와 접촉을 통해
- \_\_\_ ③ 정부의 친환경 농업 권장 때문에
- \_\_\_ ④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높을 것 같아서
- \_\_\_ ⑤ 농약중독 등 관행농업의 피해 때문에
- \_\_\_ ⑥ 개인적인 소신 혹은 신념으로
- \_\_\_ ⑦ 기타( )

문 20.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면서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순서대로 1, 2번까지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 |                                  |              |
|----------------------------------|--------------|
| ___ ① 제조                         | ___ ② 병충해 방제 |
| ___ ③ 토양관리                       | ___ ④ 농산물 판매 |
| ___ ⑤ 유기질 비료나 친환경농업 자재의 구입 또는 제조 |              |
| ___ ⑥ 노동력 확보                     | ___ ⑦ 기타( )  |

문 21. 친환경농산물의 주된 판로는 어디입니까? (많은 순서대로 1, 2번까지 번호

호를 적어주십시오.)

- \_\_\_ ① 생협과 같은 소비자 단체      \_\_\_ ② 유기농산물 전문 유통업체  
 \_\_\_ ③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_\_\_ ④ 농협 등과 같은 생산자 단체  
 \_\_\_ ⑤ 자가 판매      \_\_\_ ⑥ 기타 (                      )

문 22. 친환경농산물의 주된 판매처와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 \_\_\_ ① 그렇다      \_\_\_ ② 아니다

문 23. 친환경농산물의 주된 판매처와의 판매가격에 만족하십니까?

- \_\_\_ ① 매우 만족한다      \_\_\_ ② 대체로 만족한다  
 \_\_\_ ③ 불만족한 편이다      \_\_\_ ④ 매우 불만족하다

문 24. 친환경농산물 주된 판매처와의 관계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 \_\_\_ ① 소비자나 실무자의 인식 부족      \_\_\_ ② 물량이 적음  
 \_\_\_ ③ 물량이 불안정함      \_\_\_ ④ 가격이 적절치 않음  
 \_\_\_ ⑤ 품질 요구가 지나치게 높음      \_\_\_ ⑥ 기타 (                      )

	일반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1) 쌀	100	(    )	(    )	(    )
(2) 채소류	100	(    )	(    )	(    )
(3) 과일류	100	(    )	(    )	(    )



- 문 25. 선생님은 일반 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26. 선생님은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소비자들과의 교류(간담회, 견학, 대보름 및 가을걷이 행사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_\_\_ ① 있다 ⇒ 문 26-1, 문 26-2번으로  
 \_\_\_ ② 없다

문 26-1. (있었다면) 작년(2003년)에는 연간 몇 회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연간 약( \_\_\_\_\_ 회)

- 문 26-2. (있었다면) 소비자와의 교류를 통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_\_\_ ① 소비자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_\_\_ ② 소비자가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었다.  
 \_\_\_ ③ 보다 신뢰받을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해야겠다고 느꼈다.  
 \_\_\_ ④ 먹을거리와 환경의 오염에 대해 보다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_\_\_ ⑤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  
 \_\_\_ ⑥ 기타 ( \_\_\_\_\_ )

문 27. 선생님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 필요하다 ⇒ 문 27-1번으로  
 \_\_\_ ② 필요하지 않다

문 27-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 ① 소비자들이 보다 농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_\_\_ ② 농업을 지키기 위해



- \_\_\_ ① 해 본 적이 있다 ⇒ **문** 30-1, 30-2번으로  
\_\_\_ ② 해 본 적이 없다

**문** 30-1.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 '계' (契)를 하셨습니까?

- \_\_\_ ① 목돈마련을 위해  
\_\_\_ ② 친목도모를 위해  
\_\_\_ ③ 둘 다

**문** 30-2. 어떤 사람들과 계를 해보셨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 \_\_\_ ① 가족이나 친척                      \_\_\_ ② 이웃, 동네사람  
\_\_\_ ③ 학교동창                              \_\_\_ ④ 같은 생산자조합 사람  
\_\_\_ ⑤ 교회, 성당, 절에서 알게 된 사람  
\_\_\_ ⑥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영농강좌, 문화강좌 등)  
\_\_\_ ⑦ 전혀 모르는 사람

**문** 31. 선생님이 현재 살고 계신 마을이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 \_\_\_ ① 매우 기쁘다                      \_\_\_ ② 약간 기쁘다  
\_\_\_ ③ 별 차이 없다                      \_\_\_ ④ 약간 서운하다  
\_\_\_ ⑤ 아주 서운하다

**문** 32. 선생님은 물건을 살 때 약간 비싸도 이 마을이나 지역에서 구입합니까?

- \_\_\_ ① 그렇다                              \_\_\_ ② 약간 그렇다  
\_\_\_ ③ 별로 그렇지 않다              \_\_\_ ④ 전혀 그렇지 않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면 보통 가격보다  
20% 더 비싼 가격으로도 물건을 사겠다

- \_\_\_ ①                      \_\_\_ ②

	적극 참여한다	참여하는 편이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참여 하지 않는다
1) 향우회, 학교동창회	4	3	2	1
2) 종친회	4	3	2	1
3) 친목회	4	3	2	1
4) 반사회	4	3	2	1
5) 종교 모임	4	3	2	1
6) 농업인단체	4	3	2	1
7) 자원봉사활동	4	3	2	1
8) 농민운동단체	4	3	2	1

문 33.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문 34.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나 단체에 얼마나 자주 참여하십니까?

문 35. 선생님은 지난해에 학교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 기부금을 낸 적이 있습니까?

\_\_\_\_ ① 없다

\_\_\_\_ ② 10000원 미만

③ 10,000원 ~ 50,000원

④ 50000원 ~ 100,000원

\*\*다음은 선생님 가족과 친족, 그리고 이웃에 대한 생각을 몇가지 여쭙어 보고자 합니다.

문 36. 선생님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두 가지를 골라 1, 2의 번호를 (\_\_\_\_) 위에 직접 써주십시오.)

\_\_\_\_ ① 자녀의 육아문제

\_\_\_\_ ② 자녀의 교육문제

- \_\_\_ ③ 자녀의 결혼문제
- \_\_\_ ④ 힘든 농사일
- \_\_\_ ⑤ 건강문제
- \_\_\_ ⑥ 경제문제
- \_\_\_ ⑦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문 37. 선생님은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을 어떠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물려주실  
것습니까?

- \_\_\_ ①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
- \_\_\_ ② 아들에게만 나눠주되 큰아들에게는 좀 더 많이 물려준다
- \_\_\_ ③ 아들에게만 공평하게 물려준다
- \_\_\_ ④ 아들·딸 구별 없이 공평하게 나눠준다
- \_\_\_ ⑤ 노후에 의지할 자녀에게 많이 물려준다
- \_\_\_ ⑥ 해당사항이 없다

문 38. 집안의 여자가 농사일 등으로 인해 바쁠 때, 남자가 부엌일을 하는 것  
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 \_\_\_ ② 남자가 부엌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  
울 때가 있다
- \_\_\_ ③ 남자가 부엌일을 할 수는 없다
- \_\_\_ ④ 생각해본 적이 없다

문 39. 선생님의 자식이나 마을의 청년들이 농업 외의 다른 직업을 얻기 위하  
여 도시로 떠나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_\_\_ ① 대체로 권장한다 ⇒ 문 39-1번으로
- \_\_\_ ② 될 수 있으면 말린다

문 39-1. (권장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농업의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 \_\_\_ ② 도시생활이 개인의 발전에 더 좋기 때문에

- \_\_\_ ③ 결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_\_\_ ④ 아이를 키우거나 교육을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 40. 선생님이 연로하여 농사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면 마을을 떠나 도시에 살고 있는 자식과 함께 사시겠습니까?

- \_\_\_ ① 같이 산다
- \_\_\_ ② 같이 살지 않는다 ⇒ 문 40-1, 문 40-2번으로

문 40-1. (같이 살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도시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 \_\_\_ ② 아들·며느리·손자들과 갈등이 있을 것이므로
- \_\_\_ ③ 농촌에서 마을사람들과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 \_\_\_ ④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문 40-2. (같이 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 \_\_\_ ① 노후를 위해 모아놓은 돈으로 생활한다
- \_\_\_ ②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이를 처분하여 생활한다
- \_\_\_ ③ 농지를 빌려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생활한다
- \_\_\_ ④ 이촌한 자식에게 일정액을 송금하도록 하여 생활한다
- \_\_\_ ⑤ 특별한 계획이 없다

	아주 찬성	대체로 찬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	아주 반대
1) 이촌한 자식은 바쁜일이 있어도 시제나 친족행사에는 참여해야 한다	5	4	3	2	1
2) 나에게 이롭지만 가문이나 친족에게 손해 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5	4	3	2	1
3) 마을행사에는 개인적으로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참석해야 한다	5	4	3	2	1



	남편이 혼자	남편이 주로 부인과 의논	부인과 남편 이 동등	부인이 주로 남편과 의논	부인이 혼자
1) 경작할 작물의 결정	5	4	3	2	1
2) 농산물판매/ 자금 관리	5	4	3	2	1
3) 자녀의 교육문제	5	4	3	2	1

☐ 41. 다음 사항 중 선생님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에 가깝다고 보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 42. 선생님의 맥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정해 주십시오.

☐ 43. 선생님이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농사일은 주로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 \_\_\_ ① 가족(아내, 자녀들 등)과 함께 한다
- \_\_\_ ②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한다
- \_\_\_ ③ 마을 사람과 공동(품앗이 등)으로 작업한다
- \_\_\_ ④ 주로 혼자 한다
- \_\_\_ ⑤ 기타 ( )

☐ 44. 선생님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일 때문에 심하게 아픈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 ☐ 44-1번으로
- \_\_\_ ② 없다

문 44-1. (있다면) 어떤 증상이 가장 심합니까?

- \_\_\_ ① 손과 발이 저리고 쥐가 난다  
 \_\_\_ ② 허리나 등/ 어깨 등이 아프다  
 \_\_\_ ③ 현기증이 나고 만성으로 피곤하다  
 \_\_\_ ④ 밤에 잠을 못 자고 가위에 눌린다  
 \_\_\_ ⑤ 기타 (

문 45. 선생님이 친환경농업을 할 때 부인은 일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 \_\_\_ ① 부인 혼자서 거의 전부 맡아서 한다  
 \_\_\_ ② 전체 일의 반 정도를 맡아서 한다  
 \_\_\_ ③ 전체 일의 1/4 정도를 맡아서 한다  
 \_\_\_ ④ 거의 안한다

문 46. 선생님 댁에는 친환경농업을 이어 받을 후계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 문 46-1번으로

관계	연령	성별	현재 직업	영농 경력	학력	후계 시기
						년후

- \_\_\_ ② 없다

\*\* 장시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우리의 새로운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록2]생협조합원 대상 질문지

□ □ □ □ □ □

▶ 생협운동 실태조사 : 조합원용 ◀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촌과 농민의 여러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순수 학  
술단체입니다. 이번에 우리 학회는 한국의 우리의 생협운동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지원으로 이번 조사를 수행하게 되었  
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고, 연구 중에 수집된 자료는 모두 통계 처리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은 법적으로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 가지 어  
려운 일로 바쁘시겠지만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책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김철규」  
(02-3290-2077)

1. 면접장소 : \_\_\_\_\_ 구 \_\_\_\_\_ 판매장  
2. 거주지 : \_\_\_\_\_ 시(도) \_\_\_\_\_ 구(군) \_\_\_\_\_ 동(면)

\*\* 먼저 선생님에 관하여 몇 가지 여쭙어보고자 합니다

문 1. 선생님의 성별은?  
\_\_\_\_ ① 남 \_\_\_\_\_ ③ 여

문 2.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몇 세입니까? (만 \_\_\_\_\_ 세)

문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_\_\_ ①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_\_\_ ② 국민학교  
 \_\_\_ ③ 중학교                              \_\_\_ ④ 고등학교  
 \_\_\_ ⑤ 초급·전문대학                      \_\_\_ ⑥ 대학교 이상

문 4. 선생님은 결혼하셨습니까?

- \_\_\_ ① 미혼                                      \_\_\_ ② 기혼  
 \_\_\_ ③ 이혼                                      \_\_\_ ④ 사별  
 \_\_\_ ⑤ 별거

문 5.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의 생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잘 사는 편이다                          \_\_\_ ② 중간 정도이다  
 \_\_\_ ③ 못 사는 편이다                          \_\_\_ ④ 아주 어렵다

문 6. 현재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가족 외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친척이나 동거인이 있으면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_\_\_ ① 처 (남편)                                  \_\_\_ ② 형제자매 (\_\_\_\_ 명)  
 \_\_\_ ③ 아버지                                      \_\_\_ ④ 어머니  
 \_\_\_ ⑤ 할아버지                                  \_\_\_ ⑥ 할머니  
 \_\_\_ ⑦ 아들 (\_\_\_\_ 명)                          \_\_\_ ⑧ 딸 (\_\_\_\_ 명)  
 \_\_\_ ⑨ 기타 (\_\_\_\_\_)

\*합계: \_\_\_\_\_ 명







문 17.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 라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_\_\_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_\_\_ ③ 대체로 동의한다          \_\_\_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문 18. 선생님은 생협에 주문한 물품이 결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 \_\_\_ ① 공급된 생협 물품만 가지고 그냥 식단을 꾸민다.  
\_\_\_ ② 어쩔 수 없이 시장 물건을 사지만, 그래도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한다.  
\_\_\_ ③ 어쩔 수 없이 시장에서 사먹는다.

문 19. 선생님은 생협의 다음 행사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문 20. 선생님은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생산자들과의 교류(간담회, 산지 견학, 대보름 및 가을걷이 행사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 문 20-1, 문 20-2번으로  
\_\_\_ ② 없다

문 20-1. (있었다면) 작년(2003년)에는 연간 몇 회 정도 참석하십니까?

연간 약(      회)

문 20-2. (있었다면) 생산자와의 교류를 통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_\_\_ ① 생산자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 \_\_\_ ②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알게 되었다.
- \_\_\_ ③ 농업구조와 농촌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_\_\_ ④ 먹을거리와 환경의 오염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_\_\_ ⑤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
- \_\_\_ ⑥ 기타 (                    )

문 21.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아주 불만족
1) 백화점 등에서의 대량 유통	4	3	2	1
2) 생산지 도로 판매	4	3	2	1
3)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4	3	2	1

각하십니까?

문 22. 현재 생협이 “무점포 공급사업”이 지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 \_\_\_ ) 위에 직접 써주십시오.)

- \_\_\_ ① 공급주기가 길어 정시구입이 어렵다
- \_\_\_ ② 신청한 물건이 안오는 경우가 많다
- \_\_\_ ③ 가격이 비싸다
- \_\_\_ ④ 배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 \_\_\_ ⑤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
- \_\_\_ ⑥ 물품의 질과 신선도가 일정하지 않다
- \_\_\_ ⑦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
- \_\_\_ ⑧ 친절하지 못하다

\_\_\_ ⑩ 문제점이 없다

문 23. 현재 생협이 “점포 공급사업”이 지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 \_\_\_ ) 위에 직접 써 주십시오.)

\_\_\_ ① 매장과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하다

\_\_\_ ② 배달해 주지 않는다

\_\_\_ ③ 가격이 비싸다

\_\_\_ ④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찍 문을 닫는다

\_\_\_ ⑤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

\_\_\_ ⑥ 물품의 질과 신선도가 일정하지 않다

\_\_\_ ⑦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

\_\_\_ ⑧ 일요일 등 쉬는 날이 너무 많다

\_\_\_ ⑨ 친절하지 못하다

\_\_\_ ⑩ 문제점이 없다

문 24. 앞으로 생협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별로 두 가지를 골라 1, 2의 번호를 ( \_\_\_ ) 위에 직접 써주십시오.)

\_\_\_ ① 농업 및 농촌 문제

\_\_\_ ② 자녀와 가족의 건강 문제

\_\_\_ ③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

\_\_\_ ④ 먹을거리뿐만 아닌 보다 광범위한 환경 문제

\_\_\_ ⑤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문제

\_\_\_ ⑥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 문제

\_\_\_ ⑦ 일자리 창출(특히 여성의) 문제

\_\_\_ ⑧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

문 25. 현재 거주하신 지역 내에 다른 생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_\_\_ ① 알고 있다 ⇒ 문 25-1, 문 25-2번으로

\_\_\_ ② 모른다

\_\_\_ ③ 없다

문 25-1. (알고 있다면) 그 생협을 이용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_\_\_ ① 이용해 본 적이 있다

\_\_\_ ② 없다

문 25-2. 우리 생협보다 다른 생협이 나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 가격이 싸다

\_\_\_ ② 서비스가 좋다

\_\_\_ ③ 물품이 다양하다

\_\_\_ ④ 기타 ( )

문 26. 선생님은 생협이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 ) 위에 직접 써주세요.)

\_\_\_ 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업운동

\_\_\_ ②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운동

\_\_\_ ③ 살기 좋은 마을(지역사회)을 만드는 지역운동

\_\_\_ ④ 잘못된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활운동

\_\_\_ ⑤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협동운동

\_\_\_ ⑥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_\_\_ ⑦ 여성의 사회참여를 넓혀가는 여성운동

\_\_\_ ⑧ 기타 ( )

문 27. 선생님은 생협이 앞으로 어떤 운동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 ) 위에 직접 써주세요.)

\_\_\_ 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업운동

\_\_\_ ②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운동

\_\_\_ ③ 살기 좋은 마을(지역사회)을 만드는 지역운동



문 29.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항목에 V표를 해주십시오)

문 30. 선생님의 친한 친구 3명을 꼽을 때, 그 사람들에게 대해 답해 주십시오.

- (1) 3명은 모두 다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 (2) 3명은 모두 다 같은 마을이나 이웃에 산다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 (3) 3명은 모두 다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 (4) 3명은 모두 다 생활수준이 비슷하다    \_\_\_\_\_ ① 그렇다    \_\_\_\_\_ ② 아니다

문 31. 선생님은 '계' (契)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_\_\_\_\_ ① 해 본 적이 있다 ⇒ 문 31-1, 31-2번으로
- \_\_\_\_\_ ② 해 본 적이 없다

문 31-1. (있다면) 어떤 이유로 그 '계' (契)를 하셨습니까?

- \_\_\_\_\_ ① 목돈마련을 위해
- \_\_\_\_\_ ② 친목도모를 위해
- \_\_\_\_\_ ③ 둘 다

문 31-2. 어떤 사람들과 계를 해보셨습니까?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 \_\_\_\_\_ ① 가족이나 친척
- \_\_\_\_\_ ② 이웃, 동네사람
- \_\_\_\_\_ ③ 학교동창
- \_\_\_\_\_ ④ 같은 생산자조합 사람
- \_\_\_\_\_ ⑤ 교회, 성당, 절에서 알게 된 사람
- \_\_\_\_\_ ⑥ 각종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영농강좌, 문화강좌 등)
- \_\_\_\_\_ ⑦ 전혀 모르는 사람



겠습니까?

- \_\_\_ ① 큰아들에게만 물려준다
- \_\_\_ ② 아들에게만 나눠주되 큰아들에게는 좀 더 많이 물려준다
- \_\_\_ ③ 아들에게만 공평하게 물려준다
- \_\_\_ ④ 아들·딸 구별 없이 공평하게 나눠준다
- \_\_\_ ⑤ 노후에 의지할 자녀에게 많이 물려준다
- \_\_\_ ⑥ 해당사항이 없다

⊙ 36. 남자가 부엌일을 하는 것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
- \_\_\_ ② 남자가 부엌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 남의 이목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
- \_\_\_ ③ 남자가 부엌일을 할 수는 없다
- \_\_\_ ④ 생각해본 적이 없다

	아주 찬성	대체로 찬성	그저 그렇다	대체로 반대	아주 반대
1) 바쁜일이 있어도 시제나 친족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5	4	3	2	1
2) 나에게 이롭지만 가문이나 친족에게 손해가 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5	4	3	2	1
3) 지역행사는 개인적으로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참석해야 한다	5	4	3	2	1

⊙ 37. 다음 사항 중 선생님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것에 가깝다고 보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남편이 혼자	남편이 주로 부인과 의논	부인과 남편이 동등	부인이 주로 남편과 의논	부인이 혼자
1) 주택구입	5	4	3	2	1
2) 생활필수품 구입	5	4	3	2	1
3) 자녀 교육문제	5	4	3	2	1

☞ 38. 선생님의 댁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을 선정해 주십시오.

\*\* 장시간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우리의 새로운 친환경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문 3.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_\_\_ ①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      \_\_\_ ② 국민학교  
 \_\_\_ ③ 중학교                              \_\_\_ ④ 고등학교  
 \_\_\_ ⑤ 초급 · 전문대학                \_\_\_ ⑥ 대학교 이상

문 4. 선생님은 결혼하셨습니까?

- \_\_\_ ① 미혼                                      \_\_\_ ② 기혼  
 \_\_\_ ③ 이혼                                      \_\_\_ ④ 사별  
 \_\_\_ ⑤ 별거

문 5.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신의 생활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잘 사는 편이다                      \_\_\_ ② 중간 정도이다  
 \_\_\_ ③ 못 사는 편이다                      \_\_\_ ④ 아주 어렵다

문 6. 현재 선생님과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또한 가족 외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친척이나 동거인이 있으면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_\_\_ ① 처 (남편)                              \_\_\_ ② 형제자매 (\_\_\_ 명)  
 \_\_\_ ③ 아버지                                  \_\_\_ ④ 어머니  
 \_\_\_ ⑤ 할아버지                              \_\_\_ ⑥ 할머니  
 \_\_\_ ⑦ 아들 (\_\_\_ 명)                        \_\_\_ ⑧ 딸 (\_\_\_ 명)  
 \_\_\_ ⑨ 기타 (\_\_\_\_\_)

\* 합 계 : \_\_\_\_\_ 명



( )

문 10-3. 선생님! 생협운동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 \_\_\_ ① 아주 활성화될 것이다 \_\_\_\_\_ 문 10-4 번으로
- \_\_\_ ② 대체로 활성화될 것이다 \_\_\_\_\_
- \_\_\_ ③ 대체로 침체될 것이다 \_\_\_\_\_ 문 10-5 번으로
- \_\_\_ ④ 아주 침체될 것이다 \_\_\_\_\_

문 10-4. (활성화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문 10-5. (침체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구입하지 않는다	대체로 구입하지 않는다	거의 절반 정도 구입한다	대부분 구입한다	전부 구입한다
(가) 주곡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나) 잡곡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다) 과일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라) 채소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마) 수산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바) 축산물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사) 가공식품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아) 장류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자) 생활용품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 11. 선생님은 다음 각 농산물을 생협에서 어느 정도 구입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 지 않다
1) 농산물의 품질이 아주 좋다	4	3	2	1
2) 농산물이 안전하다	4	3	2	1
3) 농산물 구입이 편리하다	4	3	2	1

☐ 12. 선생님은 생협의 판매활동 관련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3. 선생님은 일반 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이 어느

	일반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농산물
(1) 쌀	100	( )	( )	( )
(2) 채소류	100	( )	( )	( )
(3) 과일류	100	( )	( )	( )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4. “안전한 농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비용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다” 라는 말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_\_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_\_\_ ②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_\_\_ ③ 대체로 동의한다      \_\_\_ ④ 전적으로 동의한다

☐ 15. 선생님은 생협 등 소비자단체가 주관하는 “생산자들과의 교류(간담회,

산지 견학, 대보름 및 가을걷이 행사 등)에 참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 \_\_\_ ① 있다 ⇒ 문 15-1, 문 15-2번으로  
\_\_\_ ② 없다

문 15-1. (있었다면) 작년(2003년)에는 연간 몇 회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연간 약(                    회)

문 15-2. (있었다면) 생산자와의 교류를 통해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_\_\_ ① 생산자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었다.  
\_\_\_ ② 농산물의 생산 과정을 알게 되었다.  
\_\_\_ ③ 농업구조와 농촌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_\_\_ ④ 먹을거리와 환경의 오염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_\_\_ ⑤ 별로 얻은 것이 없었다.  
\_\_\_ ⑥ 기타 (                    )

문 17.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친환경 유기농산물 유통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

	아주 만족	대체로 만족	대체로 불만족	아주 불만족
1) 백화점 등에서의 대량 유통	4	3	2	1
2) 생산지 도로 판매	4	3	2	1
3)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4	3	2	1

각하십니까?

☐ 18. 현재 생협이 “무점포 공급사업”이 지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_\_\_\_) 위에 직접 써주십시오.)

- \_\_\_\_ ① 공급주기가 길어 정시구입이 어렵다
- \_\_\_\_ ② 신청한 물건이 안오는 경우가 많다
- \_\_\_\_ ③ 가격이 비싸다
- \_\_\_\_ ④ 배달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 \_\_\_\_ ⑤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
- \_\_\_\_ ⑥ 물품의 질과 신선도가 일정하지 않다
- \_\_\_\_ ⑦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
- \_\_\_\_ ⑧ 친절하지 못하다
- \_\_\_\_ ⑨ 문제점이 없다

☐ 19. 현재 생협이 “점포 공급사업”이 지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_\_\_\_) 위에 직접 써주십시오.)

- \_\_\_\_ ① 매장과 의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불편하다
- \_\_\_\_ ② 배달해 주지 않는다
- \_\_\_\_ ③ 가격이 비싸다
- \_\_\_\_ ④ 문을 열고 닫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일찍 문을 닫는다
- \_\_\_\_ ⑤ 물품의 종류가 너무 적다
- \_\_\_\_ ⑥ 물품의 질과 신선도가 일정하지 않다
- \_\_\_\_ ⑦ 반품이나 교환이 어렵다
- \_\_\_\_ ⑧ 일요일 등 쉬는 날이 너무 많다
- \_\_\_\_ ⑨ 친절하지 못하다
- \_\_\_\_ ⑩ 문제점이 없다

- 문 20. 앞으로 생협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별로 두 가지를 골라 1, 2의 번호를 ( ) 위에 직접 써주십시오.)
- \_\_\_ ① 농업 및 농촌 문제  
\_\_\_ ② 자녀와 가족의 건강 문제  
\_\_\_ ③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  
\_\_\_ ④ 먹을거리뿐만 아닌 보다 광범위한 환경 문제  
\_\_\_ ⑤ 자녀의 보육 및 교육 문제  
\_\_\_ ⑥ 고령사회를 대비한 복지 문제  
\_\_\_ ⑦ 일자리 창출(특히 여성의) 문제  
\_\_\_ ⑧ 기타 : 구체적으로 ( )

- 문 21. 선생님은 생협이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우선 순위별로 세 가  
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 ) 위에 직접 써주십시오.)
- \_\_\_ 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업운동  
\_\_\_ ②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운동  
\_\_\_ ③ 살기 좋은 마을(지역사회)을 만드는 지역운동  
\_\_\_ ④ 잘못된 생활양식을 바꾸는 생활운동  
\_\_\_ ⑤ 공동체적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협동운동  
\_\_\_ ⑥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회운동  
\_\_\_ ⑦ 여성의 사회참여를 넓혀가는 여성운동  
\_\_\_ ⑧ 기타 ( )

- 문 22. 선생님은 생협이 앞으로 어떤 운동에 보다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  
까?(우선 순위별로 세 가지를 골라 1, 2, 3의 번호를 ( ) 위에 직접 써  
주십시오.)
- \_\_\_ ①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농업운동



\* 이 책은 대산농촌문화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발간되었습니다.

\* 대산농촌문화재단은 교보생명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교보생명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우리 농업과 농촌, 농민을 위한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농산물의 대안 유통모델 연구 - 사회관계론적 접근

편집인 : 대산농촌 문화재단

펴낸날 : 2004년 12월 24일

공 저 : 김철규·김홍주·한도현·김기섭

펴낸이 : 이능형

편 집 : 대산농촌 문화재단

[www.dsa.or.kr](http://www.dsa.or.kr)

펴낸곳 : (주)명진씨앤피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1가 39번 센터플러스 616호

등 록 : 2004년 4월 23일 제 318-2004-00036호

전 화 : 02-2164-3000

홈페이지 : [www.dsa.or.kr](http://www.dsa.or.kr)

ISBN : 89-954953-2-4

정 가 : 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